

자연에서 들려주는  
GREEN MESSAGE



촌에 살고 촌에 웃고 5

귀농귀촌 18인의 우수사례 이야기 자연에서 들려주는 GREEN MESSAGE



농림축산식품부

귀농귀촌 우수사례집

발간등록번호 11-1543000-001332-01



# 촌에 살고 촌에 웃고 5

귀농귀촌 18인의 우수사례 이야기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

---

## 촌에살고 촌에웃고

귀농귀촌 18인의 우수사례 이야기



---

## 귀농귀촌 성공우수사례 발간에 즈음하여

농업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 농업은 산업화·개방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지만, 이제는 좋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미래성장 산업으로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농업에는 이미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농업이 쇠퇴기에 놓인 사양 산업이 아니라 생산·유통·가공·관광이 결합된 고부가가치형 6차 산업, ICT기술이 융합된 첨단산업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최근 2030세대를 중심으로 하는 젊은 층의 귀농귀촌 인구의 증가와 이를 통해 성공한 스타 농업인의 등장은 우리 농업의 새로운 변화와 성장 가능성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업농촌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주도면밀한 준비가 없다면 귀농귀촌은 성공할 수 없고, 실패할 경우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도 큰 비용을 안겨주게 될 것입니다.

본 책자에서 소개하는 18인의 '귀농귀촌 이야기'는 어떻게 해야 나만의 귀농귀촌 성공 스토리를 써 나갈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농업농촌에 대한 남다른 애착과 차별화된 지식 및 기술이 귀농귀촌 성공의 필수 요건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귀농귀촌을 꿈꾸는 이는 본 사례집을 통해 희망을 키우는 동시에 철저히 준비함으로써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귀농귀촌의 성공이 박근혜정부 농정 비전인 '희망찬 농업, 활기찬 농촌, 행복한 국민'을 실현하는 하나의 지름길임을 감안하여, 지자체 및 유관기관 등과 협력하여 귀농귀촌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6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 Contents



## 2030세대 귀농창업

귀농해도 청춘이다

▼ 축산업, 천지목장  
경기도 남양주 **김명섭** **10**

▼ 단감, 농촌관광  
경상남도 창원 **옥승국** **18**

▼ 하동찰빵, 찰호떡  
경상남도 하동 **조은우** **26**



## 은퇴부부 정착

인생2막, 막이 오르다

▼ 소  
전라남도 고흥 **송유종**  
**전지휘** **36**

▼ 사과, 사과아저씨농장  
충청남도 금산 **강총호**  
**변홍숙** **44**

▼ 신양유 브랜드사업, 체험농장  
전라남도 나주 **이용희**  
**손미자** **52**



## 여성귀농인

농업도 여성전성시대!

▼ 원예작물(딸기,포도)  
및 딸기체험농장  
전라북도 남원 **최희진** **62**

▼ 영채김치, 고추,콩  
전라남도 광양 **박은숙** **70**

▼ 블루베리, 오마케팅  
경상북도 청송 **김명순** **78**



## 6차산업 귀농창업

가치를 키우다

▼ 구암쌀두부  
전라북도 완주 **김민** **88**

▼ 밤호박, 울타리강낭콩  
고추, 농가먹이  
강원도 철원 **이광수** **96**

▼ 특용작물, 다물농장  
경기도 평택 **최창학** **104**



## 수출+ICT농업

새로운 판로 개척을 위한 움직임

▼ 농업회사법인  
민들레주식회사  
전라북도 정읍 **박창훈** **114**

▼ 미니밤호박, 하늘농원  
전라남도 진도 **박세천** **122**

▼ 파프리카  
경상남도 함안 **백승완** **130**



## 마을협력사업

웃음꽃 흐드러지는 마을

▼ 블랙베리를 이용한  
교육 체험농장  
전라북도 고창 **김기숙** **140**

▼ 대추, 서리태  
충청북도 보은 **김수향** **148**

▼ 당나귀 체험농장  
수도작, 밭작물  
강원도 홍천 **이용수** **156**



## [ 부록 ]

귀농귀촌하기 좋은마을 **164**

FAQ **176**

지자체별 지원정보 **184**



## 2030세대 귀농창업

귀농해도 청춘이다



10



▶ 축산업, 전지목장

경기도 남양주 김명섭

18



▶ 단감, 농촌관광

경상남도 창원 옥승국

26



▶ 하동철쭉, 철쭉떡

경상남도 하동 조은우



김명섭 ————— 경기도 남양주  
축산업, 천지목장

## 주위 사람들의 '신뢰'야말로 가장 큰 재산

탈북민, 노총각, 일당 노동자... 김명섭 씨(39)는 초라하기만 했던 자신의 이력에 마리당 1,000만원을 호가하는 한우 150마리의 주인인 '천지목장 대표' 라는 직함을 당당히 새겨 넣었다. 2007년 말, 한국으로 귀순한지 불과 8년만의 일이다. 그러나 그의 8년은 일반 사람들의 8년과는 달랐다. 잠자는 시간까지 아껴가며 탈북민이라면 다들 한 번씩은 다녀온다는 제주도도 한번 가보지 못한 채 그와 동고동락한 소들처럼 우직하게 일에만 매달린 결과였다.



귀농 전 거주지역	서울
귀농 전 직업	탈북민, 축사 공사
귀농 결심동기	소판매장에서 처음 수표를 접한 후
귀농 선택 작목 및 창업명	축산업, 천지목장
귀농 연도	2009년
귀농귀촌 관련 교육 이수	남북하나재단 귀농귀촌교육, 농업기술센터 영농교육 등



### 태어나 처음 본 수표...소를 키우기로 결심한 계기가 되다

2007년 11월, 북한을 빠져나와 한국에 입국한 김명섭 씨는 여느 탈북민들처럼 무슨 일을 해서 먹고 살아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다. 심신이 지쳐 있는 상태이기도 했지만 우왕좌왕하다가 한 달 이상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채 넋을 놓고 있었다.

그때 한 푼이라도 벌어보라는 지인의 소개로 이른바 '노가다'를 할 기회가 생겼다. 경기도 남양주에서 축사를 짓는 작업이었는데 일당 5만~6만 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 그곳에서 수개월 간 일을 하며 축사 짓는 기술을 익혀가던 김 씨는 지금의 그를



있게 해 준 ‘놀라운 장면’을 목격하게 된다.

“저에게 축사 짓는 일을 가르쳐주신 사장님이 소를 많이 키우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 해 가을 어느 날 사장님과 함께 소를 파는 곳에 갔는데 수십 마리의 소들이 거래 될 때 돈의 액수가 엄청났습니다. 그때 태어나서 처음으로 수표란 것도 봤지요. 그 자리에서 소를 키우면 이렇게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어떻게든 내 소를 키워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김 씨는 소를 키우려면 무엇보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기 시작했다. 시에 등록하고 조합에 가입을 하고 나서 경영을 해나간다는 것을 배웠고 농업기술센터나 남북하나재단 등에서 주최하는 귀농교육도 열심히 받으러 다녔다. 그러나 문제는 돈이었다. 수중에 돈이 없던 김 씨는 더욱 악착같이 일하면서 주변 사람들의 신뢰를 쌓아갔다. 그리고 몇 달 후, 사장에게 소 15마리를 외상으로 달라는 ‘기가 막힌’ 제안을 했다.

“사장님이 처음엔 저한테 미쳤다고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소는 현금과 같거든요. 일반적으로 소를 판매할 때 차에 소를 실어놓고도 통장에 돈이 들어와야 그때서야 내보내줍니다. 그런데 그 비싼 소를 한 마리도 아니고 15마리나 외상으로 달라고 했으니 사장님이 놀랄 만도 했지요.”

당시 15마리의 소 구입금액은 3,400만원. 연말까지는 돈을 모두 갚기로 약속했다. 1년 가까이 소처럼 우직하고 성실하게 일에만 매달린 김 씨를 지켜본 사장은 그를 믿어보기로 했다. 2009년 4월, 그렇게 김 씨는 15마리 소의 주인이 되었다.

### 🔴 끊임없이 들어가는 사료값 등 해결 위해 계속된 투잡

김 씨는 3,400만 원의 소 구입자금 중 1,000만 원은 일을 해주면서 월급을 받지 않는 형식으로 갚아 나갔고 그동안 모아놓은 돈 1,600만 원을 건넸으며 그래도 모자란 돈은 탈북자들에게 마련해 준 집을 반납하면서 받은 1,400만 원으로 충당했다. 덕분에 거처는 축사 근처 컨테이너로 옮겨야 했다.

어렵사리 소를 구입하긴 했지만 축산업이라는 게 덩그러니 소만 있다고 되는 일은 아니었다. 소를 키우려면 당연히 땅이 있어야 하고 그 땅에 대한 보증금과 임대료, 게다가 소들이 기거할 축사도 필요했다. 뿐만 아니라 사료값이며 전기세, 물세, 깔비



“어떻게든 내 소를 키워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용 등 적지 않은 운영비도 감당해야 했다.

“소를 키우기 위해 끊임없이 일해야 했습니다. 그동안 해오던 축사 짓는 일을 더 열심히 했지요. 하루도 안 쉬고 공사에 매달리면 한 달에 300만 원은 벌 수 있었고 그 돈을 모두 소 키우는 데에 쏟아 부었습니다.”

축산업을 시작할 때 우선 유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 ‘비육용소’와 ‘번식용소’를 자금 상황에 따라 적절히 분배해야 한다는 점이다. 김 씨는 자금상황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처음 15마리 소를 모두 ‘번식용소’로 구입했다.

고기용으로 판매되는 비육용소는 잘 먹여야 하기 때문에 사료값이 번식용소보다 두 배 이상 들어간다. 반면 번식용 소는 비육용소보다 운영비는 적게 들어가지만 새끼를 낳고 키울 때까지의 기간이 길어 빠른 시간 내에 소득을 기대하기는 힘들다.

만일 그의 또 다른 직업인 축사 공사일이 없었다면 소를 키우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그는 강조했다. 여유자금이 많지 않은 이상 축산업은 함부로 시도할 수 없는 업종이라는 것이다.

### 주위 사람들의 '신뢰', 가장 큰 재산

“축산업을 하려면 소를 회전시킬 수 있는 기반을 갖춰야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면 정말 힘든 일입니다. 저도 서울 협동조합의 조합원인데 거기에 가보면 제 또래는 축산업으로 이미 부를 축적한 사람들의 2세가 대부분입니다. 제 나이에 아무것도 없이 시작한 경우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축산업은 큰돈이 오가는 사업이니만큼 그가 이 일을 하며 겪었던 대부분의 어려움은 자금 문제였다. 자금이 부족해 1년도 안 돼 포기한 사람들을 주위에서 수도 없이 봐온 터였다. 그러나 여유자금이 없었던 김 씨가 15마리의 소를 지금의 150마리로 키울 수 있었던 건 한결같은 성실함과 정직함, 그로 인한 주위 사람들의 ‘신뢰’ 덕분이었다.

“3년 동안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정부지원도 알아봤지만 제 소유의 땅이 없으면 지원이 되지 않았지요. 축산업을 몇 년 하다보면 소를 싸게 사서 비싸게 팔 수 있는 때가 있는데 이 때 억 단위의 돈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대개 한 달 정도의 짧은 용통이지만 저를 믿고 돈을 빌려주시는 분들이 있었죠.”

김 씨가 이렇듯 큰 신뢰를 쌓기까지는 치러야 했던 아픔들도 적지 않았다. 탈북민이라는 편견에 곱지 않은 시선을 받기도 했고 대놓고 무시하며 마치 종 부리듯 부려먹는 사람들도 있었다. 하지만 김 씨는 그들 모두에게 항상 최선을 다했고 진심을 다해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했다. 이제는 150마리의 소를 키우는 목장 대표이지만 그는 8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모습으로 주위 사람들에게 친절할 뿐 아니라 여전히 축사를 짓는 공사일도 병행하고 있다.






▶ 평양을 이겨내고 자리잡은 천지목장, 마을의 자랑거리

**▶ 뺨을 문을 각오... 2020년까지 500마리 목표**

최근 김 씨는 150마리의 소 중 70여 마리를 처분했다. 이제는 본인의 땅에서 소를 키워야 한다는 생각에서다. 충청남도 예산에 땅을 구입, 조만간 소들과 함께 거처를 옮길 계획이다.

“초심으로 돌아가 처음 축산업을 시작하는 심정으로 일할 예정입니다. 혹시 축산업을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남이 성공한다고 나도 성공할 수 있다는 생각은 금물입니다. 그야말로 뺨을 문을 각오로 일하지 않는다면 성공은 찾아오지 않습니다. 1년 이상 유지할 수 있는 자금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는 것은 기본 중 기본입니다.”

김 씨의 현재 목표는 2020년까지 암소 300마리, 수소 200마리까지 늘리는 것. 그렇게 되면 1년에 200마리의 소를 배출할 수 있는데 이는 웬만한 중소기업의 매출과

맞먹는다. 그때가 되면 어려운 누군가를 돕는 삶을 살고 싶다면 그는 수줍은 미소를 지었다. 



가족경영규모 \_ 1인 경영  
축산업 3,966㎡



평균수입 \_ 3억~4억 원

필요한 기술 및 시설

사료배합기술, 축사,  
스키로드, 1톤 차 등



연간운영비 \_ 1억3천~4천만 원



평균투자비 \_ 4억(3년)



옥 승 국 \_\_\_\_\_ 경상남도 창원시  
단감, 농촌관광

## 농업을 배우고 경영하는 젊은 농부

잘 나가던 대기업을 그만두고 20대에 귀농을 결심한 옥승국(34) 씨. 귀농 8년차에 접어드는 그는 단감농사를 지으며 빗돌배기마을의 사무장으로서 빗돌배기마을과 다감농원의 실무를 책임지고 있다. 빗돌배기마을은 전국적으로도 잘 알려진 농어촌체험휴양마을이다. 빗돌배기마을 내에 자리 잡은 다감농원은 친환경 방식으로 농산물을 재배하여 직거래로 판매하는 한편 농촌관광을 접목한 교육농장으로 6차 산업의 우수사례로 손꼽힌다. 그는 바로 이 다감농원과 함께 전문 농업인으로 성장해 가고 있다.



귀농 전 거주지역	부산
귀농 전 직업	직장인(삼성전기 생산직)
귀농 결심동기	안정적인 미래의 직업을 선택하고 싶어서
귀농 선택 작목 및 창업명	단감, 농촌관광
귀농 연도	2009년
귀농귀촌 관련 교육 이수	농업마이스터대학, 관광대학 외 다수



### 10여 년의 직장생활 끝에 선택한 농업의 길

고등학교 때 이미 대기업인 삼성전기에 입사한 그는 10여 년간 직장생활을 이어갔다. 그러던 중 직장선배들이 불안정한 미래에 대해 고민하는 모습을 보게 되고 그것이 바로 자신의 모습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은퇴 걱정없이 할 수 있는, 자신에게 맞는 직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기 시작했다. 그러다 우연히 농민신문에 난 기사를 보고 다감농원의 강창국 대표에게 연락을 취했다.

“농민신문을 보고 무조건 문자를 드렸죠. 그랬더니 강 대표님께서 답을 주셨어요.



그래서 찾아뵙고 상담을 드렸죠. 농사를 짓겠다니까 처음엔 말리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사무장 채용제도가 있는데 조금이라도 월급을 받고 일을 하면서 농사를 배워보겠냐고 하셨고 그래서 귀농을 결심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가족의 반대도 있었다. 하지만 믿고 기다려달라고 설득한 끝에 2009년 빗돌배기마을의 사무장을 맡아 귀농을 한다. 한동안은 수입이라고는 사무장으로 일하며 받는 월급 뿐이라 경제적으로 힘든 부분도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비록 임대이지만 조그마한 규모의 밭도 있고, 귀농 5년째 될 무렵부터는 이전 직장에서 받던 월급 수준만큼 수입도 늘었다. 2013년도에는 자신을 믿고 기다려준 여자 친구와 결혼도 하고 두 딸도 두었다. 현재는 아내가 부산에서 직장생활을 하느라 가족과 따로 떨어져 살지만 좀 더 기반이 잡히면 이곳에서 함께 살아갈 예정이다.

### 🍅 할 일이 없어서 농사 짓겠다는 생각은 금물

다감농원은 주요 생산 품목인 단감을 비롯해 딸기, 방울토마토, 자두 등 농산물을 재배하며 단감을 이용한 다양한 가공품도 판매한다. 이곳에서 생산한 단감은 유명백화점에서 높은 가격으로 팔릴 정도로 품질이 우수하다. 또한 매년 2만여 명의 사람들이 농촌체험을 위해 이곳을 찾는다. 방문객을 맞이하고 빗돌배기마을 다감농원을 알리는 것 또한 그의 몫이다. 남들은 농사일만 하면 되지만 농사도 지어야 하고 교육과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등 사무장으로서의 역할도 해야하기 때문에 더 힘이 든다고 했다.

몸도 바쁘고 일은 힘들지만 한 번도 귀농을 후회하거나 포기하고 싶었던 적은 없다. 후회할 거면 처음부터 선택도 하지 않았을 거라는 그였다. 하지만 때때로 슬럼프가 찾아올 때도 있다고 했다.

“더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죠. 슬럼프라는 게 일이 힘들어서라기보다는 능률이 안 오르거나 성과가 잘 안 나서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해결 방법을 찾아서 열심히 하다보면 어느새 극복이 되더라고요.”

그는 귀농을 꿈꾸거나 계획하는 젊은이들에게 다음과 같이 조언했다.

“꼼꼼히 준비하며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남들의 성공스토리만 듣고 큰 기대를 걸지는 마세요. 꼭 금전적인 것이 아니라도 무형의 가치를 보고 선택하셨으면 좋겠



마이를 주는 옥송귀대표 ▶

“남들의 성공스토리만 듣고  
큰 기대를 걸지는 마세요.”

어요. ‘할 일이 없어서 농사를 짓는다’,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또 농사도 사업이다 보니 비즈니스 마인드를 갖는 것도 중요해요.”

### 멘토, 가장 큰 힘이 되다

“강창국 대표님은 늘 농업에 대한 철학 없이는 농업을 하면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농업이란 인류에게 기여를 해야 하고 인류와 지구에 이로운 일이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저도 늘 그 정신을 닦으려고 합니다. 또 끊임없이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농업이야말로 더 열심히 공부를 하고 배워야 하는 분야라고요.”

그래서 그는 귀농 후 먼저 농업에 대해서 공부하기 시작했다. 농업마이스터대학 2년, 관광대학 1년 등 총 3년 동안 전문 과정을 공부했다. 그 외에도 수없이 많은 교육을 받고 공부를 했다. 어떻게 보면 농사보다 공부에 더 많은 시간을 들인 셈이다. 귀농 첫 해인 2009년에는 처음 실시된 국제농식품무역사 인증시험에 강 대표와 함께 도전해 합격을 거머쥐기도 했다.

귀농을 결심하고 정착하기까지 가장 큰 힘이 된 것은 바로 그의 멘토, 강 대표다. 강 대표는 농림축산식품부 지정 전문농업경영인 농업마이스터, 현장실습교육장(WPL) 한국농수산대학 현장실습 교수이기도 하다. 그는 강 대표를 멘토로 삼아 적절한 멘토링과 컨설팅을 받으며 시행착오를 줄여나갔다.

“멘토가 있다는 것이 무엇보다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해요. 많은 가르침을 얻을 수 있죠. 교육을 통해서도 배울 수는 있겠지만 멘토를 통해 배우는 것은 바로 살아있는 지식이지요. 그런 면에서 저는 운이 좋았다고 봐요. 하지만 열린 마음도 중요해요.



새로운 정보나 기술을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도 필요하거든요.”

### 일하기 좋은 곳이 아닌 일하면 좋은 곳

“이렇게 꽃이 피기 전에 꽃봉오리가 맺히면 꽃봉오리를 숙아줘야 해요. 한두 개를 남기고 따주는 거죠. 그래야 과일이 더 크고 품질도 좋아지거든요.”

다감농원의 감나무들은 다른 감나무와는 조금 모양이 다르다. 키가 작은 대신 옆으로 길게 펼쳐져 있다. 나무들도 덩성덩성 심어져 있다. 대부분의 농가가 나무를 뻗뻗하게 심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바로 통풍이 잘 되고 햇빛을 충분히 쬐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한 나무 옆으로 배수로를 깊게 파서 물 빠짐이 좋도록 했다. 이것이 바로 최고 품질의 단감을 재배하는 비결이라고 했다.

“좋은 품질의 생산물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필수 요소 3가지가 있어요. 바로 기후와 토양, 품종입니다. 이곳은 단감에 적합한 기후와 토양을 갖추었습니다.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이 바로 채광과 통풍, 배수 등 인위적 조건입니다. 그 조건을 잘 갖추어줄 때 좋은 품질의 단감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필요한 것이 바로 교육입니다. 식물에 따른 특성과 재배방법을 배워야 해요.”


이렇듯 기본에 충실한 친환경 농법으로 고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하고 6차 산업을 활



용해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한 것이 성공의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앞으로 바람이 있다면 작더라도 땅을 사서 농사를 짓고 집도 마련하는 것이다.

“제가 다니던 직장이 일하기 좋은 곳이라면 이곳은 일하면 좋은 곳이에요. 늘 즐거워요. 일한 만큼 성과도 있어 성취감도 크고요.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고 농촌의 맛과 즐거움을 느끼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는 마지막으로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어떤 일을 하든지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그 일을 사랑해야 하고요, 영원한 것은 없듯이 지금 성과에 만족하지 말고 항상 노력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겸손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가족경영규모 \_ 2인 경영  
임야 9,000m<sup>2</sup>, 하우스 900m<sup>2</sup>



평균수입 \_ 4 천만 원

필요한 기술 및 시설

승용자동차,  
선별기 등



연간운영비 \_ 1 천 5백만 원



평균투자비 \_ 1 천 5백만 원(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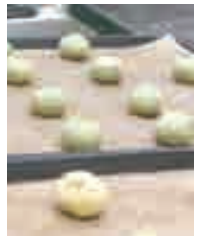
조은우 ————— 경상남도 하동  
하동찰빵, 찰호떡, 한식화된 퓨전간식

## 한식 세계화에 길을 내다

조은우 대표는 전문대학에서 디자인을 전공했다. 2006년엔 고깃집, 2007년엔 직장생활, 2008년엔 다시 고깃집 체인점 사업을 했다. 그 외에도 꽃집, 부동산, 고기출장뷔페 그리고 서울 압구정동에 상경하여 죽집을 운영하고 다시 하동으로 내려와 이유식 사업, '에코맘 산골이유식'으로 재기하였지만 잘 되는 사업을 훌연히 접고 하동찰빵, 찰호떡에 승부를 걸었다. 조 대표의 사업이력은 나이에 비해 화려하다. 이른 나이에 별다른 준비 없이 사업을 하다 보니 좌절을 겪을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어엿한 강소농으로 주목을 받게 되었다.



귀농 전 거주지역	서울
귀농 전 직업	자영업
귀농 결심동기	창업
귀농 선택 작목 및 창업명	지역특산물을 활용한 빵/떡, 한식화된 퓨전간식
귀농 연도	2012년
귀농귀촌 관련 교육 이수	강소농 교육



### ☞ 사업의 굴곡이 강소농 자양분이 되다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 말은 바로 조은우 대표를 두고 하는 말 같다. 20대의 첫 사업은 전공과 관련이 없는 고깃집 운영이었기 때문이다. 아르바이트 경험을 살려 시작한 인생의 첫 사업이다 보니 열정은 컸지만 미약한 준비 탓에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 그리고 2년 후 다시 고깃집을 시작한 조 대표는 연 매출 5억 원의 성공을 거두게 된다. 하지만 조 대표는 성공에 안주하지 않았다. 자금능력이 어느 정도 갖추



어지자 꿈꾸던 프랜차이즈 사업으로 고개를 돌렸다. 누군가에게는 평생 일어서지 못하는 고난이 될 수도 있는 사업의 실패가 조 대표에게는 또 하나의 저력을 만들어 내는 힘이 되었던 것이다. “20대에 시작한 외식업의 성공과 실패로 인한 교훈과 경험은 올바른 야망과 책임감으로 무장하게 해주는 큰 가르침을 주는 고마운 기회였습니다.”

지금은 허심탄회하게 꺼내 놓을 수 있는 이야기가 되었지만 그 당시 자신은 ‘그냥 작은 먼지에 불과했다’라는 말로 본인이 느꼈던 상실감과 무력감을 표현했다. 그렇지만 끊임없이 시도하는 과정 속에서 새로운 미래를 잡을 수 있었다고 회상했다.

### 찰빵의 퇴로를 막아 찰호떡의 진로를 뚫다

조 대표의 사업 시작은 경남 진주에서였다. ‘화씨화로’라는 외식업을 시작으로 여러 업종을 섭렵한 후 프랜차이즈 사업을 위해 서울로 상경하였다. 죽집을 운영했지만 실패하고 죽에 간을 빼면 이유식이 된다는 점에 착안, 청정지역이면서 농수산물이 다양한 하동으로 귀농을 했다. 이유식 사업은 연 매출 10억 원 정도의 제법 탄탄한 기업으로 성장했지만 조 대표는 동업이 아닌 단독으로 사업을 이끌어 보겠다는 생각으로 지역 특성을 반영한 사업을 모색하다 찰빵과 찰호떡으로 아이템을 선회하여 또 한 번 창업에 도전했다.

다양한 사업을 거치면서 지금의 찰빵과 찰호떡을 아이টে으로 채택한 동기는 경주의 경주빵이나 천안의 호두과자와 같은 지역을 대표하는 특산물이 관광지인 하동에 없다는 점 때문이다. 무일푼으로 시작한 찰빵, 찰호떡 사업은 2013년 경남 생명건강 산업 기업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상품으로써 첫선을 보였다. 그러나 부진한 매출이 발목을 잡았다.

“낮은 인지도 탓인지 소비자의 구매율이 신통치 않았어요. 포기하지 않는 근성으로 하동찰빵의 레시피와 판매방법을 응용하여 만든 ‘하동찰호떡’이 하동의 명물이 되었어요.”

현재까지 ‘하동찰호떡’은 온라인을 통해 시장을 확장 중이며 SNS, 학교급식, 대미 수출까지 꾸준히 판로를 개척해 국내뿐 아니라 해외로까지 ‘전통의 맛’을 전하고 있다.

조은우 대표는 정부의 지원정책도 잘 활용했다. 2013년 녹차연구소 바이오21 양산



“20대에 시작한 외식업의 성공과 실패는 큰 가르침을 준 고마운 기회였습니다.”

화 지원에 힘입어 하동찰빵을 양산하였고, 2014년에는 농식품 품질규격화 사업으로 브랜드이미지를 향상시켰다. 뿐만 아니라 포장 디자인 분야에서부터 제빵·자동화 설비 구축, 포장재 제작, 귀농인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의 혜택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게 된 것 모두 정부의 정책이 뒷받침된 부분이다. 2013년 시작한 제과제빵 사업은 꾸준히 성장세를 보이다가 올해에는 자동화 설비구축을 통한 생산량 증대로 매출 5억 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대의 실패경험이 30대에 성공의 밑거름으로 돌아오는 순간이다.

### 🍌 특별한 치즈스틱... 더 많은 아이디어 상품개발의 시작이 되다

찰호떡은 앞으로 꾸준히 매출을 올려 줄 효자상품이긴 하나 계절특수성에서 자유로울 순 없다. 겨울이 아닌 다른 계절에 판매할 수 있는 아이템이 필요했다. 조 대표가 생각한 것은 치즈스틱이었다. 대중적이면서 매출을 뒷받침할 단가를 유지하는 '치즈'에 한식의 아이디어를 얹어 한식퓨전 치즈스틱을 개발한 것이다. 귀농 후 3년간의 판매경험으로 얻어진 소비자 심리파악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치즈스틱을 국내 최대상권인 서울을 시작으로 프랜차이즈화 할 계획이다. '하동 쌀'을 이용한 떡거리로 지역도 살리고 한식을 세계화하겠다는 의지가 현실화되는 순간이다. 조 대표는 원재료로 로컬푸드 매입을 통해 지역 농가의 소득을 높이고 지역 일자리 창출, 소상공인 소득기회제공은 물론 관련 업종들의 기술분업화로 상생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러한 경제효과까지 감안한 조 대표의 사업관은 사업의 성공이 그저 개인 성공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지역을 살리고 새로운 먹거리 문화를 주도하기 위해 사업에 몰두하고 있으며 국내를 넘어 세계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국제적 프랜차이즈를 목표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조 대표의 사업은 몸으로 체득한 경험과 경제에 대한 감각, 그리고 소비자 심리를 꿰뚫는 아이디어의 결집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역의 쌀을 주재료로 한 아이템이 끝도 없이 흘러나오는 걸 보면 알 수 있다. 헝그리타임을 겨냥한 푸드카(food car), 소비자들에게 재미와 스토리를 줄 수 있는 에그트리 알버거, 알밥, 알스크림, HMR산업(가정식 대체식품)을 타깃으로 무궁무진한 아이템들은 이미 상품등록을 마친 상태다.

지금도 주말과 평일 구분 없이 사업에 몰두하고 있다는 조 대표는 사업의 결과는 '생각의 차이'에서 나온다고 강조한다. 그리고 하동지역의 주요 특성을 잘 활용한 것과 더불어 봉사활동을 통한 지역민들과의 끈끈한 유대관계를 유지했던 것이 사업성공요인의 한가지였다고 보낸다. 하동 찰호떡이 미국 LA의 입맛 사냥에 성공했듯이 대중성을 고려한 간단한 아이디어가 세계의 입맛을 사로잡을 날이 머지않은 듯하다.





▶ 들머우, 들머우 대표 아이디어

**포기를 모르는 사업에 대한 집념과 아이디어 개발**

사업을 기획하는 20대들을 만나면 조은우 대표는 ‘젊은 20대, 두려움을 포기하라’라고 말하고 싶다. 포기해야 할 것은 바로 두려움이며 끊임없는 연구와 시도가 사업의 결과를 판가름 짓는다고 믿기 때문이다. 사실 조 대표는 처음 사업을 시작하면서 많은 준비를 했던 것은 아니다. 그저 현장에서 답을 찾고자하는 의도가 컸기 때문에 가장 장애가 되는 것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했다. 그는 두려움 대신 사업에 집중하는 힘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아기 먹이게 죽에 간을 하지 말고 주세요’라는 고객의 한마디가 죽 사업에서 이유식 사업으로 전환하는 시점이 되었던 점을 볼 때, 모든 관심이 ‘어떻게 하면 사업을 잘 운영할 수 있을까’에 집중해 있기에 지나가는 말 한마디에서 아이템을 건져낼 수 있었던 것이다.

“저의 귀농 성공의 핵심은 지역이 가진 가치를 활용하여 기획하고 마케팅화하여 상

품화하는 것입니다. 그 상품을 지역의 기관, 지역민들과의 교류 또는 공유로 다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간다면 저의 귀농 의미는 충분합니다.”

소박하게 귀농의 의미를 마무리 짓는 ‘복을 만드는 사람들’의 조은우 대표의 말에서 복은 오는 것이 아니라 만드는 것이라는 생각을 해본다.



**가족경영규모** \_ 4인 경영  
제조시설 100평(330m<sup>2</sup>)



**평균수입** \_ 3억 5천만 원

**필요한 기술 및 시설**  
제조시설,  
제과제빵 기계



**연간운영비** \_ 1억 5천만 원



**평균투자비** \_ 3억(3년)



## 은퇴부부 정착

인생 2막, 막이 오른다



# 36

▶ 최상근 주



전라남도 고흥 송유종  
전지휘

# 44

▶ 사막, 사과이재미 농장



충청남도 금산 강충호  
변홍숙

# 52

▶ 신영우브랜드시업, 제원농장



전라남도 나주 이용희  
손미자



송 유 중 ————— 전라남도 고흥  
전 지 휘 ————— 최상급 소 키우기

## 은퇴 후 찾은 가치있는 삶

도시에서 펜을 잡고 회사생활을 한 지 수십 년. 도시에서 회사생활을 한 사람 중 많은 사람들이 귀농을 꿈꾸지만 정착 시도를 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농장 '군모들'을 운영하며 번식우를 키우는 송유중 씨는 은퇴 후 귀농귀촌을 해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와이프와 인생 2막을 시작했다.



귀농 전 거주지역	서울
귀농 전 직업	다국적기업 근무
귀농 결심동기	은퇴 후 인생 2막 도전
귀농 선택 작목 및 창업명	번식우 및 군모들 농장
귀농 연도	2009년
귀농귀촌 관련 교육 이수	농정원 마이스터대학 등 지자체 교육 다수



### 도시남자, 농장지기가 되다

도시에서 오랜 회사 생활을 하던 도시남자 송유중 씨. 오랫동안 다닌 회사를 은퇴한 후 시골 생활을 시작했다. 평생을 펜을 잡고 일한 그는 인생 2막은 어떻게 보낼 것인가 고민하던 차에 이제는 땀을 흘리는 일, 내 몸으로 가치 있는 일을 찾아서 해보자는 생각으로 귀농을 결심했다. 내조의 여왕인 그의 부인도 당연히 그를 따랐다. 농장 군모들에서 번식우를 키우는 송 씨는 처음부터 축산을 생각했던 것은 아니었다. 지인을 통해 현재 농장이 있는 전라남도 고흥에 있는 농가에서 일을 배웠다. 벼를 재



배하는 곳이었는데 사무실에서 일만 하다 보니 몸으로 하는 일에 하루만에 체력에 한계를 느끼기도 했다.

"귀농 체험을 하려는 사람 10명 중 절반 이상은 농가에서 일주일을 못 버티고 도망간다고 하더라고요. 농장 주인이 매일 출근하는 저를 보고 오늘도 나왔냐고 놀래기도 했어요. 체력적으로 힘들었지만 끝까지 버텼어요. 한번 시작한 일은 끝까지 해야 한다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흘러가는 사람 중 한 명이 되고 싶지는 않았어요."

농작물 재배를 경험해 본 송 씨는 이후에 한 곳에서 더 일을 했다. 그러면서 든 생각은 농작물 재배는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었다. 그러다 눈을 돌려보니 농장에서 키우고 있는 소들이 보였다.

‘축산이다’ 바로 무릎을 쳤다. 귀농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을 머릿속에 그리고 그렇게 축산을 결심했다. 바로 축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을 구했다. 귀농을 함께할 부인을 위해서 겨울에 춥지 않으면서도 경관이 좋은 곳, 축사를 지을 수 있는 곳을 찾았다. 그곳이 바로 전라남도 고흥이었다. 아무도 없는 곳에서 외로울 수도 있었지만 두 부부가 서로 큰 의지가 됐다. 서로에 대한 믿음으로 합심해서 귀농 초기 힘든 시간을 이겨낼 수 있었다. 그는 귀농을 하려는 사람들에게 가족과 함께 귀농하면 큰 힘이 된다고 조언한다. 또 귀농귀촌을 준비할 때 인생 계획이 명확해야 한다고 말한다.

"귀농귀촌을 준비할 때에 앞으로 인생에 대한 계획, 어떤 가치를 추구하며 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만 해요. 그냥 막연히 귀농을 하면 좌충우돌하기가 쉽죠. 도시에서 살다가 귀농을 한다는 것은 인생을 180도 바꾸는 거예요.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것인가 충분히 고민한 후 귀농을 해야 해요."

### 🍌 시작부터 맛 본 실패의 쓴 맛

축사를 짓고 처음에는 소 3마리를 샀다. 그런데 외양간에 소를 묶어 놓은 지 3일 만에 3마리 중 1마리가 쓰러져서 죽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급성 폐렴이 왔던 거였는데 축산 초보가 알 길이 없었다. 더 큰 문제는 죽은 소를 처리하는 법이었다. 이 또한 방법을 몰라 큰 포크레인을 불러 땅을 파서 묻어줬는데 나중에 주변을 통해 알아보니 이런 경우 소를 잡아 주변 지인들과 나눠먹어서 인심을 쓴다고 했다. 도시에서 살다 와서 모르는 것이 많았던 그가 처음부터 맛 본 실패는 너무 썼다. 재산의 3분의 1



“ 흘러가는 사람 중 한명이 되고 싶지는 않았어요. ”

을 날려버렸으니 말이다. 이대로는 안되겠다고 생각해 축산 관련 교육을 1년 여간 받았다. 농정원 마이스터대학과 농협 축산컨설팅 및 지자체에서 하는 교육들을 모조리 받으면서 축산에 대해 공부했다.

“축산을 배우기 위해 오프라인 교육부터 온라인 교육까지 굉장히 많은 공부를 했어요. 교육을 받으면서 저 스스로가 업그레이드 됐죠. 노하우를 터득한 것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눈도 생겼어요.”

귀농 초기 축사를 지으면서 지역주민들과 마찰도 있었다. 축사 허가를 반대하는 주민들이 있었지만 양측 의견을 듣고 조율해 준 면장 덕분에 현재 주민들과 어우러져 잘 지내고 있다.

### 🍌 축산 노하우 쌓여 올해 3천만 원 목표

2009년 5월 귀농해 소를 키우면서 노하우도 쌓였다. 번식우는 1년에 한 마리를 꼭 낳아줘야 하는데, 인간과 비슷한 임신기를 가지고 있는 소는 1년에 1산 하기가 힘들다. 송 씨는 그간에 터득한 노하우로 이제는 1년에 1산에 가깝게 됐다. 그는 특별한 노하우가 없어도 기본에 충실하면 축산에서 성공할 수 있다고 말한다.

“교육을 받으면서 현장 농장도 같이 준비했더니 큰 어려움 없이 소를 키울 수 있었어요. 기발한 노하우 없이도 기본만 잘 유지하면 충분히 가능해요. 축산이 당장 큰 돈은 안된다 하더라도 보이지 않는 가치가 있어요. 가치에 만족해하며 열심히 하다 보면 돈도 따라오는 것 같아요. 수익이 나기 시작한 지 이제 2년 차인데 지난 해에 2



천만 원, 올해에는 3천만 원이 넘어설 것 같아요.” 그는 당장 돈을 쫓기보다 최상의 농장을 유지하기 위한 준비에 최선을 다했다. 그 결과 HACCP농장, 친환경농장, 친환경녹색축산농장 등에 지정도 받았다.

“축산을 하는 사람들이야 많죠. 그 중에서도 상위 1%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제가 중점을 두는 가치인 것이죠. 농장이 지정된 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인 농장과 소의 품질을 계속 유지해 나가는 것이 힘들어요.”

### 🍌 귀농 후 삶에 여유 생겨

인생 2막을 시작하며 가치 있는 일을 찾아 귀농한 송 씨 부부는 귀농으로 자신들의 삶이 긍정적으로 변했다고 말한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성숙됨이 느껴져요. 도시 속 경쟁에서 벗어나 귀농한 삶이





굉장히 좋아요. 매일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나가는 것도 재미있죠. 마음이 풍요로워졌습니다.”

송 씨가 매일 힘차게 소를 키울 수 있도록 내조하는 부인 전지희 씨는 농장일지를 기록해주며 남편이 소를 키우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다.

“남편은 하고자하는 일은 무조건 해내고야 마는 사람이에요. 그런 남편을 믿고 의지하며 항상 따뜻한 집안 분위기를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삼시세끼 맛있는 음식으로 기운을 차릴 수 있도록 도와주죠. 귀농 후 마음에 여유로움이 생기고 삶이 편안해 졌어요. 장단점이 있지만 남편과 함께하는 귀농 생활에는 장점이 더 많아요.” 🐮



가족경영규모 \_ 2인 경영  
2,000평



평균수입 \_ 2 천만 원(첫해)  
3 천만 원이상(올해)

필요한 기술 및 시설  
측사



연간운영비 \_ 7 천만 원(1년)



평균투자비 \_ 4 억 (3년)



강충호 ——— 충청남도 금산  
변홍숙 ——— 사과, 사과아저씨 농장

## 사과나무로 행복을 심은 미스터 애플



충남 금산군 남일면은 전북 진안군 용담면, 무주군 부남면과 접하고 있는 충청도와 전라도의 경계에 있는 곳이다. 32년 간의 교편을 접고 과감히 귀농을 선택한 강충호 씨의 사과농원이 있는 곳이 바로 이곳이며 금산군 남일면 유일의 사과 과수원이기도 하다. 강충호 씨는 유독 사람에 대한 고마움과 귀농에 앞선 배움을 강조했다. 그래서인지 그의 사과는 맛도 좋지만 그 맛의 깊음 너머엔 진한 인간미와 정직함이 느껴진다. 마음이 따뜻한 농부의 귀농이야기에 귀 기울여 보자.

귀농 전 거주지역	대전
귀농 전 직업	중등교사
귀농 결심동기	장기간의 주말부부
귀농 선택 작목 및 창업명	사과, 사과아저씨(Mr. Apple) 농장
귀농 연도	2013년
귀농귀촌 관련 교육 이수	귀농대학, 생활원예대학, 농촌관광대학, 진안농업대학, 사과과정 각 1년 수료



### 외로운 곳에 삶이 있을 수 없다

충남 금산은 강충호 씨의 처가가 있는 곳이다. 강 씨의 고향은 경상도였고 지금껏 쪽 그곳에서 교편을 잡았다. 아련했던 아내와의 첫 만남을 자신도 모르게 털어 놓으면서 못내 속스러워 웃음으로 마무리 짓지만 곧 귀촌을 하게 된 씩씩했던 지난 세월의 남모를 아픔을 털어 놓았다. 아내와 어머니, 그리고 세 자녀를 대전으로 보내고 자신은 홀로 경상도 이곳저곳을 전전하며 교편을 잡아온 강 씨였다. 32년 간의 성실한 교직생활이 차곡차곡 쌓여 곧 교감으로 승진할 무렵 강 씨는 단호하게 모든 명예



를 뿌리치고 귀농을 결심했다. 오랜 주말부부 생활로 쌓인 그리움과 피로가 그의 결심에 가장 큰 이유였다. “교감하고 교장하면 뭐합니까. 정년까지는 또 홀로 계속 살 텐데. 어찌 보면 참 부질없죠.”

강 씨의 귀농결정에 가장 반대를 한 사람은 어머니였다. 조금 있으면 크나큰 명예를 얻고 편한 삶을 살 수 있을 텐데 굳이 어려운 농사일에 나선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교편을 잡고 있던 아내도 남편의 결정을 말렸다. 하지만 세 자녀들은 아버지의 결정을 적극적으로 지지해주었다. 그간 외롭게 살아온 아버지가 더 늦기 전에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살고 싶다는 소망을 알아준 것이다. 강 씨는 비로소 힘을 얻어 아내와 어머니를 설득하였고 많은 귀농준비와 귀농지 선택 끝에 아내의 고향인 금산에 터를 마련하고 본격적인 귀농을 시작했다.

### 🍌 고맙고 반가운 사람들

교직을 명퇴하며 받은 명예퇴직금, 퇴직금, 교원공제회 등을 보태어 총 5억을 들여 13,200m<sup>2</sup>의 과원을 확보하고 사과묘목을 2년에 걸쳐 1,000주를 심는 터전을 마련하였다.

2013년 9월 6일, 과수지 근처에 숙소 겸 도구창고 목적으로 쓰던 컨테이너에 큰 불이 났다. 기름을 많이 두었던 탓에 세간은 물론 사과농사에 필요한 도구들까지 전소되었다. 소방차 10여 대가 출발하여 인근 산불로 번지지 않도록 진화에 나설 정도로 큰 불이었다. 망연자실한 채 슬퍼하던 강 씨였지만 마을사람들의 도움으로 어느 정도 힘을 얻을 수 있었다. 마을이웃들이 십시일반 도구와 기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것이었다. 조금 먹먹해진 어투로 강 씨는 당시 자신의 어려움을 도왔던 이웃들에 대한 고마움을 연신 언급했다. 하지만 전소된 과수원에서 한동안 의욕 없이 정리만 하던 강 씨는 대전 집으로 돌아와 며칠간 울적한 기분을 달래야 했다. 그 때 강 씨를 다시 나설 수 있게 해준 가장 큰 힘은 아내의 위로였다. 지금껏 남편의 귀농을 반대만 하던 아내는 “옛말에 불이나면 부자된다잖아요. 더 좋은 일이 있으려나 봐요. 당신은 멋지게 잘 이겨낼 거예요.”라고 응원했고 강 씨도 아내의 응원과 마을주민들의 도움으로 다시 일어설 힘을 얻을 수 있었다.



▶ 정중은 사기를 수확하기 위해 스프링클러를 설치했다

“기왕 할 거면 끝까지 잘 해보세요! 라고 응원한 아내덕에 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 배우고 노력한 나의 사과는 달다

회복을 위해 강 씨는 더욱 노력했다. 귀농 전에 이미 귀농귀촌대학을 졸업했지만 그는 더욱 열심히 공부하고 더 많은 과수농가들을 찾아다니며 자신의 과수법과 비교하고 연구했다.

“사과는 가지를 어떻게 잘 꺾어두느냐에 따라 나무 당 생산량이 달라집니다. 가지에 사과 하나만 더 달린다고 생각해봐요. 1천 그루나 되는 나무에서 그렇게 늘어난다면 얼마나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겠습니까?”

특히 남일면 인근에 위치한 진안군 용담면에 있는 다수의 과수원과 끊임없이 정보를 교환하며 많은 것을 배웠다고 한다. 바쁠 때도 짬짬이 시간을 내어 필요한 교육을 이수하던 그는 지자체와 정부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과수농가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알게 되었다. 특히 사과농사는 기계의 도움이 많이 필요했는데 군청에서 시행하는 과수농가농기계지원사업 덕에 비용의 50%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고 한다.

개인적인 노력과 제도적 지원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역시 사람이었다. 강 씨는 마을 주민들에게 이미 받은 고마운 도움을 잊지 않았다. “그간의 내 지위와 학벌 같은 거 다 내려놓고 초보농부로 돌아가서 억지로 찾아가 인사도 잘 하고 하면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귀농인의 이런 자세도 귀농귀촌대학에서 배웠으며 역시 배움이 중요하다고 강 씨는 말했다.

많이 배운 덕에 아는 것도 많지만 용접기술로 마을에 필요한 간단한 수리까지 도맡아 온 강 씨의 활약으로 마을에선 작년 2015년 그를 마을 총무로 임명했다. “총무 안 하면 마을에서 쫓아내겠다는데 어찌겠습니까?” 너살스레 웃으며 씩스러운 자랑을 털어놓은 강 씨다.



이러한 노력으로 올해 강 씨는 본격적인 첫 사과 수확을 거두었다. 다 팔고 주변 사람들에게 고마움의 인사를 담아 전달한 후 맛 본 사과는 너무도 달고 맛이 좋았다. 맛을 본 주변 사람들도 모두 그의 사과가 달고 맛이 좋은 것에 신기해 했다고 한다.

## 숨겨진 귀농의 쓸쓸한 재미들

강 씨는 귀농을 후회하지 않는다. 물론 처음엔 어렵고 힘들었지만 덕분에 많은 것을 배우고 얻었다고 한다. 오랫동안 떨어져 지내야 했던 아내도 내년엔 함께 이곳 금산으로 내려올 예정이다. 교감이 되고 교장이 된 친구 동료들도 이젠 강 씨를 부러워한다고 한다. 1천 그루의 자식 같은 과수도 이젠 어느 정도 영글어 2017년에는 목표했던 수확을 기대할 수 있다면서 아마 큰 수익을 낼 것으로 전망한다.





강 씨는 그간의 고생과 극복의 이야기를 다 들려준 후에도 아쉬운 마음에 귀농으로 얻은 쓸쓸한 재미들을 더 이야기했다. 조그만 밭을 하나 두어 더덕, 도라지, 돼지감자, 구지뽕 같은 약초를 재배하는 재미, 얼마 전 마을에서 벌인 마을잔치의 유쾌함, 맑은 공기와 좋은 물로 하루하루 건강해지며 바쁜 시간에서 벗어난 자유와 같은 소소한 즐거움까지 모두 전해준 후에야 건강한 미소로 작별인사를 하였다.

마지막으로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꼭 부탁하는 말을 전했다. 누구라도 귀농하면 초보 농부이므로 우선 공부하고 비교하고 연구하라고. 사전에 하는 공부는 작목과 귀농지역 선택에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또, 무엇보다도 사람이 중요하며 먼저 인사하고 겸손한 자세로 임하면 신뢰받고 도움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가족경영규모** \_ 2인 경영  
전체 4,300평(과수지 3,600평, 창고 60평 등)



**평균수입** \_ 1 억 이상(3년후)  
향후 연차적으로 증가, 3년후 연간 1억 예상

**필요한 기술 및 시설**

트랙터, 소독차, 제초기,  
관주시설, 지게차



**연간운영비** \_ 3 천만 원(1년)



**평균투자비** \_ 10 억 (3년)  
토지매입, 각종 농기계 및 시설비용



이 용 희 ————— 전라남도 나주  
손 미 자 ————— 산양유, 체험농장

## 산양유 브랜드 사업에 이어 체험농장까지

성공 확률이 크지 않은 산양유 생산에 성공해 브랜드 사업까지 하고 있는 전남 나주에 이용희 씨. 귀농 후 어려움도 있었지만, 이겨내고 이제는 청밀원이라는 브랜드를 만들어 산양유를 납품하는 것뿐 아니라 최근에는 교육, 체험농장까지 영역을 확대하기 위한 도전을 하고 있다.



귀농 전 거주지역	광주
귀농 전 직업	통신업
귀농 결심동기	노후대비
귀농 선택 작목 및 창업명	산양 및 다도유 영농조합법인&청밀원
귀농 연도	2007년
귀농귀촌 관련 교육 이수	순천대학교 목장형 유가공과정



### 부부가 한 마음으로 귀농에 도전

광주광역시에서 살며 통신업을 하던 이용희 씨는 부인인 손미자 씨와 결혼 당시부터 귀농을 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었다. 워낙에 시골을 좋아했던 두 부부는 처음에는 흑염소를 키우려고 했다가 한 TV프로그램을 접하면서 유산양의 가능성을 알게 되어 산양유에 도전했다. 유산양이 틈새 축종으로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고 확신을 한 것이다. 1998년 국내에 도입된 유산양은 초기에는 산양유에 대한 인지도가 낮아 많은 농가들이 실패를 겪었다. 이 씨 부부가 시작할 당시 산양유를 만들던 여러 농가들도



대부분 실패했다. 그러나 이 씨 부부는 청밀원이라는 목장을 만들어 산양유 브랜드 사업까지 성공시켰다. 하고자 하는 바는 어떻게 해서든 이루고 마는 사람 좋은 남편 이용희 씨와 남편의 든든한 조력자 역할을 하며 유가공 전문가가 된 부인 손미자 씨가 협력했기에 가능했다. 희소가치가 충분한 산양유를 만들기 위해 초기 투자비가 6억 원에 달했던 이 씨 부부는 실패에도 포기하지 않고 긍정적인 마음을 먹고 재도전해 성공을 이뤄냈다.

“귀농은 결혼 당시부터 계획이었어요. 젊었을 때 다른 사람의 땅에서 돼지 사육도 해본 경험이 있죠. 결과는 실패였지만 그 정도로 축산이나 시골 생활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귀농 후에도 아주 잘 지내고 있죠. 시골 생활도 체질이라고 생각해요. 귀농을 하기 위해 땅을 알아보는 것부터 노력을 많이 했어요. 둘이 같이 이곳 저곳 여행을 다니면서 땅을 알아봤고, 이곳에 정착하게 됐죠. 정착을 한 후 처음에는 흑염소를 키워야겠다고 생각했었는데, 산양유가 가능성이 있다고 확신해서 유산양에 도전하게 됐어요. 그런데 유산양 관련 교육기관이 없어서 애를 많이 먹었죠. 정말 땀방에 헤딩이었어요. 그래서 직접 부딪히고 하나하나 배우며 해나갔어요. 교육이 없었기에 초기에 200마리의 유산양을 샀다가 절반이 죽어나갔어요. 경험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는데, 경험이 없던 그땐 정말 자포자기 했죠. 그러다가 잠시 쉬고 다시 도전했어요.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 씨 부부는 귀농 초기 유산양을 키워 젖을 짜서 판매하는 1차 산업을 3년간 했다가 적자를 보면서 접으려고 했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200마리를 추가적으로 구매해 다시 도전했다.

### 🍌 자동화 시스템 갖추고, 유가공 공부까지

초기 실패를 이겨내고 다시 재도전한 이 씨 부부는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 해결책을 찾았다. 낮은 산양유 가격이 생산비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해소하기 위해 고품질 산양유를 직접 생산하는 브랜드를 만들었다. 초기에 직접 손으로 산양유를 짜야했던 이 씨는 브랜드 사업을 시작하면서 자동화 시스템도 갖췄다. 또 부인 손 씨는 산양유를 가공하기 위한 공방도 열어 우유 뿐만 아니라 요구르트도 만들었다. 손 씨는 이를 위해 순천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목장형 유가공 과정을 수강하면서 발효유



“시골생활도 체질이라고 생각해요.”

에 대한 공부를 하기도 했다. 부부가 합심해서 도전하니 결과는 대성공. 심기일전한 이 씨는 유산양을 60마리에서 400마리까지 늘리고 산양유도 본격적으로 납품하기 시작했다. 주변 산양유 농가가 실패하면서 이 씨 농가가 납품할 수 있는 거래처도 늘어났다.

든든한 지원군이 되고 있는 아내 손 씨와의 노력으로 만든 우유와 요구르트가 청밀원이라는 상표를 달고 처음 납품될 때는 가슴이 뭉클할 정도로 기쁘기도 했다. 이런 노력으로 지난 해에만 3억 5천만 원, 올해는 5억 원 이상의 매출이 예상될 정도로 청밀원의 산양유는 전라남도과 경상도 지역에서 인정받고 있다.

“제품으로 만들기 위해 고생을 정말 많이 했어요. 처음에 제품으로 납품될 때는 이제서야 귀농인으로서 성공했다는 기분이 들면서 가슴이 뭉클할 정도였죠. 실패했던 경험을 통해 현재는 노하우가 많이 쌓였어요. 귀농 9년차가 되서 돌아보니 산양을 키운다고 할 때 처음부터 많이 하면 안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처음에는 50마리 정도로만 시작해도 가능하죠.”

귀농 초기에는 지역주민들과 트러블도 있었다. 목장 허가를 받을 당시 반대하는 주민들도 있었지만 부부가 지역 주민들과 잘 지내기 위해 노력한 덕분에 이제는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실제로 부인 손 씨는 부녀회장을 하기도 하고, 이 씨는 동네에 전기가 고장나면 고쳐주러 갈 정도로 지역 일에 마음을 쓰고 있다.

### 🍎 내 가족이 먹는다는 마음으로

산양유 브랜드 사업을 하면서 가장 신경쓰는 부분이 바로 내 가족이 먹는다는 마음



으로 정직하게 만드는 것이다. 산양은 매일 오전 축사 옆에서 맘껏 놀게 하며 친환경 방목 사육을 한다. 이 모든 것은 건강하게 산양을 사육해 최상급의 산양유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다. 전라도·경상도 지역 어린이집, 한마음 로컬푸드 등에 납품되는 산양유를 투철한 위생관념을 가지고 만들다 보니 납품을 원하는 곳이 점점 늘어났고, 이제는 납품 물량을 맞추기 위해 제품을 만드는 시스템까지 자동화할 계획이다.

“바로 어제도 제품 출하를 위해 온 가족이 밤샘작업을 했어요. 날마다 직접 짠 신선한 산양유를 납품하다보니 소비자 직거래 주문이 늘고 있습니다. 이제는 납품 물량을 맞추기 위해 제품 제작도 자동화시스템으로 바꾸고 HACCP 인증도 받을 계획이에요.”

나주시 귀농귀촌인 회장까지 맡은 이 씨는 귀농 시에 꼭 신경 써야 할 부분은 바로 과감한 초기 투자를 피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귀농귀촌하려는 사람들이 처음에 전 재산을 투자하기도 해요. 그런데 처음에 전 재산을 투자하면 안되고 40% 정도는 현금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귀농귀촌 후 수익이 날 때까지 빚을 내지 않고 본인의 현금으로 생활할 수 있어야 자리 잡기가 쉬워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반 작물 재배만 하려고 하는데 잡초와의 싸움에서 이겨야 농사가 되고, 지는 사람은 고난의 길을 걸어야 한다는 점을 말해주고 싶어요.



또 귀농관련 교육을 사전에 꼭 받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교육 프로그램에 잘 참여하고 이수해서 정부 용자도 활용하면 도움이 될 거예요.”

### 제2의 양떼목장을 꿈꾸다

유산양 200여 마리로 유가공 사업을 하고 인공포유도 하고 있는 이 씨는 앞으로 산양의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고 보고있다. 산양유뿐 아니라 체험과 가공까지도 도전하며 제2의 양떼목장을 꿈꾸고 있다. 또 초기에 산양 관련 교육이 없어 애를 먹었던 점을 회상하며 유산양 축산에 도전하는 귀농귀촌인들을 위한 교육프로그램도 만들 계획이다.

“산지 생태목장을 성공시키기 위해 달리고 있어요. 유산양은 아이들이나 어른들이

가까이 하기 좋은 동물이에요. 6차 산업까지 하면서 멋진 체험과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까지 할 수 있는 기관을 설립할 계획이에요. 올해 연 매출이 5억 정도까지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생태공원이 성공하면 언젠가는 더 많은 매출도 가능하겠죠.”

이용희 씨는 6차 산업까지 성공시켜 양떼목장 부럽지 않은 체험목장을 만들겠다는 꿈을 꾸고 있다. 인생의 1장 1막이 끝나고 1장 2막을 시작해서 이제는 중소기업 못지않은 농가로 만든 이 씨는 본인은 실패를 경험했지만 귀농귀촌인들이 보다 쉽게 정착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는 멘토 역할을 해주고 싶다며 미소를 내비쳤다.



가족경영규모 \_ 4인 경영 (5명)  
5인 3,500평, 축사 450평



평균수입 \_ 5억 (3년)

필요한 기술 및 시설  
자동화시스템,  
축사



연간운영비 \_ 1억 7천만 원(1년)



평균투자비 \_ 7억 (3년)



## 여성귀농인

농업도 여성전성시대!

70



전라남도 광양 박은숙

▶ 영채김치, 고추, 콩

62



전라북도 남원 최희진

▶ 원예작물(딸기, 포도) 및 딸기체험농장

78



경상북도 청송 김명순

▶ 블루베리, 오미자림



최희진 — 전라북도 남원  
원예작물(딸기, 포도) 및 딸기체험농장

## 귀농으로 찾은 나의 진짜 직장, 농업

자연 속에서 제 세상인 양 마음껏 뛰노는 딸아이와 혼자서 조용히 작물을 돌보는 걸 좋아하는 남편. 딸기 체험농장을 통해 사람들과 만나고 소통을 즐기는 아내 최희진 씨는 도시를 떠나고 나서야 진짜 직장을 찾을 수 있었다며 건강과 여유로운 삶을 즐기게 됨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말한다.



귀농 전 거주지역	서울
귀농 전 직업	조경수 재배 및 꽃 판매
귀농 결심동기	건강
귀농 선택 작목 및 창업명	원예작물(딸기, 포도) 및 딸기체험농장
귀농 연도	2011년
귀농귀촌 관련 교육 이수	없음



### 🍓 귀농의 첫걸음이 된 조경수 재배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찾아 귀농하게 되었다는 최희진 씨. 2011년 남원에 내려오기 전까지 지난 8년간 직장생활을 하며 주말마다 조경수 재배를 해왔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서울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토요일과 일요일은 휴과 나무와 함께 지내는 생활을 해 온 것이다.

“주말이면 남편과 같이 흠뻑땀을 맡으며 나무들을 돌보는 일이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었어요. 휴식을 취해야 할 주말에 육체적으로 힘든 일을 하는데도 조경 일을 할 때





만큼은 두통이 사라지고, 회사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다 날아갔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최 씨는 딱히 귀농을 해야겠다는 생각은 없었다. 도시생활이 주는 안락함과 편안함을 놓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다 결정적으로 귀농을 결심하게 된 것은 남편의 건강 때문이었다. 서울에서 설비설계 일을 했던 남편은 들쭉날쭉한 식사시간, 수면, 담배 등 불규칙한 생활에 과도한 스트레스가 더해져 늘 두통에 시달렸고, 체중은 120kg 가까이 늘어났다. 이대로 더 있다가는 곧 큰 일이 날 것 같다는 불안감이 들었다. 최 씨는 곧 결단을 내리고 남편에게 먼저 ‘시골로 내려가자’는 제안을 했다. 흙을 만지고 나무를 관리하면서 느꼈던 행복한 마음을 이어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남편의 건강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란 확신이 들었기 때문이다.

부부는 조경수 재배 경험만 가지고 아무런 귀농 준비 없이 백일 된 딸아이를 안고 무작정 남원으로 내려왔다. 처음 계획은 시골에 내려와서 조경수를 기르는 것이었다. 귀농지로 남원을 선택한 이유도 평야지대라 땅이 넓고 상대적으로 땅값이 저렴해 조경수를 재배하기 좋겠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막상 내려와 보니 조경수 가격이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었다. 조경수는 땅에 심고 나서 5년 후에 출하하는데 지금처럼 가격이 내려가면 수지타산이 맞지 않을게 뻔했다. 가격이 바닥을 칠 때가 지는 조경수를 심는 건 미뤄야했다.

### 귀농 첫 해 딸기 재배 성공 이후 3년간 실패

조경수를 심기 위해 미리 임대해 놓았던 땅을 어떻게 활용할지 고민하다가 포도와 딸기를 재배하기로 결정했다. 남원에서 정책적으로 지원했던 작물이 포도였기 때문이다. 거기에 비수기인 겨울에 수익을 낼 수 있는 딸기를 선택해 일 년 내내 수익을 낼 수 있도록 고려했다. 판로 또한 중요하게 작용했다. 딸기나 포도 같은 원예작물은 농협에서 수매를 해주기 때문에 유통에 대해 큰 고민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귀농 첫 해 1,600평에 포도 재배를 위한 하우스 시설을 갖추고, 임대한 딸기밭 400평 하우스 2동에 토지 재배를 시작했다. 모종 선택을 잘못된 포도는 수확이 반절도 채 되지 않았지만, 딸기 하우스 2동 규모에서 4,000만 원의 수익을 냈다. 모종 값 3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가 순수익이었다. 소위 말하는 대박을 친 셈이었다.

귀농한 첫 해 성공적인 딸기 재배로 자신감을 얻은 부부는 딸기 재배면적을 늘리기



“흙을 만지고 나무를 관리하다보면 자연스럽게 남편의 건강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란 확신이 들었어요.”

로 결정했다. 하지만 딸기 재배는 노동 강도가 센 작목이었다. 열매가 땅을 향해 맺기 때문에 계속 허리를 굽힌 상태에서 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최 씨는 고설재배를 염두에 두고 시설이 좋은 하우스를 샀다. 고설재배란 지상 1.5m 높이에 재배상을 설치해 딸기를 재배하는 방법이다. 토지 재배를 할 때보다 노동력이 40%정도 절감된다. 그러나 땅을 사고 포도밭 시설에 투자하느라 그동안 있던 돈을 다 쓴 상태여서 딸기 재배를 위한 고설재배 시설을 갖추는 데 3년이란 시간이 걸렸다.

그러다 보니 3년 동안은 농작물로 얻은 수익이 전무하다시피했다. 딸기는 시설을 갖추기 전까지 계속 토경재배를 했지만 토질이 좋지 않아 수확량이 좋지 않았다. 포도 또한 경험부족으로 계속 작황이 좋지 않았다.

절망에 빠져 있는 부부를 다시 일으켜 세운 건 마을 사람들의 도움이었다. 돈이 없어 시설 투자를 못하고 절절매고 있을 때 아무 조건 없이 2,000만원이라는 큰 돈을 무이자로 빌려주는 분이 있는가 하면, 큰 규모의 토지를 임대할 때도 여러 명의 이장들이 보증을 서 주기도 했다. 그러다 가지고 있던 땅이 팔리고 숨통이 트이면서 딸기 고설재배용 시설하우스 3,600평을 추가 조성했다.

### 딸기 체험 농장 운영으로 수익 다변화

최희진 씨는 올해 손익분기점을 넘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우선 포도는 그동안의 실패를 교훈삼아 꾸준히 재배 노하우를 익혀 나간 결과 작년부터 수익을 내기 시작했다. 포도 2골 연동하우스 1,600평 재배로 생과판매 2,000만 원, 포도즙 판매



▶ 지인을 통해 조금씩 딸기체험 문의, 계기로 딸기체험농장 운영

1,000만 원으로 연 3,000만 원 수입을 올린 것이다.

그동안 토질이 좋지 않아 딸기 수확이 어려웠던 만큼 고설재배 시설이 완료된 시점에 딸기 수확량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올해 3월부터 딸기체험 농장을 운영하기 시작했는데 그동안 아는 지인을 통해 조금씩 딸기체험 문의가 들어왔고, 이를 바탕으로 딸기체험농장을 운영하기로 결심한 것이다.

“딸기는 11월부터 6월까지 계속 수확이 가능하지만 매출의 60%가 1~2월에 집중되는 편입니다. 다른 달은 딸기 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1~2월에 비해 수익이 좋지 않죠. 이런 시기에 딸기 체험농장 운영을 통해 수익 다변화를 꾀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시범적으로 주말에 진행한 3월에만 1,000만 원의 수입을 올렸고, 본격적으로 체험진행을 한 4월에는 5,000만 원 가량 수익을 올릴 수 있었다.

무엇보다 체험농장은 다양한 사람들과 만나고 교류하는 것을 좋아하는 최희진 씨에게 딱 맞는 일이었다. 사실 몸이 고된 농사 일이 마냥 즐겁지만은 않았던 그녀에게 딸기체험 농장은 농부로서의 즐거움과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해준 일이다.

“지금까지 여러 일을 해왔지만 딸기 체험농장이야말로 저에게 맞춤형처럼 딱 맞는 나의 진짜 직업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체험농장 쪽에 비중을 두고 농장을 운영할 생각입니다.”





▶ 평안을 이겨내고 자리잡은 최희진씨 가족들

**귀농 행복지수 200%**

남원에 온 지 이제 5년 차이지만 남원시 주생면에서 이 부부를 모르는 사람이 별로 없다. 마을에 일손이 필요하면 무조건 달려가 무료로 일손을 거들었고, 매년 열리는 어버이날 행사, 주생면민의 날, 보름맞이 달집행사, 춘향제, 흥부제 등 각종 행사에 참여하여 봉사도 하고 마을 대표선수로 출전해 좋은 성적을 거두기도 했다. 귀농을 해서 지금까지의 생활을 돌아해보면 정말 열심히 살았던 덕분인지 최희진 씨 부부를 만날 때마다 마을 주민들은 '너희들은 잘 살거야'라며 응원을 한다고 한다.

“저는 돈을 많이 버는 귀농인이 성공한 귀농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마을에 계신 분들이 마을의 일원으로서 인정해주고 격려의 말을 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성공적인 귀농귀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전 성공한 귀농인입니다.”

남편의 건강 때문에 귀농을 선택했던 최희진 씨의 판단은 정확했다. 한때 120kg까지 나갔던 남편의 몸무게는 현재 80kg 초반 대를 유지하고 있다고. 무엇보다 가족이 모두 행복하다는 것이 가장 큰 수확이다. 자연 속에서 제 세상인 양 마음껏 뛰노는 딸아이와 혼자서 조용히 작물을 돌보는 것을 좋아하는 남편, 그리고 딸기 체험농장을 통해 사람들과 만나고 소통을 즐기는 희진 씨까지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한 시기를 보내고 있다고 한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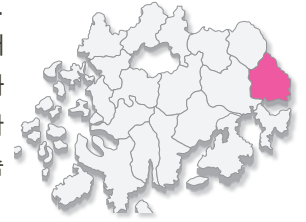




박은숙 ————— 전라남도 광양  
영채김치, 고추, 콩

## 재미로 시작한 영채김치가 3천 평 밭으로

고향에서 먹었던 영채 김치의 맛이 그리워 시작한 영채 농사. 그 농사가 커져 이제는 3천 평에서 농작물을 재배하고 있다. 재미로 시작한 농사가 가공식품까지 만들 정도로 규모가 사업화됐다. 탈북 주민들에게 고향의 맛을 느끼게 해주는 것 뿐만 아니라 북한 탈북 주민의 귀농까지 돕기 위해 애쓰고 있는 박은숙 대표는 귀농으로 자신의 삶 자체가 달라졌다고 말한다.



귀농 전 거주지역	서울
귀농 전 직업	회사
귀농 결심동기	고향에서 먹던 영채김치의 맛이 그리워
귀농 선택 작목 및 창업명	영채, 고추, 콩 및 영채농원
귀농 연도	2011년
귀농귀촌 관련 교육 이수	통일부 영농교육



### 고향의 맛이 그리워 시작한 영채김치

탈북 후 서울에서 일을 하며 살아오던 박은숙 씨는 지금의 남편을 만나 전라남도 광양에 자리를 잡았다. 그러던 중 임신을 한 박 씨는 고향에서 먹었던 영채김치가 그리웠다. 아기를 낳고 영채김치 맛이 그리워 신혼집 옆에 작은 텃밭을 빌려 영채 농사를 지어 김치를 담갔다. 박 씨는 맛있게 담근 김치를 북한이탈주민과 주변이웃들과 나눠 먹었고, 영채김치 맛을 본 사람들이 김치를 팔아보는 게 어떻겠냐고 권유해 영채 농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산갓이라고도 불리는 영채는 추운 기후에서 잘 자라기 때문에 북한과 중국 조선족들이 영채를 누렇게 띄워 김치를 즐겨 담가먹는다. 다른 사람의 땅을 빌려 심었던 영채를 키우면서 돈을 벌어 하우스 한 동을 사고, 또 하우스에서 농작물을 재배해 돈을 벌어서 한 동을 샀다. 처음부터 돈이 없었기 때문에 농작물을 재배하면서 돈을 벌어 하우스를 넓혀간 것이다. 이렇게 하우스를 넓혀나간 것이 이제는 하우스 4동, 3천 평 가까이 된다. 처음 김치를 담가 판매할 때는 무턱대고 뛰어들어 갖은 고생을 해야 했다. 띄워서 담가 먹는 영채를 열처리를 잘못해서 다 썩히기도 했다. 실패를 겪어가며 직접 몸으로 부딪쳐 노하우를 터득했고 이렇게 얻은 노하우로 봄과 가을에 영채 김치를 판매하다가 하우스를 늘려서 고추와 콩도 재배했다.

### 🍅 '여자가 무슨...' 주변 시선 이겨내며 정착 성공

처음에는 여자가 무슨 농사를 짓냐는 주변의 안좋은 시선이 있었다. 박 씨의 농사가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박 씨는 그런 시선과 체력적 한계, 농사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성공을 이뤄냈다.

“처음에는 주변 시선이 좋지 않았어요. 회사에 다니는 신랑도 반기지 않았죠. 그래도 ‘집에서 놀면 뭐하나. 내가 열심히 영채김치를 만들어서 북한이탈주민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자’라는 마음으로 시작했어요. 내 일이라고 생각하며 하다보니 지치지 않더라고요. 긍정적인 마인드로 항상 계획하고 연구하면서 시간을 보냈어요. 그럴 때가 가장 행복해요. 처음에는 북한 아줌마라고 부르던 사람들이 이제는 박 사장, 박 회장이라고 저를 부를 정도로 이제는 주변의 시선이 달라졌어요.”

즐겁게 농사를 짓는 그녀는 귀농귀촌을 준비하는 사람들도 즐거운 마음으로 귀농하면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처음에 호미 하나로 농사를 시작했어요. 재배하고 김치를 만들면 사람들이 맛있다고 하는 게 재미있어서 계속하게 됐죠. 돈을 벌어야겠다는 생각이 아닌 재미로 시작한 것이 이제는 큰 수입이 되고 있습니다. 귀농귀촌을 생각하는 분들도 즐거운 마음으로 일을 한다면 성공할 수 있을 거예요.”



“처음에는 북한 아줌마라고 부르던 사람들이 이제는 박 사장, 박 회장이라고 부를 정도로 주변의 시선이 달라졌어요.”

## 통일부 영농교육 받으며 노하우 획득

초창기에 영채김치만 담가 팔다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시작한 고추와 콩 농사는 이제 연 2억 원의 매출을 올려주는 효자상품이 됐다.

“농사를 짓는 초창기에는 영채김치 마진이 크지 않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기도 했어요.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았죠.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버텼어요. 농사 초기에는 통일부 귀농교육을 받으면서 노하우를 획득하기도 했죠.”

북한 이탈 주민들에게 손수 담근 영채김치를 판매함과 동시에 서울에 올라가 직접 영채김치를 홍보하기 위해 발로 뛰어다니기도 했다. 그런 노력으로 지금의 성공을 이뤄냈고, 그녀가 직접 번 돈으로 북한에 계신 부모님을 보필할 수 있었다.

한국에 와서 정착하기 어려웠던 그녀에게 영채김치는 정착을 도와준 고마운 선물이다. 한국에서의 대인관계와 금전적으로 힘들었던 부분을 영채김치가 모두 해결해 준 것이다.



▶ 탈북주민 중 농업을 희망하는 이들을 모아서 함께 영농을 해 그브 식단은 백은숙 씨



▶ 콩과 함께 고추농사 연 매출 2억원 효자상품

## 가공식품과 북한이탈주민 영농 터전 만들기

귀농으로 한국에서 안정적인 삶을 살게 된 박 씨는 이제 도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탈북주민 중 농업을 희망하는 이들을 모아서 함께 영농을 해보고 싶다. 북한 이탈주민 정착 마을도 만들 수 있을 것이라는 꿈을 꾸기도 한다. 또, 영채김치 뿐 아니라 고추 등을 이용한 장아찌를 만들 수 있는 가공시설도 만들 계획이다.


“고추와 콩을 여름에 대량생산해서 가공해 판매할 계획이에요. 여름과 겨울에 매출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가공식품으로 만들어 판매하면 매출도 크게 늘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영채김치 유통 사업도 생각하고 있어요. 과거에는 영채김치에 대한 욕심이 있어서 특허도 받고 유통을 하지 않았었는데 올해부터는 도전해보려고 해요.”

호미 하나로 영채를 재배해 김치를 만들어 팔며 시작한 귀농은 그녀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귀농으로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한국에 와서 어려웠던 대인관계도 좋아졌죠.



귀농농사로 영농 타진 만들기 ▶

사람을 대하는 방법도 달라졌지만 삶 자체를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급한 성격으로 화도 많았는데 이제는 자연스럽게 입가에 웃음이 묻어나는 사람이 되었어요.” 



가족경영규모 \_ 3인 경영  
3,000평



평균수입 \_ 3 억 원(3년)

필요한 기술 및 시설  
하우스  
가공시설



연간운영비 \_ 3 천만 원



평균투자비 \_ 1 억 5 천만 원




김명순 \_\_\_\_\_ 경상북도 청송  
블루베리 농장, 오마케팅

## 블루베리 농장에서 농촌체험관광 명소로

35번 국도를 따라 영천에서 청송으로 가다보면 김명순 씨의 블루베리 농장인 오마케팅 농장과 프루츠 카페가 나온다. 카페 안으로 들어서면 커다란 창을 통해 들어오는 풍경이 마치 그림 같이 아름답다. 카페에서는 블루베리를 가공해서 만든 음료와 커피 등 다양한 음료를 판매한다. 또 블루베리 생과와 냉동블루베리 외에도 블루베리로 만든 발효초나 고추장 등 각종 블루베리 가공품 구매도 가능하다. 이곳에서 멋진 풍경은 덤이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현장교육실습장(WPL : Work Place Learning)으로 지정돼 다양한 체험활동과 실습교육 등이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다.



귀농 전 거주지역	대구	
귀농 전 직업	CJ택배 수성영업소	
귀농 결심동기	블루베리가 고소득 작물이라는 정보를 듣고	
귀농 선택 작목 및 창업명	블루베리, 오마케팅	
귀농 연도	2010년 3월	
귀농귀촌 관련 교육 이수	농업최고경영자과정, 청송군 기술센터 농촌체험관광 연구회, TBC 방송국 SNS 활용 마케팅 과정, 농수산대학교 블루베리 최고경영자 과정	

### 블루베리에 제2의 인생을 걸다

청송은 그녀가 나고 자란 고향이다. 어떻게 보면 귀향인 셈이다. 농촌에서 태어났지만 풀 한번 베어보지 않고 자라 농사에는 그야말로 문외한이었다. 귀농을 하기 전에는





대구에서 남편과 11년 동안 CJ택배 영업소를 운영했다. 처음 택배 차 2대로 시작한 것이 11대로 늘어나고 상가도 구입할 정도로 사업은 번창했다. 그러다 늑등이를 갖게 되어 함께 꾸려가던 영업소를 남편 혼자서 도맡아야 했다. 그녀의 빈자리가 생각보다 컸는지 힘에 부쳤다. 그녀가 만삭이 될 무렵 영업소를 직원에게 넘겨주었다. 옆가게에 다시 문구점을 차렸지만 성에 차지 않아 문구점을 한 지 2년째가 될 무렵 또 다른 고민을 하게 되었다.

“언니가 경제적으로 힘들어 밭을 팔려고 내놓았는데 팔리지가 않는 거예요. 옆에서 지켜보기가 안타까워 대출금을 내어 언니에게 주었고 자연스럽게 그 밭을 넘겨받게 되었죠. 그 밭을 남에게 부치면 1년에 세가 30만 원이에요. 그것으론 이자도 안 되겠다 싶어 고민을 했죠. 그러다 블루베리가 고소득 작물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남편과 상의 끝에 묘목을 알아보고 그 밭에 심기로 했어요.”

그렇게 땅을 구매한 지 1년 뒤인 2010년에 블루베리 묘목 2,000주를 사서 심었다. 묘목 값과 블루베리의 거름으로 쓰이는 피트모스를 구매하는 비용으로 총 4,000만 원이 들었으며 관정을 만드는 데 다시 1,000만 원이 들었다. 관수시설은 군에서 지원을 해주었다. 블루베리를 심고 처음 1년 동안은 대구 집을 오가며 농사를 지었다. 그러다 딸이 초등학교를 마치자 이듬해 2011년에 온 가족이 귀농을 했다.

처음 귀농을 하겠다고 했을 때는 주변의 만류도 많았다. 초등학교 6학년이던 딸이 제법 공부를 잘 했기 때문이다. 남편 또한 유치원생인 아들과 초등학생이었던 딸의 교육 때문에 귀농을 반대했었지만 가족이 함께 살아야 한다는 생각에 결국 온 가족의 귀농을 결심했다. 청송으로 이사를 온 후 딸은 청송인재양성원에 입학시켰다. 그렇게 청송에서의 귀촌생활이 시작되었다.

## 공부만이 살 길이다

농업도 사업이라 관련 지식이 필요했다. 우선 배워야 한다는 생각에 처음 2년 동안은 농업 관련 교육이란 교육은 다 쫓아다녔다.

“체험지도사, 블루베리 최고경영자 과정, 농법정책과정, SNS마케팅 과정, 가공창업 과정, 그 외에도 농기계 다루는 법까지 배우러 다녔어요. 배우고 알아야 할 수 있으니까요. 서울 농수산대학에서 블루베리 최고경영자 과정을 할 때는 아침 6시 30분에



“농업 관련 교육이란 교육을 다 쫓아 다녔어요. 배우고 알아야 할 수 있으니까요.”

집에서 나서 기차를 타고 서울로 가서 수업을 듣고 다시 청송에 도착하면 새벽 1시예요. 그렇게 1주일에 한 번씩 꼬박 1년을 다녔어요. 블루베리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블루베리에 대해서는 최고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 시간들이 바로 성공의 거름이 된 것이다. 지식을 채우는 것 못지 않게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바로 친환경적 농법이다. 그녀는 화학비료 대신 액비와 거름을 직접 만들어서 쓴다. 액비와 거름으로 키운 블루베리는 알이 훨씬 굵고 당도도 높다. 처음엔 몰랐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자신이 만든 액비가 바로 천연 비대제 역할을 했다고 했다. 덕분에 블루베리 나무도 쑥쑥 자라고 열매도 많이 열렸다. 직접 만든 액비는 주변 농가에서도 인기가 좋아 판매도 하고 있다고 한다.

그렇게 수확한 블루베리는 거의 다 직거래로 판매를 하지만, 올해는 워낙 작황이 좋아 경매에도 부쳐볼 생각이 있다고 했다. 신뢰와 진실성, 그것이 바로 그녀의 판매 전략이다.

### 실패 없이는 성공도 없다

물론 많은 시행착오도 겪었다. 가장 힘이 들었던 것은 처음 3년 동안 아무런 수익이 없었다는 것이다. 처음 묘목을 구매할 때 청송의 추운 기후에 맞는 묘목을 구한다고 구했지만 일부 묘목은 기후가 맞지 않았는지 결실을 볼 수 없었다. 700그루의 블루베리를 다 뽑아내고 다시 심어야 했다. 1년이 지났을 무렵인 2011년 상반기에는 농장에 도둑이 들어 이듬해 수확을 앞둔 블루베리 나무를 모조리 베어가 버렸다. 그때



상실감이란 이루 말로 다할 수가 없다. 그저 눈물만 쏟아낼 뿐이었다. 하지만 열심히 삼목을 해서 묘목을 키운 덕분에 묘목을 내다 팔아 고비를 넘길 수 있었다. 또 잡초 방지와 수분 증발을 막기 위해 블루베리 밭에 까는 우드칩에서 발견되는 굼벥이가 돈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굼벥이는 인터넷을 통해 마리당 500원을 받고 팔았다. 그렇게 판 굼벥이로 500만 원씩 수익을 올리기도 했다.

“처음엔 굼벥이가 나올 때마다 놀라곤 했죠. 하지만 나중에는 이 굼벥이가 돈이 된다는 생각에 굼벥이를 찾을 때마다 다들 웃으며 즐거워했어요.”

2013년에는 CEO 발전기반구축지원사업을 통해 지원금 9,000만 원(자부담 4,000만 원)을 보조받고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는 현장실습교육장으로 지정을 받았다. 저온창고, 급냉창고, 농산물 판매장, 가공실, 교육장을 짓는 등 농장의 규모도 제법 커졌다. 또 귀농인과 예비농고·농대생들의 현장실습 교육장으로 활용되면서 농장에는 더욱 활력이 넘쳤다. 많은 사람들이 농장을 찾으며 농촌체험관광의 명소가 떠올랐다.

### 함께 즐거운 농촌 만들고 싶어

물론 모든 사람이 귀농에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대구에서 이곳으로 과수원을 하겠다고 밭을 사고 집을 지어 들어온 이웃이 2년 만에 포기를 하고 다시 대구로 돌아간





## 6 차산업 귀농창업

가치를 키우다



96



강원도 철원 이광수

▶ 밭농업, 울타리강남콩, 고추, 농가면화

88



▶ 구인양념간장

전라북도 완주 김민

104



경기도 평택 최창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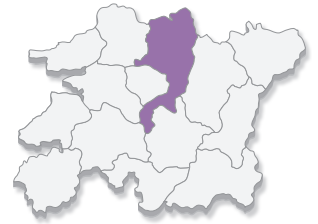
▶ 특용작물, 대명농장



김민 — 전라북도 완주  
두부제조, 구암쌀두부영농조합법인

## 현미로 두부의 맛과 건강을 잡다

불과 귀농 5년 차만에 차별화된 쌀두부 기술로 지역시장을 잠식해 가고 있는 이가 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전북 완주군 봉동읍에 위치한 구암쌀두부영농조합법인 김민 대표다. 2011년 귀농한 그는 기존의 두부시장과는 차별화된 제품을 만들고자 현미를 두부에 넣었다. 현미를 넣으니 콩의 비릿함을 덜어주고 맛도 고소해 찾는 소비자들이 차츰 늘어나게 됐고, 매출도 증가했다. 친환경농산물로 당일 생산 당일 판매의 원칙을 지키니 믿고 찾는 소비자가 늘어나는 것은 당연한 결과였다.



귀농 전 거주지역	전주
귀농 전 직업	농자재판매 자영업
귀농 결심동기	부모님 건강 악화
귀농 선택 작목 및 창업명	구암쌀두부
귀농 연도	2011년
귀농귀촌 관련 교육 이수	강소농



### 준비 없는 귀농, 그리고 실패

완주군 봉동읍 구암리는 김민 대표의 고향으로 명절이나 집안 행사가 있을 때면 일 년에도 몇 번씩 찾아가던 곳이다. 그런 이곳에 본격적으로 정착하게 된 것은 2011년이다. 대학을 졸업한 이후 공무원으로 개인사업가로 도시에서 살아온 그가 고향으로 '귀농'해야겠다고 마음먹은 것은 어머니의 갑작스런 건강 악화 때문이었다. 여러 형제 중 장남인 그가 어머니를 보살피기 위해 시골과 전주를 오가는 횟수가 늘면서 본



업에 점점 소홀해졌고, 당연히 사업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었다.

그는 '아예 이참에 농촌에서 농사를 짓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에 아내와 귀농을 상의했다. 하지만 아내는 아이들의 교육문제 때문에 선뜻 허락하지 못하고 몇 날 며칠을 고민했다. 그러나 김 대표의 끈질긴 설득으로 가족은 그와 함께 부모님의 고향으로 내려왔다.

처음 귀농했을 땐 농사에 대해 크게 걱정하지 않았다. 어렸을 때 부모님과 함께 농사를 지은 경험도 있었고, 고향 마을이니 정착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 생각했다. 귀농 첫째 3만 3057㎡의 넓은 땅에 고추, 고구마, 대파 등을 심었고, 나름 스스로 만족할 만한 수확을 얻을 수 있었다. 하지만 그가 생각지 못한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었다.

농사만 잘 지으면 될 거란 그의 생각은 너무 안일했다. 무엇보다 판로를 개척하는 게 어려웠다. 보통 수확한 농산물은 공판장에서 경매로 넘기는데 시세가 들쭉날쭉한 데다, 수익을 낼 수 있는 시기도 짧았다. 농사를 잘 짓고도 적자가 나는 기막힌 일들이 계속됐다. 마을사람들은 그에게 '도시 가서 편하게 살지. 뭇 하러 이 고생을 하나'며 면박을 주기 일쑤였다.

“정말 어려웠을 때는 쌀독에 쌀이 떨어진 적이 있었어요. 그때는 정말 가슴이 아파서 혼자 옥상에 올라가서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희망을 잃어가던 김 대표의 귀농 인생이 달라진 건 로컬푸드를 만나면서부터다.

### 기능성 쌀 두부로 새로운 희망을 찾다

김 대표가 농산물 판로에 대해 고민하고 있을 때쯤 완주군에 로컬푸드 직매장이 생겼다. 일에 지쳐 있던 그는 로컬푸드 교육을 받으면서 로컬푸드 직매장에 판매되는 상품이 대부분 농산물이라는 것에 주목했다. 해당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로 가공식품을 만들면 농산물처럼 시기에 구애받지 않고 일 년 내내 팔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들었다.

가공품을 만들기로 결심하고 처음 개발을 시도한 건 '고구마 묵'이었다. 하지만 곧 인지도가 떨어진다는 생각에 두부를 만들기로 결심했다. 기존의 두부로는 차별성이



생소한 원미쌀두부 제품을 만들고 있어 보이는 김민 씨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로 가공식품을 만들면 농산물처럼 시기에 구애받지 않고 일 년 내내 팔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들었습니다.”

없다고 판단한 김민 대표는 남들과 다른 기능성 두부를 개발하기로 마음먹었다. 이를 위해 자료조사를 하던 중 쌀가루와 콩가루를 섞는 배합기술을 전수 받게 되었고, 쌀 종류 중에서도 웰빙 식품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현미를 선택했다.

이론을 알고 있다고 해서 쉽게 제품이 개발되지는 않았다. 콩과 현미 가루의 적절한 배합비율을 찾는 것이 관건이었다. 6개월 넘게 연구에 매진했다. 밤새워 가며 노력을 거듭한 결과 국산콩 80%, 국산 친환경현미 20%, 천일염 천연 응고제 등을 혼합해 맛이 좋은 두부를 생산했고 특허를 취득했다.

제품 개발을 완료한 김민 대표는 2013년 3월 완주군에서 지원하는 귀농귀촌 창업자금 1,000만 원과 영농조합법인 출자금, 개인 사비를 보태서 '구암쌀두부' 공장을 설립하고 제품을 생산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생산된 현미두부는 인근 로컬푸드 직매장에 첫선을 보였다.

### 🍃 당일 생산 당일 판매 원칙

'구암쌀두부'는 출시 한 달 만에 완주군 효자동 로컬푸드 직매장에 납품되는 6개 두부 중에서 매출 2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시중에 판매하는 420g의 구암쌀두부는 3,300원을 받는다. 실제 대기업에서 내놓는 두부가 350g에 3,500원인 것에 비해 가격 경쟁력이 좋은 편이다.

하지만 여전히 쌀두부에 대한 인지도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김 대표는 로컬푸드 직매장 납품에만 의존하지 않고, 등산로 입구, 아파트 단지, 지역축제 등 장소를 가리



▶ 매대에 오른 현미쌀두부 제품

지않고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면 시식행사를 했다. 기존 두부와 맛과 품질 면에서 확연한 차이를 보이는 현미 두부는 점차 사람들의 입소문을 탔고, 한번 맛 본 사람들은 '기존 두부보다 확실히 고소하고 맛있다'며 재구매하면서 고정고객층도 생겨나기 시작했다.

이처럼 고정고객이 확대되면서 완주 로컬푸드직매장을 비롯해 전주 모악, 효자, 하가지구 직매장에도 납품을 시작했다. 특히 군 내 두부업체 8곳 중 유일하게 완주군 공공급식센터를 통해 학교에도 납품하고 있다. 이는 각급 학교 영양사들로부터 맛과 성분, 신선도를 인정받았기 때문이다. 2015년에는 홈페이지를 오픈해 전국 소비자들을 상대로 택배 배송을 시작했다.

김 대표는 "현미는 밥으로 섭취할 경우 소화흡수율이 20%에 불과하지만 '현미 쌀두부'로 섭취 시 100% 소화 흡수할 수 있다"며 "현미와 콩은 공장에 있는 맷돌을 이용해 잘게 갈아서 사용한다. 현미두부는 당일 생산 당일 유통을 원칙으로 항상 신선하고 맛있는 두부를 소비자들에게 전달하고 있다"고 말했다.

### 🍃 기술 공유를 통한 시장 확대 방안 모색

김민 대표는 전북지역 농가들이 원한다면 그 지역 농산물을 이용해 두부 및 콩물을 제조한다는 조건 하에 기술을 전수할 의향을 가지고 있다.



▶ 두부 제조공정



▶ 현미쌀 두부 제조


두부는 대표적인 중소기업 적합 제품으로 대기업 진출이 제한되어 있는 제품이다. 소비자 선호도 편차가 굉장히 심해 각 마을 친환경 재료로 만든 신선함을 활용해 고정 고객을 확보한다면 마을별로 성공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각 지역을 거점으로 하는 '현미쌀두부'의 시장점유율이 확보될 경우 브랜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다양한 두부 상품 개발에도 멈춤이 없다. 현재 공장에서 현미 쌀두부와 흑두부를 생산하고 있지만 부산물인 비지를 활용한 두부 도넛과 두유 등의 가공품 생산에도 도전할 생각이다. 김 대표는 "앞으로 공공급식 분야를 공략하면서 일정부분 매출액이 오르면 두부 만들기와 두부 관련 다양한 음식 만들기 체험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김 대표를 걱정스럽게 바라보던 주민들의 시선도 달라졌다. 구암쌀두부에 들어가는 재료는 전량 마을에서 생산된 콩과 현미를 이용하기 때문에 마을 농가 소득에도 기여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마을 일에도 적극적으로 나서다 보니 이제는

마을에 없어서는 안 될 일원으로서 자리매김해가고 있다.

김민 대표는 앞으로도 꾸준한 상품 개발과 더불어 완주 봉동에서 영양 가득한 두부를 만들며 살아갈 것이다.

'시작이 반이다'라는 옛 속담처럼 노력한 만큼 결실을 맺길 기대해 본다. 



**가족경영규모** \_ 2인 경영  
 땅 4,200㎡ 제조시설 96㎡  
 저온창고 10㎡



**평균수입** \_ 1억 8천만 원

**필요한 기술 및 시설**

두부 제조 시설  
저온창고



**연간운영비** \_ 1억 5천만원



**평균투자비** \_ 1억 8천만 원  
 땅값 4,000만원, 시설 1억 4,000만원(3년)





이 광수 — 강원도 철원  
밤호박, 울타리강낭콩, 고추, 농가먹쇠

온라인 세상에서 도시인들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다

귀농 전 전기공사업을 하던 이광수 씨. 그는 20대 때부터 50되면 귀농을 하겠다는 꿈을 꿔다. 50살이 되던 해 아내를 설득해 강원도 철원으로 귀농했다. 귀농 초기에는 농사를 짓는 법을 몰라 속도 많이 싹였지만 이제는 건강한 먹거리를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것으로 철원에서 단연 으뜸이 됐다. 1차 산업인 농수산업과 2차 산업인 제조업, 그리고 3차 산업인 서비스업이 복합된 6차 산업에 도전하고 있는 그는 건강한 농작물을 온라인으로 판매하고, 지역 내에 유통센터까지 설립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귀농 전 거주지역	서울
귀농 전 직업	전기공사업
귀농 결심동기	젊은 시절부터 노후 계획
귀농 선택 작목 및 창업명	밤호박, 울타리강낭콩, 고추, 농가먹쇠
귀농 연도	2007년
귀농귀촌 관련 교육 이수	농업 기술센터 교육



🍷 꿈꾸어 왔던 귀농의 실천과 걸림들

50살이 되면 귀농하겠다고 생각하며 살던 젊은 시절, 가족들에게도 일찍부터 그런 계획을 알려왔지만 승승장구하던 때 정말 귀농을 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 사업이 한창 잘 되던 50살에 귀농을 한다고 하니 그의 주변 지인들과 가족들은 모두 반대했다. 그러나 그는 젊은 시절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기로 하고 아내를 설득했다. 지금의 농가 한쪽에 유통육조를 만들고 아내를 설득했다. 환상적인 꿈을 꾸



며 귀농을 했지만 농작물을 수확하기까지 어려움이 많았다. 지금은 온라인에서 ‘농가먹쇠’라는 이름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고, 철원에서든 이름이 알려졌지만 현재 궤도에 오르기까지 10년 가까운 시간 동안 끊임없이 연구하고 노력했다. 먼저, 철원이라는 지역을 선택한 이유부터가 맛있는 농작물을 수확하고자 하는 뜻이 담겼다. 청정지역인데다가, 온도 경계선에 자리해 농작물의 맛이 뛰어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또 이곳이 초·중·고 학창시절을 보낸 곳이라는 것도 영향을 끼쳤다.

작목을 선택하는 데에는 자신의 성향이 많이 반영됐다. 자유로운 것을 좋아하고 귀농해서 엽매이는 삶을 살고 싶지 않았던 그는 손을 많이 타지 않고 며칠 자리를 비워도 건강하게 자라는 밤호박과 고추, 울타리 강낭콩을 선택했다. 엽매이지 않아도 된다는 점은 좋지만 철원 내 해당 작물을 키우는 곳이 많지 않아 농작물을 키우는 노하우를 배우는 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다. 본업에 점점 소홀해졌고, 당연히 사업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었다.

### 🍃 화학비료 no! 건강한 먹거리로 차별화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몰랐던 것을 배우기 위해 농업기술센터를 무작정 찾아갔다. 센터에 있는 교육은 모조리 다 받으면서 재배 기술을 배우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건강한 몸도 만들었다. 이제야 진정한 농부가 될 준비가 된 것이다. 처음에는 고추와 콩만 재배를 시작했고, 자리를 잡고 재배 기술을 더 배워가면서 작물을 더 늘리기로 결심해 2년 전부터는 밤호박도 재배하고 있다. 고추와 콩은 나름 재배하기 수월했지만 밤호박은 달랐다. 농사기술에 대한 교육이 부족해 고생도 많이 했다. 어렵게 키운 밤호박을 첫 수확할 때쯤에는 창 밖에 잘 자라고 있는 밤호박의 모습을 보면 자식보다도 더 예쁘다는 생각까지 들 정도였다.

그는 농작물을 재배하는데 정직함을 가장 우선으로 한다. 화학비료를 치지 않고 깨끗한 농작물을 수확해야 한다는 게 언제나 우선이다. 비료를 치지 않다보니 수확량이 턱없이 적긴 하지만 그래도 자신만의 신념으로 농작물을 재배하다보니 이제는 그런 그의 농작물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늘어 단골까지 생겼다.



“어렵게 키운 밤호박을 첫 수확할 때 쯤에는 자식보다 더 예쁘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 나만의 차별화 전략, 건강한 먹거리를 도시민에게 온라인 판매

수많은 교육을 받고, 농작물을 재배하면서 노하우도 쌓았다. 그래서 그는 농작물과 잡초를 같이 키우는 풀 재배를 하고 있다. 자연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었던 그는 풀과 함께 농작물을 키울 때 병충해가 약한 풀들을 주로 공격하고 고추 등이 가운데서 더 잘 자라는 것을 눈으로 직접 보고 느끼며 풀 재배를 하고 있다. 무수하게 많은 풀들을 살짜만 늪혀 준 후 곡식들이 더 튼튼히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줬다. 화학비료 없이 자연 속에서 키운 고추는 전국에서도 최고 비싼 가격에 거래된다.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신뢰를 얻은 그의 작물들은 최근에는 없어서 못 사 먹는 귀한 농산물이다.

“다른 농사하시는 분들이 300평에서 2천만 원의 수확을 올릴 수 있다면 우리는 그의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치는 매출을 올려도 만족해요. 비료를 치지 않으면 수확량이 떨어져도 건강한 농작물만을 자신있게 판매하기 때문이에요. 돈이 된다고 해서 무조건 규모를 늘리면 실패하기 좋아요. 정직하고 건강한 먹거리. 남들에게 당당하고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농작물만을 판매하는 것을 농업경쟁력, 차별화 전략으로 삼고 있어요”

지금은 온라인에서 유명해졌지만 처음부터 없어서 못 파는 농작물들은 아니었다. 전국 농산물 행사장을 찾아다니면서 발로 뛰었다.

“직접 눈으로 보고 살피기 위해 전국 농산물 행사장을 두루두루 안다닌 곳이 없을 정도입니다. 먹어보고 만족한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저절로 홍보가 되고 있는 거죠.”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홍보와 판매에서 독보적일 수 있었던 이유는 직접 발로 뛰는 홍보와 믿을 수 있는 품질이 받쳐준 데 따른 결과물이다.

그는 정착 후 문제점들을 극복해 나가는데 중요한 것은 열린 마인드와 교육이라고 강조한다.

“귀농 전에 꼭 미리 교육을 받아야 해요. 귀농하러 철원에 왔을 때 모르고 내려온 것에 대한 후회로 자포자기할 뻔했지만 센터에서 교육을 받으면서 극복했죠. 또 귀농해서 내려온 후 마음을 비우고 현지 친구들을 사귀어야 해요. 이론적으로만 안다고 사람들 앞에 나가서 아는 척 하지 말고 열린 마인드로 현지 사람들과 잘 지내는 것이 중요해요”

## 1억 매출과 원활한 유통을 위한 판매센터 건립이 앞으로의 목표입니다

귀농 전 사업을 하면서 수십억 원의 매출을 올렸던 그는 농업에서 매출을 올리는 것은 도시에서 매출을 올리는 것보다 몇 배의 힘이 든다고 말한다. 그는 수익 목표 외에도 앞으로 건강한 농산물을 더 많이 알리고 판매하기 위해 직판장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세우고 있다. 처음에는 가공센터를 만들어 6차 산업으로 더 확대하려는 계획을 세웠지만 가공센터보다 주변 농사짓는 사람들을 모아 유통매장을 먼저 만들겠





▶ 귀농(귀촌)원인 0 귀농(귀촌)원인 10 귀농(귀촌)원인 20 귀농(귀촌)원인 30 귀농(귀촌)원인 40 귀농(귀촌)원인 50 귀농(귀촌)원인 60 귀농(귀촌)원인 70 귀농(귀촌)원인 80 귀농(귀촌)원인 90 귀농(귀촌)원인 100

다는 계획이다.

“도시에서 30억 원의 매출을 올리는 것과 농업에서 3억 원의 매출을 올리는 것이 같은 수준이라고 생각해요. 농업에서 1억 원의 매출을 올리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어요. 그리고 농산물에 대한 판로확보가 또 하나의 과제입니다. 소비자와 연결시켜 줄 판매센터를 통해 건강한 먹거리를 더 많이 알리고 싶어요.”



가족경영규모 \_ 2인 경영  
토지 16,500m<sup>2</sup>



평균수입 \_ 3천만 원

필요한 기술 및 시설

트랙터,  
하우스



연간운영비 \_ 7백만 원



평균투자비 \_ 1억 3천만 원  
평균 1억 원, 시설 3,000만원(3년)



최창학 ————— 경기도 평택  
특용작물, 다물농장

‘제2의 신혼’ 만끽하는 귀농부부,  
정년은 없고 ‘건강’은 퇴직금

스테비아, 아로니아, 마카, 구즈베리... 이름도 생소한 특용작물과 양봉으로 연간 1억 원에 달하는 소득을 올리고 있는 ‘다물농장’ 대표 최창학(57)·이윤경(51) 씨 부부는 귀농 3년차다. 건강에 좋은 특용작물을 구입하기 위해 농장을 직접 찾는 사람들이 크게 늘면서 자연히 농장체험 프로그램으로 발전했고 최 씨 부부의 귀농은 결국 농수산업, 제조 및 가공, 서비스업을 두루 갖춘 6차 산업의 형태를 갖추게 됐다.



귀농 전 거주지역	평택
귀농 전 직업	교사
귀농 결심동기	아내 이윤경 씨의 건강악화
귀농 선택 작목 및 창업명	특용작물, 다물농장
귀농 연도	2013년
귀농귀촌 관련 교육 이수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원, 경북생물자원연구소 등의 귀농교육 및 작목별 전문가 찾아가 직접 교육 받음



🍷 청천벽력 같은 ‘암 선고’ ... ‘건강’을 위해 귀농을 꿈꾸다

20년 가까이 각각 국어와 수학교사로 지내던 최창학·이윤경 씨 부부의 귀농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지난 2005년, 40대 초반이었던 부인 이 씨가 유방암 3기 말에 생존율 50%가 안 된다는 청천벽력과 같은 진단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암 진단을 받았다고 바로 공기 좋은 시골로 이사를 갈 상황도 아니었다. 당시 중·고등학교



생이었던 자녀의 학교문제도 있었지만 병원 가까운 곳에서 치료를 받는 게 급선무였다.

가족력도 전무했고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적다는 모유수유도 했으며 술, 담배와는 거리가 멀었던 그녀로서는 도무지 왜 자신이 암에 걸려야 했는지 억울하기만 했다. 머리털은 물론, 손톱과 발톱이 빠지고 물도 삼킬 수 없을 만큼 독한 항암치료를 견디며 그녀는 나머지 인생은 건강을 위해 살아야겠다는 결심을 했고 남편 최 씨도 같은 생각으로 병간호를 하였다.

암 진단 후 8년 8개월 8일이라는 긴 시간 끝에 완치 판정을 받은 이 씨는 곧바로 귀농을 실천에 옮겼다. 이미 자녀들도 대학생이 된 후 독립을 한 터라 걸릴 게 없었다.

“저희의 귀농은 사실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몸에 좋은 걸 재배해 먹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아내가 암 진단을 받은 후 몸에 좋은 작물들에 대해 공부하기 시작했지요. 시내에 있던 집 옥상에서 이웃들 몰래 양봉도 하고, 주말농장도 하며 8년이라는 시간 동안 귀농을 준비한 셈입니다. 특히 각각의 특용작물 전문가들을 직접 전국으로 찾아다니며 재배하는 방법을 습득했고 농업기술센터, 각 지방 농업기술원 등에서 주최하는 귀농교육 등을 꾸준히 찾아다녔습니다. 평생 전혀 접해보지 않은 분야에 도전하는 것이니 만큼 귀농인들에게 완벽한 자료수집과 공부는 필수입니다.”

최 씨와 이 씨 두 사람 모두 평택시 출신으로 이들은 귀농 장소로 평생 삶의 터전이었던 평택을 떠나지 않고 대신 ‘시’에서 ‘리’로 자리를 옮겼다. 2013년 가을, 최 씨 부부의 새로운 삶이 ‘노와리’에서 시작됐다.

### 한 작물로 올인한 금물, 귀농 첫 해는 효자작물 찾기에 주력

최 씨 부부는 교직생활로 받은 퇴직금 2억여 원과 기존에 있었던 2억여 원의 땅을 담보로 지원받은 1억 9천만 원 등 총 6억여 원으로 노와리에 정착했다. 우선 그들이 선택한 작물은 스테비아, 아로니아, 마카, 구즈베리, 삼채 등 30여 종 이상이다. 수익성이 아닌 몸에 좋은 작물을 찾다보니 자꾸만 그 숫자가 늘어났고 지금 돌이켜보니 한 작물에 올인하지 않았던 게 다행이었다는 생각이다.

앞을 하나 떼어서 먹어보면 마치 설탕처럼 달콤한 맛이 나서 이른바 ‘설탕초’라 불리는 스테비아에는 설탕의 당분보다 200~300배 높은 ‘스테비오사이드’라는 성



“평생 전혀 접해 보지 않은 분야에 도전하는 것이니 만큼 귀농인들에게 완벽한 자료수집과 공부는 필수입니다.”

분이 들어 있다. 때문에 당뇨환자들에게 인기가 좋으며 주로 잎을 잘라 잘 말린 다음 가루를 내어 병에 담아두고 커피에 넣어도 좋고, 일반 설탕이 들어가는 요리의 재료로 이용하면 좋다. 중세시대 왕족들이 즐겨 먹었다고 해서 킹스베리 혹은 초크베리로 불리는 아로니아 역시 이들에게 효자 상품이다. 아로니아는 항산화 작용을 하는 안토시아닌이 가장 많이 함유된 과일로 무려 포도의 80배, 블루베리의 7배에 달한다. 지난해에는 첫 수확이라 많이 못했지만 올해는 수익에 크게 일조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다.

귀농 첫해인 2013년 2,000만 원의 수익을 올렸다. 큰 금액은 아니었지만 가을에 정착했고, 본인들과 궁합이 맞는 작물을 찾는 시기였다는 점에서 만족스러운 성과였다.

“귀농 전부터 집에서 조금씩 해오던 양봉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던 게 수익에 도움이 된 게 사실이지만 귀농 첫해는 스테비아, 아로니아, 히카마 등이 효자노릇을 할 작물이라는 걸 알 수 있는 시간들이었습니다.”

현재 최 씨 부부는 4천 5백여 평의 대지에 사람을 쓰지 않은 채 오직 부부 둘의 힘으로 농장을 일구고 있다. 그렇게 해서 지난 2015년에는 7천만 원의 수익을 올렸으며 올해는 1억 원 이상의 수익을 기대하고 있다.

### ▶ 속아서 구입한 불량종자로 수확 포기하기도

“물론 계획했던 대로 모든 일이 잘 풀리기만 한 건 아닙니다. 생각만큼 자라지 않은 작물들도 있었고 상인에게 속아 잘못된 종자를 구입, 밤낮으로 정성을 쏟았지만 수



확을 포기한 작물도 있었지요. 농부들이 배추 값이 폭락하면 갈아엎는 심정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 씨 부부는 수익성만을 생각하고 귀농한 케이스가 아니라 ‘건강’과 ‘여유’가 귀농의 궁극적 목표였기 때문에 곧바로 마음을 추슬렀다. 그런 일을 겪을수록 더 많이 공부했고 더 많은 작물들을 시도했다.

오죽하면 동네 사람들이 “저 부부는 농사지으러 내려와서 만날 무슨 공부만 해대는 지 모르겠다”며 수군거리기도 했다. 그도 그럴 것이 평생 벼농사만 지어왔던 주민들로서는 난생 처음 보는 작물들로 도대체 무슨 수익이 있는지 의아하기만 했던 것. 그러나 건조 및 가공시설을 갖추고 농장으로 특용작물들을 구입하려는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지자 주민들도 최 씨 부부를 인정하기 시작했고 지금은 특용작물을 같이 재배하며 한 가족처럼 지내는 사이가 됐다.

다들농장의 특용작물 판매는 100% 직거래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 중 30% 정도는 지역행사 및 축제, 수요장터, 로컬푸드 등의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며 나머지 70%는 카페, 블로그, 카카오톡 등 SNS를 통해서 고객들에게 공급된다. 조만간 부부 두 사람만의 인력으로는 재배, 가공 및 포장까지 모두 소화하기엔 벅찰 것 같아 고민 중인 고민 중에 있다.

“농사일이라는 게 손이 많이 가는 일입니다. 도시처럼 8시간만 일하면 하루 일이 끝나는 게 아니죠. 노동력만을 놓고 본다면 도시 생활보다 수익성이 낮지만 정년이 없고, 퇴직금으로는 ‘건강’을 챙길 수 있고 정신적인 만족감을 염두에 둔다면, 최고의 직업이라 생각합니다.”



이런저런을 키우는 심정으로

**귀농이 '천국' 이나 '무덤' 이냐는 철저한 준비와 공부에 좌우**

최씨 부부는 귀농 성공비결에 대해 '욕심을 부리지 않았다'는 점을 꼽았다. 귀농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대박'을 쫓아서는 안 된다는 것. 이는 실패 확률을 높이는 위험한 발상으로 '땅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말을 믿고 천천히 최선을 다하는 성실함과 진중함이 필요하다.

"귀농은 체계적인 준비와 관련 분야에 대해 완벽에 가까운 공부가 바탕이 된다면 '천국'이 될 수 있지만 그저 '남들도 성공하니 나도 해보자'라는 마인드로는 귀농은 곧 '무덤'이 되고 말 것입니다. 농작물을 내 자식처럼 생각하는 마음가짐 또한 필요합니다. 매일매일 내 손길을 기다리는 작물들을 보면 젊었을 때 어린 자식들을 키웠던 심정이 되고 출고를 앞뒀을 땐 다 자란 자식 독립시키는 마음이 들지요. 그래서

저희 부부는 항상 제2의 신혼을 만끽하는 중입니다.  
아들 이름을 딴 '다물농장'에서 '제2의 신혼', '제2의 인생'의 시간을 보내며 행복하다는 최창학·이윤경 부부의 웃음소리가 싱그럽다. 🐝



**가족경영규모** \_ 2인 경영  
양봉 1.652㎡ / 스테비아 9.917㎡  
아로니아 3.305㎡



**평균수입** \_ 1억 원 전후

**필요한 기술 및 시설**

재배 및 접목 기술, 비닐하우스, 건조 및 냉동 등 가공시설 등



**연간운영비** \_ 1천 2~3백만 원



**평균투자비** \_ 6억 원(3년)





## 수출+ICT농업

새로운 판로 개척을 위한 움직임

# 122



전라남도 진도 **박세천**

▶ 미니딸기, 허브농업

# 114



전라북도 정읍 **박창훈**

▶ 농업회사법인 민들레주식회사

# 130



경상남도 함안 **백승완**

▶ 피프리카



박 창 훈 — 전라북도 정읍  
농업회사법인 민들레주식회사

국내 최대의  
표고버섯 재배단지를 꿈꾼다!

농업회사법인 민들레주식회사를 설립한 지 만 2년. 월 평균 30톤 가량의 표고버섯 생산능력을 갖추고, 일본에 수출하는 가 하면, 아내와 둘이서 일하던 것이 현재 10여 명의 직원이 일하는 곳으로 바뀌었다. 손익분기점을 넘으려면 아직 멀었지만, 계속해서 과감한 시설 투자에 두려움이 없는 박창훈 대표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내 최대의 표고버섯 재배단지를 꿈꾸며 오늘 하루도 열심히 달리고 있다.



귀농 전 거주지역	익산
귀농 전 직업	
귀농 결심동기	창업
귀농 선택 작목 및 창업명	농업회사법인 민들레주식회사
귀농 연도	2013년
귀농귀촌 관련 교육 이수	특성화 버섯재배기술교육, 귀농핵심리더교육



생계 수단으로 선택한 귀농

버섯 재배의 장점은 기타 작물에 비해 자금 회전이 빠르고, 노지나 하우스가 아닌 재배사에서 여름에는 시원하게 겨울에는 따뜻하게 작업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초기의 투자비용이 만만치 않고 버섯작목별, 재배방법에 따라 전문지식과 기술, 경험 등의 노하우가 다른 어떤 작물보다 더 요구된다.

박창훈 대표가 귀농을 결심하며 선택한 작목이 바로 표고버섯이다. 2006년에 탈북



한 박 대표는 호주에서 생활하다가 지난 2013년 한국에 입국했다. 40대라는 적잖은 나이에 아무런 연고가 없는 낯선 땅에서 막막했던 그는 호주에서 알게 된 지인의 집에 얹혀 살면서 무엇을 하며 살아갈지 고민했다. 그저 막연히 농사를 짓는 것 이외에는 방법이 없겠다 생각했다. 그리하여 농업기술센터에서 6개월간 논농사, 밭농사 일을 체험하며, 농작물 재배기술을 배웠지만 노동 강도가 높은 농사일은 맞지 않는 곳이었다.

주변에서 농작물을 보관하는 창고 임대업을 하라는 말에, 그동안 호주에서 모았던 돈과 일본에 계신 어머니와 지인에게 돈을 빌려 정읍시 용동면에 1,500평 정도의 창고 부지를 샀다. 그러나 곧 자신이 산 땅이 별 쓸모없는 땅이라는 것을 안 것은 얼마 되지 않았다. 도로에서 창고 부지까지 길은 차 한 대가 겨우 지나갈 정도로 폭이 좁았고, 주변에 논밭은커녕 집 한 채 보이지 않는 곳이었다. 한 마디로 창고로서 접근성이 너무 떨어지는 땅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다른 대안은 없었다. 어떻게든 그 땅을 활용할 방법을 찾아야 했다. 그러다 우연히 인터넷에서 고소득 특작물로 소개된 표고버섯을 접했다. 재배 방법도 벼농사나 밭농사보다는 육체적 노동 강도가 낮을 것 같았다. 곧바로 버섯재배기술 교육 과정을 받고, 표고버섯으로 소문난 부농을 찾아다니며 표고버섯에 대해 연구하기 시작했다.

### 자동화와 대량 생산으로 생산 단가를 낮추다

비교적 고소득 작물이라고 소문난 버섯이지만 쉽게 손 댈 수 있는 작목은 아니다. 균류의 특성상 온습도, CO<sub>2</sub> 농도, 조도 등 환경 인자를 정확히 맞춰 줘야만 한다. 다행히 표고버섯은 다른 버섯에 비해 종균생산 및 재배방법이 발달해 거의 90% 가까이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작목이다. 보통 표고버섯 재배는 원목을 이용하는 것과 톱밥 배지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나뉜다. 톱밥 배지를 사용해 표고버섯을 재배하면 원목 방식보다 초기 투자비는 많이 들어가지만, 생산원가가 획기적으로 낮아지고 단위 면적당 수확량이 크게 증대된다. 즉,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하면 적은 인력으로 대량생산이 가능해진다.

2014년 10월에 100평 규모의 표고버섯 재배사를 완공했다. 박창훈 대표는 처음부



“ 배지의 품질이 곧 표고버섯의 품질입니다. ”

터 시설투자에 과감했다. 온도와 습도를 자동으로 잡아주는 현대적인 공조관리시설 시스템을 갖춘 것. 자동화시스템 구축만 하면 사업화도 가능할 것이란 판단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격적으로 표고버섯을 수확한 지 3개월째 됐을 때 박 대표는 위기감을 느꼈다. 판매단가를 맞추기 어려웠던 것. 1kg당 최소 1만 2,000원을 판매가로 맞추고 생산량과 생산 운영비를 맞췄는데, 실제로는 만 원을 받기가 쉽지 않았다. 이 상황에서는 대량생산을 통해 단가를 낮추는 방법 밖에 없다고 판단한 박 대표는 이듬해 2월 200평 표고버섯 재배사를 신축하고 같은 해 11월 200평을 추가 신축했다. 즉 표고버섯 재배사 면적만 총 500평 정도가 된 것. 실제 생산면적은 균상 재배 10단 5,000평 규모다. 국내에서 최대 규모의 표고버섯 재배시설을 갖춘 것이다. 하루 생산량만 1톤, 판매가를 6,000원에 맞췄다. 시중에 유통되는 표고버섯 판매가 보다 40%나 저렴한 가격이다. 그러다 보니 주요 마트는 물론, 대형 프렌차이즈 식당, 공판장, 홈쇼핑 전문 유통업체 등 따로 영업을 하지 않아도 여기저기서 납품해달라는 요청이 쇄도했다. 당일 생산된 물량은 당일 전부 판매하고 있다.

### 좋은 배지가 좋은 버섯을 만든다

박 대표는 요즘 표고버섯 재배 외에 또 다른 관심사가 생겼다. 그것은 바로 배지 생산. 우리나라에 배지기술이 들어온 지 채 20년이 안됐다. 재배기술은 우리나라보다 중국이나 대만이 훨씬 발달되어 있어 초창기에는 중국이나 대만에서 배지를 수입해



사용했다. 현재는 국내에서도 생산되고 있지만 여전히 중국에서 수입 배지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불량률이 많고, 물류비가 끼어 있어 가격이 비싸다는 단점이 있다. 표고버섯 농사 운영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배지 구입비다. 원가 절감을 고민하던 박 대표는 직접 배지 생산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중국시장 환경에 좌지우지 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표고버섯을 생산하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배지의 품질이 곧 표고버섯 생산 품질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박 대표는 올해 초 현재 약 700평 규모의 연간 240만 개의 배지를 생산할 수 있는 배지배양시설을 갖췄다. 박 대표가 생산하는 배지는 1개당 2.3~2.5kg 정도. 이를 가지고 750~840g 정도의 표고버섯을 생산할 수 있어 대만방식(배지 1.5kg, 300g 정도)보다 단위 면적당 생산량이 4배 가량 많다. 배지 가격은 1개당 1,300~1,500원 선으로, 100% 국산 배지임에도 중국에서 수입하는 것보다 저렴하다. 올해 5월부터 본격적으로 배지 생산에 들어간 박 대표는 현재 배지 예약 주문만 벌써 20만 개를 받아 놓고 있어 배지 판매만으로 월 평균 3억 수익을 예상하고 있다.

### 100억대 매출 기업을 목표로 지속 성장할 터

농업회사법인 민들레주식회사를 설립한 지 만 2년. 월 평균 30톤 가량의 표고버섯



생산 능력을 갖추고, 일본에 수출하는가 하면, 아내와 둘이서 일하던 것이 현재 10여 명의 직원이 일하는 곳으로 바뀌었다. 물론 손익분기점이 넘으려면 아직 한참 멀었다. 그럼에도 박 대표는 수익이 생기는 대로 계속 생산 시설을 늘려나가고 있다.

앞으로 이곳을 대규모 표고버섯 종합테마단지를 만드는 것이 그의 목표이기 때문이다. 언제까지 규모를 확장할 것인지 물어보자 '최소한 100억대 매출을 이룰 때까지는 해야지 않겠냐'며 웃는다. 박 대표가 지금까지 들인 노력만큼 앞으로도 질 좋고 값 싼 표고버섯 개발을 위해 노력을 한다면 머지않아 표고버섯이 전북 정읍의 대표 특작물이 되는 날이 오지 않을까 기대해 본다.



가족경영규모 \_ 2인 경영  
땅 9,917m<sup>2</sup>



평균수입 \_ 3 억원

필요한 기술 및 시설  
냉난방기, 관수설비



연간운영비 \_ 10 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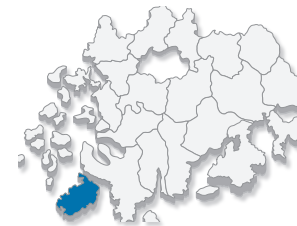
평균투자비 \_ 25 억원



박 세 천 — 전라남도 진도  
미니밤호박, 하늘농원

## 고소득 작물 미니밤호박으로 귀농 성공하기

고소득 틈새작물에 속하는 미니밤호박. 이 미니밤호박을 수출길에 오르게 해 농가의 소득증대와 대한민국 농산물을 일본과 홍콩에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한 박세천 씨. 박 씨는 미니밤호박의 수확량 확대와 지역 농가 수익 증대를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작년까지 미니밤호박을 일본과 홍콩에 수출하기도 했던 박 씨는 전남에서 미니밤호박 전도사 역할을 하고 있다.



귀농 전 거주지역	광주
귀농 전 직업	일반 개인사업자
귀농 결심동기	건강상 문제로 귀농 결심
귀농 선택 작목 및 창업명	단호박 및 하늘농원
귀농 연도	2010년
귀농귀촌 관련 교육 이수	농정원 마이스터대학 등 다수, 농업기술센터 농업대학



### 도시에서 망가진 건강, 귀농으로 되찾아

젊은 시절 광주 대학가에서 사업을 했던 박 씨는 쉬는 날 없었다. 수입은 좋았지만 쉼이 없는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강이 망가졌다. 바로 스트레스성 당뇨가 온 것이다. 건강이 망가지면서 일을 그만둬야겠다고 생각했다. 도시에 살던 가족들은 아버지의 건강을 염려해 다행히도 귀농을 반대하지는 않았다.

전남 진도는 그의 고향이었다. 그렇기에 귀농 지역으로 큰 고민없이 진도를 택했



다. 고향이긴 했지만 그래도 귀농 후 지역 주민들과 어울리는 것은 쉽지 않았다. 그래도 그는 노력했다. 마을 속에 깊숙이 들어가서 주위 사람들과 어울리기 위해 노력했고, 가장 먼저 이장님과 친해진 후 9개월만에 직접 이장을 하기도 했다. 미니밤호박은 고소득 틈새작물로 꼽힌다. 1월 하순에 파종해 한 달 간의 육묘기간을 거쳐 2월 하순에 정식하고 5월 하순~6월 상순에 수확하는 특화작목으로 가격이 일반 단호박 보다는 비싸지만 그 맛이 월등히 뛰어나 소비자들의 인기가 높다.

전남에서 미니밤호박을 재배하고 있는 박 씨는 처음부터 미니밤호박을 농사짓기 위해 귀농을 한 것은 아니었다. 초기에는 전복을 키울 생각이었다. 그러나 직접 바닷가에서 어업을 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해, 단호박 재배로 눈을 돌렸다. 단호박 재배를 하면서 수출도 하고 자리를 잡아갔지만, 하면 할수록 단호박은 어려운 점이 있었다. 귀농한 사람들이 갖추기 어려운 단호박을 보관할 장소, 대규모 창고를 마련해야 했다. 창고를 쉽게 구하기가 어렵다는 점 때문에 고민하다가 보관 장소가 많이 필요 없고, 단가도 높은 미니밤호박 재배에 도전했다.

“귀농한 사람들은 아무래도 창고를 구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고민하다가 미니밤호박으로 바꾸게 됐어요. 밤호박은 젊은 분들, 아이들이 굉장히 잘 먹어요. 제품의 우수함을 잘 알기 때문에 직거래로 재배 물량 전부가 소진되고 있어요. 오히려 물량이 부족해서 재배량을 더 늘려야 할 지경이에요.”

열심히 재배에 집중하다보니 수출 기회도 왔다. 함평에 있는 호박 유통회사를 통해 호박을 일본과 홍콩에 수출했는데, 2013년도에 1,100톤을 수출해 11억 정도의 매출을 올리기도 했다. 당시 작목회장을 하고 있던 그는 지역 미니밤호박 농가와 힘을 합쳐 수출을 성공시켰다.

미니밤호박을 3년여 간 수출한 박 씨는 이제는 미니밤호박 수확량이 직거래를 하기에 양이 부족해 수출은 하지 못하고 있다.

### 자연재해 피해 없도록 하우스 재배 추천

그는 귀농 초기부터 만반의 준비를 하지 않고 1, 2년간 교육을 받으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많은 지식을 얻었다. 교육을 통해 얻은 정보로 미니밤호박을 재배했고, 처음에는 잎 하나에서 딸 수 있는 열매가 제한적인데도 열매가 많이 달리면 달리는



미니밤호박 크기 측정하는 박 씨 전 대표

“귀농해서 창고를 구하기 어려워 미니밤호박을 재배하게 되었습니다.”

대로 놔두고 열매를 따주지도 못했다. 줄기도 뽑으면 잘라줘야 하지만 더 많은 열매가 열릴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에 줄기도 잘라내지 못했다.

“처음에는 열매가 많이 열리면 기대감에 그냥 놔두곤 했는데 이제는 과감히 자르고 따내고 해요. 호박을 보고 얼마나 자랄 수 있는지 알게 된 것이죠. 호박은 처음 1년이 어렵긴 한데 이후에도 계속 원칙을 지키면서 하면 성공할 수 있어요.”

현재 100평짜리 하우스 20여 평에서 미니밤호박과 감자를 재배하고 있는 그는 귀농귀촌인들이 노지보다는 하우스로 재배를 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한다.

“귀농하는 사람들에게 가능한 하우스를 해야 한다고 말하고 싶어요. 100평짜리 하우스가 노지 700평 정도의 역할을 해요. 땅을 많이 사려고 하지 말고 하우스 내에서 하는 게 좋아요. 저는 올해 하우스를 1,200평을 추가로 확대할 계획이에요. 미니 밤호박 수확량을 늘려 더 많은 소비자들을 만날 생각이죠.”

### 농사 짓는 노하우 쌓여 3기작 도전

처음에는 미니밤호박으로 1기작만 했던 그는 현재는 3기작까지 재배할 수 있는 노하우스를 터득했다. 땅을 놀리지 않고 계속 수확해 수익 증대에 크게 도움이 되는 방법을 찾아낸 것이다.

2월~7월까지 미니밤호박, 2기작으로 같은 자리에 호박을 8월~10월까지 재배하고, 10월 말에 감자를 심기 시작해 3월에 수확하는 3기작까지 마무리한다. 또 그는



▶ 하우스 미니밤호박을 정성껏 기르는 박세원 대표

미니밤호박을 재배하는데 있어서도 원칙을 중시한다. 많이 해봤다고 경험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원칙대로 하기 때문에 품질도 항상 최상을 유지한다.

“미니밤호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육묘를 만드는 것인데 쉽게 하기 위해서 물을 한 번에 많이 주는 사람들도 있지만 전 그렇게 안해요. 귀찮아도 매일 아침 육묘가 목이 마를 정도까지만 물을 줘요. 아침, 저녁으로 항상 자식처럼 관리하는 거죠. 품질관리에도 항상 신경을 써요. 제품을 택배로 보내기 위해 하루에 몇 십 박스씩 작업을 해두는데, 택배 보내기 직전에도 항상 한 번씩 더 검수를 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제일 좋은 제품을 보내기 위해서 검사를 하는 거죠. 가장 좋은 제품을 믿고 먹을 수 있도록 농작물을 재배하고 판매하다 보니 건강한 먹거리를 찾는 고객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의 농작물은 인터넷에서 소문이 나면서 항상 없어서 못 파는 인기 농작물이 됐다. 수많은 애로사항을 겪다보니 그는 작물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고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야 농작물 재배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되기 때문이다.

### 귀농인 마음 놓고 농사 지을 수 있는 환경 만들고파

그는 귀농귀촌인이 마음 놓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싶다. 농사 지은 물건으로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싶다는 말이다.







“현재 미니밤호박을 잘 만들기 위한 모임체가 있는데 그곳에서 연구회를 만들었어요. 귀농해서 미니밤호박을 작물로 선택한 사람들이 고생하지 않고 재배에 성공할 수 있도록 돕고 싶거든요. 앞으로는 진도 내에서 호박을 팔지 못하면 대신 팔아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마음 놓고 농사 지을 수 있는 환경이 될 것 같아요. 귀농인들이 모여 작목별로 고객정보를 공유하면 어떨까 싶어요. 서로 고객에게 건강하고 당당한 먹거리를 소개시켜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장소와 환경을 만드는 것이 계획이에요.”

박 씨는 귀농귀촌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놨다고 말한다. 어려움이 많았던 귀농 초기를 거치면서 더욱 단련됐고, 여유없이 지내던 과거와는 달리 마음에 여유도 생겼다. 그는 귀농 초기 도움이 없어 힘들었던 자신을 생각하며 앞으로 귀농귀촌인들이 고생 없이 정착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농기계 지원사업을 만들고, 선도농가로서 멘토 역할도 톡톡히 하고 있다. 진도에서 미니밤호박연구회 회장까지 하며 미니밤호박에 푹 빠진 박 씨는 지금도 더 좋은 미니 밤호박을 더 많은 소비자들에게 맛보여줄 수 있도록 연구·노력하고 있다. 🌱



**가족경영규모** \_ 2인 경영  
노지 6,500평  
하우스 2,000평



**평균수입** \_ 3 억원

**필요한 기술 및 시설**

하우스, 트랙터,  
자동분무기



**연간운영비** \_ 2 천만 원



**평균투자비** \_ 2 억 원(3년)



백 승 완 \_\_\_\_\_ 경상남도 함안  
파프리카

농민은 절대  
작물을 포기하지 않는다!

파프리카는 온도에 굉장히 민감한 작물이다. 한 겨울에도 20℃를 맞춰 주어야 제대로 마디에 열매가 달리고 실하게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수분공급과 일조량 또한 반드시 뒷받침이 되어야 하는 조건이어서 파프리카처럼 재배하기 까다로운 작물도 드물 것이라고 백승완 대표는 말한다. 총 경작지 2000평에서 평당 60kg의 수확을 목표로 오늘도 파프리카 경작에 여념이 없는 대표가 전하는 솔직하고 담백한 파프리카와 함께 하는 귀농이야기를 귀담아 들어본다.



귀농 전 거주지역	경남 창원
귀농 전 직업	회사원
귀농 결심동기	새로운 미래계획
귀농 선택 작목 및 창업명	파프리카
귀농 연도	2012년
귀농귀촌 관련 교육 이수	경남과학기술대 최고경영자과정, 농업기술센터 농업인대학



**정년이 없는 귀농, 정년이 없는 노력**

경남 함안에서 4년째 파프리카를 경작하고 있는 백승완 대표는 귀농하기 전 평범한 회사원이었다. 유명 녹즙기 회사에서 근무를 하던 중 함께 교회를 다니던 지인으로 부터 종종 듣게 된 파프리카에 대한 이야기는 백 대표의 마음에 귀농에 대한 마음을 슬그머니 놓고 갔다. 그 무렵 백 대표의 회사생활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지만, 평생직



장의 개념이 희박해지는 요즘의 사회분위기와 은퇴할 시기가 되어서야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것은 너무 늦을 것이란 부담감이 백 대표로 하여금 귀농을 결심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초기 시설투자비가 부담스러운 파프리카 경작에 대한 걱정이 한창일 때 마침 적합한 온실이 싸게 나왔다는 소식은 백 대표에게 하늘이 주신 기회 같았다.

분지인 함안은 겨울이면 영하 18도까지 온도가 내려가기 일쑤라 온실은 사업의 필수시설이었기에 괜찮은 온실을 인수받을 수만 있다면 사업을 수월하게 시작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2012년 6월 백 대표의 파프리카 사업은 그렇게 시작됐다.

### 새로운 시작 뒤에 숨어있던 고난들

백 대표의 파프리카 농사는 시작은 좋았다. 2012년 여름 첫 파프리카 농사를 시작하면서 7월에 파종해 이듬해 6월까지 수확하는데 작황이 좋아 파프리카가 온실 가득 주렁주렁 달렸다. 그러나 그해 경남 쪽을 지나간 태풍 중 세 번째 태풍 '삼바'는 하우스 3동의 비닐을 다 벗겨 버리고 지나갔다. 파프리카 줄기가 천장에 매단 줄을 따라 올라가도록 집게로 줄의 중간지점을 고정시켰는데 태풍이 몰아치면서 줄 중간에 집어둔 집게가 파프리카 열매와 잎을 다 훑어버렸다. 파프리카의 성장을 돕는 집게가 뜻하지 않게 작물을 발가벗겨버린 것이다. 백 대표와 부인인 박미애 씨는 그저 머릿속이 하얘지며 좌절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백 대표에게 농장을 팔았던 전 농장주가 일꾼까지 대동하고 자신의 농장 복구에 앞서 백 대표를 찾아와 농장복구를 도와주었다. 기적같은 도움에도 불구하고 집게가 훑어버린 파프리카는 줄기 맨 끝에 달랑 두 세장 앞만 남겨 부부의 절망은 깊어갔다. 그때 파프리카 경작에 컨설팅을 해 준 사람이 줄기는 손대지 말고 그대로 두면 살 놔는 살고 죽을 놔는 죽는다고 조언했다. 백 대표는 들은 대로 한 달 정도 줄기를 그대로 두었더니 정말로 피해를 입지 않은 줄기들 만큼이나 다친 줄기들이 자라났다. 부부는 식물의 대단한 자생력에 감탄할 수밖에 없었다.

태풍으로 인한 피해를 수습하는 통에 작황은 좋지 않았지만 집중 출하 시기를 벗어난 시점에 수확하여 적은 양이지만 오히려 비싼 값에 팔 수 있어서 조금은 피해를 만회할 수 있었다.

그러나 시련은 그렇게 지나가지만은 않았다. 태풍으로 인한 위기를 극복한지 얼마



파프리카 수확중인 백승원씨 ▶

“ 많이 배우고 준비해야만  
실패하지 않는 귀농이 가능합니다. ”

지나지 않아 하우스에 불이 난 것이다. 전선이 땅 속에 묻혀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하우스 안 곳곳에 물을 뿌려가며 작업을 했던 것이다. 결국 어느 순간 물 때문에 전선이 합선되어 비닐하우스 뒤쪽 바람막이 커튼에 불이 붙어 화재가 발생한 것이다. 그렇게 파란만장했던 귀농 1년 차가 지나갔다.

### 안주할 수 있는 성공은 없다

2013년 귀농 2년차를 맞은 부부는 굳은 다짐을 하고 본격적으로 필요한 공부를 찾아 나섰다. 백 대표는 진주에 있는 경남과학기술대의 최고경영자과정교육을 1년간 이수했고 아내 박미애 씨도 함안에 있는 농업기술센터의 농업인대학에서 역시 1년간 이수를 받았다. 그밖에도 수시로 파프리카 재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가들 강연을 찾아다니고 상담도 받았다. 이러한 교육들 덕에 영농후계자에 선정되어 지원금까지 받게 되었다. 백 대표 부부의 이러한 노력 덕에 파프리카 농장은 점차 자리를 잡아갔고 첫해 평당 40kg이 채 되지 않던 수확량이 귀농 2년 차, 3년 차에 들어서면서 평당 50kg에 육박하게 되었다. 그리고 올해 2016년에는 평당 60kg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계산상으로는 60kg가 될 것 같은데, 날씨 변동이 있을지 모르니 장담은 못하죠.” 목표를 60kg로 잡는다면 백 대표 부부는 씩스러운 웃음을 보이며 확답을 주진 못했다. 생산량은 꾸준히 늘지만 파프리카 공급시장이 어느 정도 포화상태에 이르러 단가는 떨어지는 추세다. 그뿐만이 아니다. 농장이 자리한 경남 함안은 분지 지형으



▶ 파프리카 품질 체크

로 겨울에는 영하 18도까지 내려가는 지역인데 파프리카는 늘 영상 20도 수준의 온도를 유지해줘야 한다. 하우스 옆에 600kw짜리 전봇대를 세워야 했던 것도 난방과 급수시설 때문이었다. 게다가 함안의 물은 여타 지역과 달리 소금기가 있어 농수에 적합한 용도는 아니다. 토질과 환경이 좋은 다른 지역에서 파프리카가 평당 70~80kg 정도 수확되는 것에 비해 함안이 생산량이 떨어지는 이유는 이러한 불리한 조건 탓도 있다. 하지만 백 대표 부부는 환경 탓을 하지 않았다. 꾸준히 받아온 전문기관의 교육을 바탕으로, 또 인덕으로 얻은 주변 농가의 조언과 도움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어려움을 버텨나갔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농가의 내실을 다지는 것이었다. 작년에도 하우스의 침수방비를 위한 공사와 급수장비 개선을 위해 1억 3천만 원이라는 거금을 들여야 했다. 예전 직장생활을 할 때는 감히 입에 담기조차 부담스럽던 금액을 이젠 자연스럽게 지출한다는 백 대표의 대답에는 본인 자신도 이해하기 어렵다는 씩스러움에 웃음이 섞여 있었다.

### 귀농의 소중한하고 달콤한 선물

귀농 첫해의 위기 이후에도 올해까지 농장에 들이는 부부의 정성에는 변함이 없다. 백 대표는 다수의 귀농인들이 갖기 쉬운 장밋빛 환상에 대한 경계를 강조했다. 결코





▶ 귀농 성공요령 극대화하는 파프리카

쉽게 성공할 수 없는 것이 농사이며 많이 배우고 준비해야만 실패하지 않는 귀농이 가능하다고 말한다. 백 대표는 성공적인 귀농을 위해선 제대로 된 작목 선정, 경비 절감을 위한 시설투자로 장기적인 농가의 역량을 길러야 하며 농가 간 정보교류와 전문기관의 다양한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백 대표도 매년 금값보다 더 비싸다는 파프리카 종자 값에 난방비, 인건비까지 1억~2억 가까운 금액을 써야하면서도 농장의 내실을 다지기 위한 거액의 시설투자도 마다하지 않았다.

이토록 힘든 귀농생활이지만 백 대표는 농사가 주는 위안을 화려한 미사여구 없이 담백하게 일러주었다.

“농민들은 포기를 안 해요. 농작물을 자식으로 생각해요. 다 죽어가는 작물들 살려 내고 한 포기라도 더 가져가거든요. 그러면 농작물도 포기 안 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을 발휘해줍니다. 그런 매력이 있습니다. 그런 신비함에 매력을 느끼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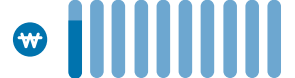
이젠 어려움을 벗어난 백 대표의 농장은 안정적인 궤도에 올라섰고 올해에만 7천 만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었다. 수확물의 90% 이상을 일본에 수출하는 백 대표의 파프리카, 까다로운 일본의 수출기준에도 부족하지 않은 품질을 만들어 낼 수 있었던 백 대표 부부의 성공은 단지 보여지는 성공스토리만으로 남지 않고, 그의 귀농경험이 다른 귀농 희망자들에게 진실로 도움이 되는 교훈이 되길 바란다고 백 대표는 희망한다. 🌱



가족경영규모 \_ 2인 경영  
농지 6,612㎡  
비닐하우스 6,612㎡ 연동하우스 1동



초기자금 \_ 3 억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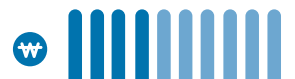


평균수입 \_ 7 천만 원

필요한 기술 및 시설  
비닐하우스,  
난방시스템, 급수장비, 기타시설



연간운영비 \_ 1~2 억 원



평균투자비 \_ 4 억 원(3년)



## 마을협력사업

웃음꽃 흐드러지는 마을

# 148



충청북도 보은 김수향

▶ 대동, 서리매

# 140



▶ 블랙베리를 이용한 교육 체험농장

전라북도 고창 김기숙

# 156



강원도 홍천 이용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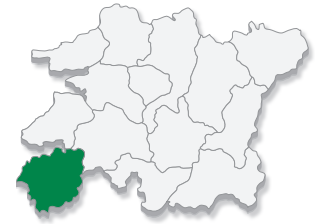
▶ 양니귀 체험농장, 수도작, 밭작물(옥수수, 고구마, 감자 등)



김기숙 — 전라북도 고창  
블랙베리를 이용한 교육 체험농장, 그린투어리즘(Green Tourism)

농촌이라는 큰 도화지에  
그림을 그린다

도시와 농촌이 농산물만 사고파는 곳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이 정으로 함께 어우러지는 도화지 마을을 꿈꾸는 이들이 있다. 농촌을 참 놀기 좋은 문화놀이터로 만들고 싶다는 이들. 도시생활을 접고 고창으로 귀농해 농사에 문화를 접목하고 있는 김기숙·최종인 귀농 공동체 가족이 그리는 농업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귀농 전 거주지역	서울
귀농 전 직업	조경수 재배 및 꽃 판매
귀농 결심동기	건강
귀농 선택 작목 및 창업명	원예작물(딸기, 포도) 및 딸기체험농장
귀농 연도	2011년
귀농귀촌 관련 교육 이수	없음



 지인 가족과 함께 귀농을 꿈꾸다

고창군 고창읍 내동마을은 고창읍내에서 10여 분 거리에 위치해 있다. 32가구가 사는 작은 마을이지만 고창읍내로 출퇴근하는 50대 젊은 부부도 많이 살고 있다. 나지막한 산과 들로 둘러싸여 있는 이곳은 주로 벼농사를 짓는 전형적인 시골마을의 풍경을 갖추고 있다. 마을이 생긴 이래로 한 번도 외지 사람이 들어온 적이 없었다는 내동마을에 2011년 김기숙 대표와 친구 부부가 함께 귀농해 고창에 터를 잡았다.

이들은 귀농을 하기 위해 6년 전부터 준비해왔다. 처음에는 다섯 가족이 함께 머리



를 맞대며 고민하다가 결국 두 가족이 함께 내려왔다. 김기숙 대표는 대학에서 미술을 가르쳤고, 함께 내려온 고향 친구 최종인 대표는 인문학과 철학을 전공한 공무원이었다.

이들이 생각한 귀농의 목적은 농사 짓는 땅의 일부를 만남과 소통, 문화의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디자인해 농업의 가치를 재발견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적당한 귀농지를 찾아 전국을 안 돌아다녀본 데가 없었다. 다른 친구네가 귀농한 충북 단양부터 경북 봉화, 그리고 진안과 남원까지 이곳저곳을 다녔고, 마침내 고창읍 내동마을에서 원하는 모습의 공간을 발견했다.

“마을 내에는 3,000여 평의 편백나무 숲이 있고 자연습지 및 자생란, 산나물이 풍부하게 자라고 있어 다양한 농촌체험 및 활동을 할 수 있는 자연적 조건이 갖춰져 있었어요. 거기다가 고창의 유명한 마실길 중 일부가 마을 산책길과 연결되어 있었고, 마을 수호신으로 역할을 하는 300년 된 당산소나무, 마을 문중 재실 등 스토리텔링하기가 좋았어요.”

내동마을로 귀농하기로 결정한 김기숙 대표는 마을 이장님 소개로 마을 문중 재실과 문중 소유의 땅 9,000평을 무상 임대받았고, 본격적으로 자신들이 꿈꾸는 귀농생활을 위한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

### 마을에 씨알농원의 밑그림을 그린다

그들에게 내동마을은 하나의 커다란 도화지처럼 보였다고 한다.

“내동마을에 오기 전 인터넷에서 마을의 위성지도를 다운받아 그 위에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그 안에 산책로며 쉼터를 어떻게 만들지, 어느 곳에 어떤 체험을 하고, 어떤 모양으로 꽃을 심을지 고민하고 계획했어요. 그 과정이 정말 즐거웠어요.”

이들이 내동마을에 내려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은 우선 각자 거주할 집과 전통고가(傳統古家) 체험을 할 재실(齋室·무덤이나 사당 옆에 제사를 지내기 위해 지은 집)을 재정비하는 것이었다. 옛 정취를 그대로 살려 전통미를 느낄 수 있는 이곳에서는 오디액기스 만들기, 다도체험, 부채 만들기, 한지 그림 그리기 등 다양한 문화체험이 이뤄진다. 또한 마을 곳곳에 방치된 쓰레기를 치우거나, 농장 주변 오솔길을 정비하고, 국화꽃을 심는 등 마을정비 작업을 진행해 나갔다.



“산책로와 쉼터를 어떻게 만들지, 어떤 체험을 하고, 어떤 모양으로 꽃을 심을지 고민하고 계획하는 과정이 정말 즐거웠어요.”



귀농 이듬해인 2012년에는 논을 밭으로 만들어 노지 고추 2,200평, 오디 1,000평, 매실 400평을 지어 수확물 일체를 직거래로 판매했다. 또 800평의 밭에 복분자를 심고 블루베리를 심기 위해 1,000평의 밭을 만들고, 100평의 비닐하우스도 손수 지었다.

뿐만 아니라 김 대표는 마을 주민들과의 화합에도 신경을 썼다. 작은 이벤트와 동네잔치를 열어 귀농 초기 마을주민과의 서먹함을 없애고, 마을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며, 주민과의 공감대도 형성했다. 덕분에 마을 주민과의 화합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다.

### 농업에 감성을 입히다

김 대표는 바쁜 농사일에도 틈틈이 농장 속에 서정적 공간을 만들어냈다.

쉼터와 숲길을 만들고 농장 주변에 꽃을 심고 가꾸고 꾸미며 마치 그림을 그리듯 농장을 수채화처럼 그려가고 있었다. 도화지 쉼터로 이름 지은 오디농장의 200여 평 소나무 숲 속은 운치 있는 방부목데크 공간으로 만들고, 그 주변을 돌과 나무, 블럭 그리고 꽃으로 단장해 놓은 작은 노천극장에도 잔디를 심어 정감 있게 배치해 두었다.

이들의 노력으로 농장은 물론 마을 곳곳이 감탄사를 연발하게 할 정도로 아름답다. 그 결과 2012년 한 해만 이곳에 500여명이 넘는 사람들이 찾아와 견학과 체험을 하고 돌아갔다.



귀농해서 일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판매다. 보통 귀농인들이 가장 많이 실패하는 이유가 바로 마땅한 판로를 마련하지 못해서이다. 김기숙 대표는 농산물을 들고 찾아가는 농업이 아니라 사람들이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촌에 찾아오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한다.

실제로 이들의 농원엔 연간 1,000여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견학과 체험을 다녀갔다. 뿐만 아니라 씨알농원의 농장 방문객들이 마을주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매년 1,000만 원 이상 구입해 주민 소득에 도움을 주고 있다.

김기숙 대표는 공간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 농사짓는 공간을 무엇으로 채우고 비우고 연계하며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힘든 농사일이 재미있는 놀이가 되고 즐겁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 좋은 농업은 물론 경쟁력도 함께 생성된다는 것이었다. 즉 테마가 있는 감성농업은 그린투어리즘(green tourism)으로 각광받을 수 있는 훌륭한 농업자원으로서 많은 도시민들을 불러들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미당 서정주 시인의 고향답게 감나무 아래 노란 국화가 피어나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이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가요. 일상에 지쳐 있는 도시인들에게는 처마 밑에 매달린 말린 감을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감동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스튜디오 테마 마을

**새로운 농업 브랜드 허브기지로서의 역할**

올해 초 김기숙 대표는 마을 이장으로 선출되었다. 금년 1월부터 마을을 위한 사업 계획을 치밀하게 추진하여 귀농 우수마을 및 생생마을 만들기 사업과 전통생태체험 시범사업 마을로 선정되어 1억여 원의 마을 사업 예산을 확보했다.

김 대표는 마을의 자원을 최대한 발굴 활용하여 감성적 테마마을을 조성할 계획이다. 마을 재실을 활용한 문화강좌(영화상영, 인문, 미술, 디자인, 공예, 발효식초 강좌)를 열고, 구 마을회관 리모델링해 추진 도시민 1박 마을 체험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편백숲(2,000평)을 활용한 투어길 및 휴식 공간을 조성하고, 주민들의 능력을 활용한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할 계획이다.

“앞으로 도화지농업의 씨알농원은 귀농 1번지 고창에서 새로운 농업문화를 선도할

것입니다. 농업에 문화를 접속하고 지난해 보다 더욱 다양한 테마를 주제로 인문강좌, 음악회, 길투어, 씨알축제와 같은 문화행사와 자매결연을 통한 농원의 손님을 고창의 손님으로 연계, 확장하여 우리지역의 새로운 농업브랜드와 허브기지로서의 역할에도 최선을 다 해나갈 것입니다.”

농업을 통해 자신들의 재능을 펼치며 꿈꿔왔던 일과 삶을 만들어 나가는 김기숙, 최종인씨. 도화지 농업을 실천하고 있는 이들의 꿈과 목표가 더욱 기대된다.



가족경영규모 \_ 2인 경영  
농지 29,752㎡ (무상 임대)  
산림 46,280㎡ (무상 임대)



평균수입 \_ 8 천만 원

필요한 기술 및 시설  
저온저장고  
교육장 및 체험장 등



연간운영비 \_ 2 천만 원



평균투자비 \_ 1 억(1년)



김 수 향 \_\_\_\_\_ 충청북도 보은  
대추나무, 서리태

달콤한 대추,  
달콤한 귀농



보은대추는 당도가 높아 전국에서 유일하게 말리지 않고 생으로 판매할 정도로 그 맛이 달다. 보통 뭉근히 끓인 삼계탕에 넣어 단 맛이 다 빠진 대추를 생각하면 안 된다. 한입 깨물었을 때 마치 설 탕이라도 씹은 듯 퍼지는 대추의 단맛은 여느 과일보다 2배나 높은 30~32브릭스를 기록한다. 기온차가 크고 일조량이 풍부한 보은의 산외농원 대표 이승근, 김수향 씨 부부가 들려주는 보은대추의 우수함, 그리고 대추의 달콤함보다 더 달콤한 귀농 성공기를 들어 보자.

귀농 전 거주지역	서울
귀농 전 직업	상인
귀농 결심동기	제2의 인생설계
귀농 선택 작목 및 창업명	대추, 서리태
귀농 연도	2012년
귀농귀촌 관련 교육 이수	농업 기술센터 교육



**부지런한 장사꾼의 성실한 귀농 도전**

‘2014 보은대추축제 대추왕 선발대회’ 우수상 수상, ‘2015 대한민국 과일산업대전’ 최우수 농축산식품부 장관상 수상, 연간 농가 수익 1억에 달하는 보은의 산외농원 대표 이승근, 김수향 부부의 멋쩍은 미소와 차분하고 여유로운 어투는 화려한 수상 경력과 다소 어울리지 않을 정도로 겸손하고 새침한 부끄러움으로 가득했다.

부부는 2012년 11월 귀농하기 전까지는 부지런한 장사꾼이었다. 건축업이 부도를 맞은 후 빈손으로 노점상을 운영하며 서울 도심지역은 물론 전국의 5일장을 돌아다



녀야 했던 고단한 노점상인의 삶을 살았다. 때마다 한곳에 머물지 못하는 장돌뱅이 삶에 지칠 때쯤 피산에 사는 친구가 운영하는 귀농체험에 참여를 했다. 맑은 공기와 깨끗한 환경 속에서 느끼는 무한한 여유에 매력을 느낀 부부는 얼마 후 귀농을 결심한다. “우리는 그런 결정은 빨리 해요. 어물쩍대면 금방 남이 따라와요. 괜히 재다보면 2인자만 되죠.” 부부의 시원시원한 결정으로 귀농은 일사천리로 이루어졌다. 하지만 아무것도 없이 시작하는 귀농이 처음부터 수월할 수는 없었다.

### 행운은 행운을 준비하는 사람에게 주어진다

귀농지로 선택한 곳은 김수향 씨의 고향인 보은군 산외면 산대리였다. 귀농생활 동안 주변사람들에게 이런저런 도움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도 고향에 귀농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생활까지 도움을 받을 순 없었다. 집을 지을 여유가 없어 농지 바로 옆에 컨테이너 하나 가져다놓고 텐트에서 생활을 하기도 했다. 인력도 녹록지 않아 착한 두 아들이 주말이나 여유가 있을 적마다 내려와 도와야 했다. 그렇게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며 첫 수확한 대추였지만 저장창고의 부재와 마땅한 판로를 미리 생각하지 못해 많은 수확물을 주변 지인들에게 그냥 나누어 주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다. 하지만 대가없는 나눔이 오히려 복이 되었다. 부부가 정성으로 키워 맛이 좋은 대추를 맛본 사람들은 부부의 대추를 주변에 알리고 대신 팔아주는 열성을 보였다. 또, 2013년에는 주변사람들의 권유로 보은군에서 주최하는 ‘보은 대추왕 선발대회’에 대추를 선보였고 처녀 출품에서 우수상을 타냈다.

대추농사가 안정이 되면서 부부는 본격적으로 농장을 꾸리고 처음보다 더 많은 준비와 노력을 기울여 2015년에는 서울 코엑스에서 개막한 ‘2015 대한민국 과일산업대전’에서 보은군의 다른 농장들과 함께 상을 휩쓰는 기쁨을 토했다. 특히 산외농장의 김 씨 부부는 당시 귀농 3년 만에 최우수 농축산식품부 장관상을 수상해 주목을 끌었다.

최근 산외농장의 보은대추는 그 명성과 품질 덕에 대기업 GS리테일에 납품, 연간 4천만 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으며, 위메프·쿠팡 같은 인터넷 거래사이트를 통해 3천만 원 정도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 또 꾸준히 지역축제에도 출품하여 매출의 30%를 판매하고 있다.



“어물쩍대면 금방 남이 따라와요  
괜히 재다보면 2인자만 되죠”

## 선택과 집중은 전략이다

이처럼 결코 남부럽지 않은 귀농성공가도를 달리고 있는 산외농장의 김 씨 부부는 귀농을 꿈꾸는 귀농희망자들에게 멘토와 작목 선택, 끊임없는 공부, 판로 확보 등에 대한 조언을 남겼다.

멘토에 대한 김 씨 부부의 의견은 다음과 같았다. “농사라는 게 정답이 없어서 각기 다른 방법들을 알려주는데 중구난방으로 여러 소리 들으면 방해만 돼요. 그냥 누구 하나한테 일관성 있게 조언을 받는 게 좋아요.” 대추농사에 대한 조언은 부부에게 농지를 판 전 농장주에게 받을 수 있었다. 친환경농법에 대한 조언은 농협에서 농약을 판매하는 지인에게 받을 수 있었다. 멘토들의 조언 덕분에 농사에 손은 많이 가지만 건강하고 맛있는 씨알 굵은 대추를 재배할 수 있었다.

부부는 작목 선택에 있어 지역 특작목과 집중전략을 택했다. 이것저것 하려다보면 어느 하나도 제대로 하기 어려울 수 있다. 특히 부부는 보은군에서 다양한 지원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작목인 보은대추를 선택했고 작목 하나에만 집중하여 큰 성공을 거두게 되었다.

모든 귀농인들의 공통점은 역시 공부였다. 김 씨 부부도 보은농업기술센터의 문턱이 닳도록 쫓아다녔고, 덕분에 보은대추 재배를 위한 기술을 습득할 수 있었다.



▶ 건강하고 맛있는 씨알 굵은 대추

마지막으로 부부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한 부분은 바로 판로 확보였다.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으라’는 말이 있듯이 팔 곳도 없이 농사를 지으면 농사 잘 지어 놓고도 손해를 보게 된다는 것이다. 오랜 기간 장사를 했던 부부의 경험은 귀농에도 큰 도움이 된 셈이다. 팔기 위한 작물은 팔아야 가치가 생기는 법이다.

## 더불어 행복해질 때까지

이승근, 김수향 부부의 다음 목표는 마을에 협동조합을 만드는 것이다. 앞으로 더 다양한 판로를 개척하고, 더 많은 물량을 납품하고 싶지만 김 씨 부부의 산외농장 생산량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렵다. 부부는 마을협동조합을 만들어 대추 가공이 가능한 공장설비를 갖추고 서울에 직판매장을 지어 대추 뿐만 아니라 콩, 팥 등 지역의 다른 농산물도 직판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이젠 혼자가 아닌 마을사람들 모두가 더불어



▶ 대추농장





이 용 수 \_\_\_\_\_ 강원도 홍천  
당나귀 체험 농장, 수도작, 발작물(옥수수, 고구마, 감자)

## 도시아이들에게 농촌을 선물하는 동키캐슬

귀농귀촌을 한 후 마을 주민들과 긴밀하고 가깝게 지내는 일은 도시에서보다 몇 배 더 힘들다. 그러나 강원도 홍천에서 당나귀 체험농장을 하고 있는 이용수 씨는 빠르게 마을에 정착한 후 마을에서 이장이라는 중책과 귀농귀촌 멘토를 하며 마을과 잘 협력하고 있다.



귀농 전 거주지역	서울
귀농 전 직업	IT업종 국내 및 해외영업
귀농 결심동기	인생 2막 준비
귀농 선택 작목 및 창업명	당나귀 체험농장, 수도작, 발작물(옥수수, 고구마, 감자 등)
귀농 연도	2009년
귀농귀촌 관련 교육 이수	신규정착농업인 교육, 귀농귀촌 코디네이터 교육



### 한우 농가를 지으려던 생각이 당나귀 체험농장으로

서울에서 나고 자란 이용수 씨는 IT업계에서 20년 동안 종사하며 안정적인 삶을 살았다. 바쁜 도시 생활 속에서 인생 2막을 따로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을 해왔으며 가족과 함께 여유로운 시간을 갖고자 귀농을 고민하게 됐다. 그러던 중 경기도 양평에서 한우 농가를 하려고 알아보던 그는 좋은 기회로 홍천에 자리를 잡게 됐고, 한우 대신 당나귀를 키우면서 당나귀 체험 농장을 하게 됐다. 처음에는 가족들의 반대도 있었지만 홍천에서의 삶을 강력히 피력하자 그의 가족들도 받아들여줬다. 그는 당나귀



체험캠핑장과 농촌교육농장이라는 타이틀로 홍천군 남면에 동키캐슬을 만들었다.

귀농지역은 수도권과 가까운 접근성, 농사짓는 땅값이 너무 비싸지 않아야 한다는 기준으로 홍천을 선택했다. 처음에는 한우 농가를 고민했으나 구제역과 FTA 등의 외부 요인으로 당나귀 체험캠핑장을 만들게 됐다.

### ▶ 당나귀 체험농장에서 캠핑장까지 ‘가족들의 놀이공간’ 구성

당나귀 체험농장으로 처음 귀농생활을 시작한 그는 정착단계에서 당나귀 체험뿐 아니라 넓은 자연 속에서 캠핑도 할 수 있도록 캠핑장도 같이 구성하게 됐다. 또 농작물 체험프로그램도 구성해 농촌 교육농장으로 영역을 확대했다. 체험농장을 만든 후 준비 부족으로 애를 먹기도 했다. 농촌교육농장으로 꾸미긴 했지만 준비가 부족해 어떻게 운영해야 할지, 홍보는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걱정이 그에게 큰 고민거리로 다가왔다. 그래서 교육프로그램을 찾았다. 2011년도부터 교육을 받으며 하나씩 알아나가고 문제들을 해결해 나갔다. 그는 귀농을 위해서는 교육을 통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체험농장에 대한 준비가 부족해 처음에는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어요. 시간도 많이 버렸죠. 교육을 받으면서 프로그램의 질을 높여나가다 보니 2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궤도에 오르기 시작했어요. 귀농을 하려고 한다면 귀농에 앞서 교육을 먼저 받아야 한다는 점을 경험을 통해 배웠어요. 귀농귀촌종합센터 등 지자체에서 하는 교육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거죠. 내가 많이 알고 있다고 자신하기 전에 많이 알아보고 발품을 팔아야지 귀농 후 정착하는데 어려움이 적다고 생각해요. 또 정착하는 과정에서 마을주민들에게 먼저 다가가고 마을 일에 적극적으로 나섰던 게 도움이 많이 됐어요. 마을 자율방범대 활동 등을 통해 지역 내 젊은 사람들과 친분을 쌓았고 귀농귀촌 모임도 만들어서 활발하게 활동했어요. 그러다가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농정원 주최 교육인 귀농귀촌 코디네이터 교육을 받으면서 강원도에서 2명 뿐인 농림축산식품부 지정 ‘귀농귀촌 현장지도교수’, ‘귀농닥터’와 ‘홍천군 귀농귀촌 멘토’도 하게 됐죠.”

그는 귀농귀촌 모임을 만들어 지자체 행사 등에 봉사활동을 다니며 귀농귀촌 홍보를 해나갔다. 그런 과정 중 귀농귀촌 멘토를 하게 됐는데, 수많은 사람들에게 귀농귀촌 멘토 역할을 하며 상담도 해주고 정착할 수 있는 노하우를 전수하고 있다.



▶ 당나귀 체험을 찾아주고 있는 이영수 씨

“내가 많이 알고 있다고 자신하기 전에 많이 알아보고 발품을 팔아야 귀농 후 정착하는데 어려움이 적다고 생각합니다.”



## 철저한 준비와 계획이 있어야 정착 가능

어렵게 정착을 하더라도 수익을 내기까지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그는 정착 후에 마을에서 멘토로 활동하면서 노하우를 얻고 수익을 내는 방법을 다양하게 연구하고 있다.

동키캐슬은 테마체험장+캠핑장+당나귀분양, 사육+미니동물원+논농사+밭농사 등 현재 수도작(벼), 밭농사(옥수수, 감자, 고구마 등), 당나귀, 산양, 닭 등을 사육 경작하고 있다. 농촌을 잘 모르는 도시 가족들에게 농촌을 체험하고, 아이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나들이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준비하고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실질적으로 귀농귀촌 모임에서 노하우를 많이 얻었어요. 노하우를 얻으면서 소득을 늘리기 위한 아이템 개발을 고민하고 있죠. 문제는 홍보예요. 서울 근교라는 이미지를 심어주고 편하게 체험할 수 있는 곳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방법을 고민 중이에요. 그래도 체험객들이 많이 늘어 2014년 2천만 원이었던 소득이 현재는 5천만 원까지 늘었고, 계속 증가하는 추세예요.”



소득 증대를 고민하는 그는 귀농귀촌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처음 귀농을 한 후 당장 소득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여유자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3년 정도 수입이 없을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해요. 그렇지만 탄탄한 교육을 바탕으로 많은 준비를 하고 내려온다면 1, 2년 안에 수익을 내기도 하니 귀농을 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충분한 고민이 꼭 필요하다고 말해주고 싶어요. 그리고 각 지역마다 잘 되는 작물들이 있으니 그런 것에 대한 공부를 충분히 한다면 귀농 후 정착하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 매출 목표 1억, 흥천에 당나귀 축제 만드는 것이 꿈

“현재 많은 사람들이 찾아주고 있지만 목표가 있다면 1년에 만 명이 동키캐슬을 찾아주는 것과 2017년에 매출 1억 원을 찍는 거예요. 동키캐슬을 체험장뿐 아니라 소(小)동물원으로 만들고자 하는 목표도 세우고 있어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동물을 직접 보고, 느끼고, 만질 수 있는 체험형 소동물원이 있다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내년쯤 목표가 현실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더불어 흥천에 당나귀축제를 만들어 보고 싶은 목표도 있어요. 각 지방마다 특색 있는 축제가 있는데 흥천에서는 당나귀



▶ 우수농가 (귀농농민) 김희정 씨의 농촌농가

가 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요.”

바쁘고 풍족하게 지냈던 도시생활 대신 택한 농촌생활은 그에게 가족과의 평화로운 시간과 마음에 여유를 선물했다. 내려놓기가 어려운 현실 속에서 마음에 짐을 내려놓고 여유를 만끽하는 농촌생활에서의 만족도는 상상이상이다.



가족경영규모 \_ 2인 경영

목장부지 : 10,000㎡

수도작 : 1,500㎡, 감자/옥수수/고구마 등 2,000㎡

필요한 기술 및 시설

교육장, 체험장  
축사, 캠핑장 시설



평균수입 \_ 3천~4천만 원



연간운영비 \_ 3백만 원



평균투자비 \_ 5억 원(3년)



## 귀촌하기 좋은마을



● **병풍마을**  
강원도 화천군 간동면 도송리

● **청량산비나라마을**  
경상북도 봉화군 명호면 풍호1리

● **안터마을**  
충청북도 옥천군 동이면 석탄리

● **신봉마을**  
전라북도 완주군 용진읍 운곡리

● **석대마을**  
경상남도 산청군 단성면 석대로



## 귀농하기 좋은마을

● **진거리**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 진거리

● **전평리마을**  
충청남도 공주시 정안면 전평리

● **입석마을**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입석리

● **안심마을**  
전라남도 화순군 이서면 안심리

● **신유도마을**  
전라남도 영암군 금정면 연소리



## 마음 단디 잡숯고 오쇼! 공동체가 사는, 신유토마을

전라남도 영암군 금정면 연소리  
귀농인가구 현황: 16가구  
앞으로 귀농인 수용 가능 가구수: 5가구 내외



귀농귀촌을 앞둔 사람들은 대개 답답한 도심을 벗어나는 해방감에 설렘이 가득할 것이다. 하지만 귀농귀촌은 결코 쉽지 않다. 새로운 역경이 기다린다. 단단히 마음을 잡숯고(?) 도전할 요량이라면, 전남 영암의 신유토마을에 주목해보자.

영암군 금정면에 위치한 신유토마을은 국사봉 산기슭 해발 600고지에 위치한다. 과거에는 빨치산 토벌 탓에 폐허가 되었던 마을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마을 주변의 대나무와 편백이 이루는 뽕뽕한 숲, 그리고 산골에 흐르는 맑은 물로 자생한 각종 토종약초의 효소와 곰보배추즙이 인근에 널리 알려지면서 마을 수익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2003년 3가구로 시작한 마을은 이후 다양한 직업군의 사람들이 끌고루 모여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왔으며 공동수익활동을 통해 마을수익사업에 박차를 가해왔다. 2010년 주민 11명으로 구성된 영농조합법인이 설립된 이후 본격적으로 발효상품과 농촌체험상품을 판매·유통하여 마을수익에 큰 기여를 해왔다. 이러한 노력들이 인정되어 2009년에는 행안부가 주최하는 '참살기좋은마을가꾸기' 콘테스트에서 2년 연속 우승하는 기쁨을 토하기도 했다. 마을의 대표인 박말녀 대표가 살아온 삶의 궤적은 신유토마을의 발전모습과 유사하다. 박 대표는 불의의 사고로 장애를 얻게 된 딸을 위해 전국 각지 물 좋고 공기 좋은 곳을 찾아다니다 이곳 신유토마을에 자리를 잡게 되었다. 손수 터를 닦고 집을 짓는 노고도 마다하지 않았고, 지역 주민들과의 융합을 위한 다양한 봉사활동을 통해 1년여 만에 마을에 온전히 정착할 수 있었다. 이후 박 대표는 마을로 유입되는 이주민들을 돕는 일에 앞장섰고 이주민들도 마을의 공동체 가치에 공감하여 함께 마을을 살기 좋게 꾸려나갔다. 신유토마을은 체험사업과 농산물유통과 같은 다양한 공동체수익사업과 공동분배를 통해 마을공동체의 발전과 마을의 단결력을 꾀하고자 한다. 함께 어우러지려는 마음을 갖고 신유토마을의 도움을 받는다면 연고 없는 마을일지라도 고향처럼 느껴질 것이다.

## 여유를 병풍으로 두른, 병풍마을

강원도 화천군 간동면 도송리  
귀농인가구 현황: 50가구  
앞으로 귀농인 수용 가능 가구수: 40가구 내외



맑고 청정한 한 폭의 풍경화와 같은 호반, 그러나 약 500년 전에는 파로호변에 자리 잡은 이 풍경이 아름다운 병풍마을에 슬픔을 묻어야 했던 이들이 있었다. 세조2년(1456년), 단종복위를 꾀하려던 사육신 사건에 벼슬하던 선조들이 탄핵 당할 위기에 놓이자 여산 송씨 일부는 고향을 떠나 이곳 화천 간동면 도송리의 병풍마을로 피해 들어와 집성촌을 이루었다. 이후 이들의 후손인 송란(1513 ~ 미상)은 지극한 효심과 강직한 충심으로 인근에 소문이 자자했다. 시기가 많이 흘러 1704년 숙종 30년에 송란의 충효를 기리기 위한 '송란충효문'이 건립되었다. 충효문은 한국전쟁 당시 소실되었지만 1973년에 복원되었다. 병풍마을에선 충효를 실천한 송란을 기리기 위해 2011년부터 '송란제례'를 지낸다. 그밖에도 효도사진전, 세계효행인물전, 군부대 병영체험과 같이 충효사상을 연계한 지역축제를 개최하여 여느 지역행사들과는 차별을 둔 좀 더 뜻 깊은 행사를 마련해 호응을 얻고 있다.

병풍마을은 이미 다수의 귀농가구들이 유입된 마을이며 주민들 간에 끈끈한 유대관계가 형성되었다. 현지인과 귀농인 간에 차별은 없다. 떠들썩하고 형식적인 귀농귀촌인 지원제도는 없다. 따뜻한 인심과 효심에 기반한 인지상정의 공동체 의식이 병풍마을 공동체를 탄탄히 묶는다.

강원도 산골마을의 특성상 농지는 적지만, 맑고 깨끗한 공기와 물, 50만 평 가까운 밭과 임야 덕에 요즘 들어 높아만 가는 건강에 대한 우려를 깨끗이 씻어낼 수 있는 생활을 누릴 수 있다. 산골마을이라지만 마을 남쪽으로 차를 달려 5분만 가면 간동면 소재지가 나오고 춘천시는 30여 분 여유롭게 차를 달리면 도착할 수 있어 결코 고립된 산골마을이라 할 수 없다. 경쟁과 팍팍한 도시 인심에 지친 이들에게 병풍마을은 훌륭한 여유의 고향이 될 것이다.

## 푸근한 흙을 밟은 인심 가득한, 안심마을

전라남도 화순군 이서면 안심리  
귀농인가구 현황 : 5가구  
앞으로 귀농인 수용 가능 가구수 : 귀농인의 집 1개소 운영



때로는 화려한 것이나 드러내고 내세울 것이 없는 것들이 가진 담백함이 은은하고 진한 매력을 풍길 때가 있다. 전남 화순군 이서면에 있는 안심마을이 바로 그런 곳이다. 다양한 사업과 화려한 수상 경력이 있는 귀농귀촌 마을들도 저마다 강한 매력과 선명한 색을 띠지만, 안심마을의 담백한 인심은 귀농 3년차 이장님의 투박하지만 구수한 어투에서부터 느낄 수 있다. 마을의 자랑거리를 묻자 쑥스러워하시면서 그저 공기가 좋고 인심이 좋고 농사가 좋다는 말씀을 하셨다. 어렵게 하나씩 꺼내신 말씀이 한옥체험관이었다. 1천여 평 규모의 텃밭을 가진 28평 규모의 체험관은 마을을 방문하는 이들이 머물 수도 있고, 마을주민들을 위한 작은 도서관도 마련되어 있다. 그밖에도 안심마을에는 '산적소굴' 이란 으스스한 이름의 민박과 '누룩꽃이 핀다' 라는 정감어린 이름을 가진 발효빵집이 유명하다.

안심마을은 인근 화순읍에서 차로 10분 거리, 대도시 광주에서 15분 거리에 떨어져 있어 광주에서 귀농체험을 하고자 하는 찾아오는 방문객들이 문전성시를 이룬다. 특히 광주와는 무등산 하나를 사이에 두었을 만큼 가까운 거리에 있다. 이곳 안심마을에 거주할 목적으로 이주한다면 점차 주민들의 노령화로 발생하는 휴경지를 얻어 본격적인 귀농생활을 시작할 수 있다. 예로부터 농업의 중심지였던 전라남도답게 지자체에서도 귀농인에 대한 융자혜택과 낡은 집 개조사업을 지원해준다.

마을의 마을의 주요 산물은 벼농사를 포함하여 울무, 고추, 들깨 등이며 시기를 잘 만나면 특정 작물로 고수익을 얻을 수도 있다. 마을에는 잘 만들어진 저수지도 있어 본격적인 귀농을 꿈꾼다면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한때 마을은 주민들의 고령화로 고심을 겪었지만 광주와의 인접성과 귀농귀촌 열풍으로 마을은 조금씩 변화를 겪어왔다. 안심마을은 조건상 앞으로도 계속 젊은 이주민들의 사랑을 받을 것이며 좋은 수익모델을 낼 수 있을 것이다.

## 조용한 여유로 힐링을 꿈꾸는, 석대마을

경상남도 산청군 단성면 석대로  
귀농인가구 현황 : 108가구  
앞으로 귀농인 수용 가능 가구수 : 전원주택지 조성 분양 중(총 800여 세대)



푸르스름한 새벽빛을 전경 가득 담은 창 너머로부터 들려오는 산새들의 지저귀. 상쾌한 새벽공기를 폐 가득히 채운 채 손수 잘 말린 차를 찻잔에 담아 신선한 여유까지 마시는 아침. 누구라도 이런 여유 넘치는 전원생활을 꿈꿀 것이다.

경남 산청군에 있는 석대마을은 이미 100여 가구가 전원주택지를 조성하여 살고 있다. 마을에 있는 45만 평의 넓은 부지에는 앞으로도 계속 전원주택지를 조성하여 조용하고 여유로운 귀촌생활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분양할 계획이다.

석대마을을 구성하는 주민의 대다수는 과거 공직에 머물렀거나 치열한 경쟁을 견뎌내야 했던 샐러리맨들이다. 전생터 같았던 도심에서의 흥진을 털어내고 이젠 쾌적하고 여유로운 전원생활을 꿈꾸는 이들이 모여 아름답고 쾌적한 마을을 가꾸는데 새로운 열정을 바치고 있다.

이미 2014년 산청군 단성면은 '산엔청 희망마을 만들기 시범사업'에 선정돼 9천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했고 이 예산으로 마을 경관사업을 완료했다. 석대마을 1천여㎡ 부지에 물레방아, 정자, 돌담, 매화나무 등 조경수로 정감어린 소규모 공원을 조성하여 마을을 '색깔 있는 마을'로 조성했다. 또 마을 입구에는 마을을 상징하는 조형물인 돌탑(첨성대 모양)을 설치했다.

그밖에도 석대마을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문화행사인 시낭송, 마당놀이 등 산촌융합체험축제 개최는 물론 마을 힐링 캠프장과 연계한 음악회, 민속놀이 행사 등을 기획해 힐링 체험을 통한 전국적인 산촌마을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을 지속 중이다.

귀촌에도 다양한 모습과 바람이 있다. 남들보다 더 조용하고 여유로운 전원생활을 꿈꾸는 귀농인이라면 이곳 석대마을을 한번쯤 찾아가 보는 것을 권하고 싶다.

## 푸근한 산세에 싸인, 입석마을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입석리  
귀농인가구 현황: 49가구  
앞으로 귀농인 수용 가능 가구수: 30가구 내외



남으로는 경남 하동읍, 북으로는 경상도와 전라도를 이어주던 화개장터와 10여 분 정도 떨어진 곳, 고즈넉한 산세에 둘러싸인 마을이 있다. 사실 인근에 있는 평사리의 최참판댁(소설 토지의 배경을 재현한 문학관)이 더 유명한 건 사실이지만, 북동쪽으로 조금 더 올라가면 푸근한 산세에 싸인 예쁜 마을, 입석마을이 나온다.

1,118m 형제봉을 등진 해발 800m에 자리 잡은 입석마을에서 앞으로 흐르는 섬진강을 바라보노라면, 널리 활기차게 펼쳐진 잘 정리된 논밭의 장관까지 볼 수 있다. 마을 입구를 지키는 수령 300년이 넘는 보호수 4그루가 마을을 지키고 있으며 해를 많이 받는 양지마을이라 농토가 기름진 마을이다. 덕분에 입석마을은 귀농귀촌인들에게 잘 알려져 이미 50여 가구 정도가 이 마을을 찾아왔다.

입석마을 바로 옆에는 평사리의 최참판댁도 있지만 신석기 유물인 7m 높이의 선돌(立石)이 있으며 매년 선달그믐이면 성금을 추렴해 동신제를 지낸다. 또한 지리산둘레길 13코스 구간 경유지로 길에서 마주할 서어나무숲과 섬진강이 아름다운 마을이다.

“무슨 일이트 사람 마음먹기 나름이죠.” 호쾌한 이장님의 너털웃음만큼이나 입석마을에는 휴경지와 임대가능 농지가 풍부하다. 경북 산골마을의 특성상 벼농사보다는 과수와 작물이 주 산물이며 입석마을의 수입은 이곳 악양면에서도 상위지에 속한다고 한다.

종종 귀농귀촌마을이 지역 주민과 이주민 간의 갈등으로 관계가 소원해지는 것에 비해, 이곳 입석마을은 귀농인, 이주민에 대한 특별한 차별은 없다고 한다. 지역 주민들과 조화롭게 지내고자하는 노력과 미소만 있다면 입석마을에선 누구라도 자신이 꿈꾸던 평온하고 풍족한 귀농생활을 누릴 수 있다. 덧붙여 봄이면 벚꽃과 매실꽃이 섬진강변에 흐드러지게 핀 풍경을 마을 앞에 둘 수 있는 입석마을은, 가히 절경을 찾는 귀농인들에게 추천하고 싶다.

## 젊음보다 더 유쾌한 황혼을 노래하는, 신봉마을

전라북도 완주군 용진읍 운곡리  
귀농인가구 현황: 27가구  
앞으로 귀농인 수용 가능 가구수: 7가구 내외



전북 완주군 용진면에 위치한 이곳 신봉마을은 예술의 가치를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가 된다.

전주시내에서 20여 분, 전주역에서 10여 분, 완주IC에서 5분 거리에 떨어진, 비교적 도심에서 멀지 않은 이 곳 신봉마을에는 특별히 제도화된 마을사업은 없다. 하지만 주민들 스스로 참여한 다양한 활동이 어느새 자랑할 만한 화려한 경력이 되어버렸다. 2012년 적극적인 마을 이장님과 민요선생님이 의기투합하여 시작한 민요합창단은 4년 간 KBS방송출연을 포함하여 30여 회 이상의 공연을 치렀다. 덕분에 2013년에는 ‘참살기좋은마을만들기’ 사업에 선정되어 민요공연 체험관을 건립할 수 있었다.

2013년에는 15명의 주민이 미디어 영상교육을 받아 마을뉴스와 노년의 즐거운 생활을 다룬 영상물을 제작하여 2014년 서울실버영화제에 진출, 서울시장상을 수상하는 기쁨을 토했다. 그밖에도 사물놀이, 수수경단 만들기과 체험사업 등의 활동으로 연 1천만 원의 소득을 얻었다. 뿐만 아니라, 2015년에는 농림식품부 공동문화조성사업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에 선정되어 2년 동안 1억 6천만 원의 벽화그리기 사업비를 얻어 마을의 유래를 벽화로 유쾌하게 그려내었다.

신봉마을에는 귀촌귀농에 도전하는 젊음은 보기 어렵다. 하지만 그보다 더 열정적이고 유쾌한 중년과 노년의 도전이 있다. 어쩌면 성공을 기대하기 어려웠던 그들의 도전은 민요를 만나 화려하게 그 가치를 입증해냈다. 그리고 그 도전과 성공은 귀촌인이 50%나 되었던 마을의 화합을 자연스럽게 이끌어 내는 원동력이 되었다.

퇴직을 앞두고 제2의 인생을 뜨겁게 살고자 하는 50대, 혹은 그보다 젊은 사람들이라면 이곳 신봉마을을 찾아가는 것이 어떨까.

## 함께 해유! 함께 내달리는 마을, 전평리마을

충청남도 공주시 정안면 전평리  
귀농인가구 현황 : 5가구  
앞으로 귀농인 수용 가능 가구수 : 2가구 내외



“얼룩백이 황소가 해설피 금빛 게으른 울음을 우는 곳...” 충남의 시인 정지용 님의 시 <향수>의 한 구절이다. 산비탈을 여유롭게 걸어 내려와 쉬기라도 하듯 마을은 비탈면 아래 자리를 잡고 옆구리로 길을 낸다. 고개를 들어 비탈을 바라보면 축사도 논밭도 마을 뒤편으로 듩직하게 자리 잡고 있다. 마을은 그간 개발이 더뎠던 탓에 옛 농촌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황소가 해설피 게으른 울음을 울 것만 같은 마을이다.

마을은 머지않아 조금씩 변할 것이다. 의욕적인 귀농인들이 오기 전까지 마을은 조용하고 정제된 시골마을이었다. 4년 전 마을에 유입되기 시작한 귀농인들의 다양한 도전으로 마을은 차근차근 새로운 사업을 꾸려나가고 있다. 2년의 도전 끝에 “우리 복지는 우리가 책임진다!” 라는 당찬 슬로건으로 2015년 총 사업비 5억 원의 농수산부 홍보사업에 선정되어, 노인을 위한 복지관을 건립하고 구체적인 수익사업에 나설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농식품부의 귀농인의 집 사업을 통해 미리 귀농체험을 해보고자 하는 도시민들을 위한 체험관도 만들 예정이며 현재 마을 경관개선사업 등에도 도전 중이다. 오랫동안 개발이 더뎠다는 단점을 휴양과 힐링의 공간으로 재탄생 시킬 반전을 꾀하고픈 마을의 노력이 돋보인다.

공주 정안면은 이미 오래 전부터 정안 알밤으로 유명했다. 전평리 마을 내에 위치한 금정농원은 전국적으로 밤줍기체험행사로 유명한 농원이다. 뿐만 아니라 전평리는 다수의 한우축사 운영으로 한우 또한 유명하다. 공주 인근의 세종시와 대전, 천안과 같은 대도시들의 발전과 수요에 기대어 많은 수익을 올릴 것으로 기대된다. 아직 마을에는 5가구 정도 귀농가구가 전부다. 하지만 4년 새 진행된 귀농으로 인해 젊은 인구가 유입되었고 앞으로도 다양한 사업들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또 마을을 체험한 도시민들이 늘어날수록 귀농가구 수는 점차 늘어날 것이다. 창조적인 새 삶을, 새 경험을 해보고 싶은 젊은 귀농인들에게 전하고 싶다. “함께 해유!”

## 대청호 안 터를 반딧불이로 밝히는, 안터마을

충청북도 옥천군 동이면 석탄리  
귀농인가구 현황 : 62가구  
앞으로 귀농인 수용 가능 가구수 : 10가구 내외



최근 자전거 하이킹으로 부쩍 관심을 받고 있는 옥천군 시내에서 차로 10여 분을 달리면 안터고 너머 안터마을에 도착할 수 있다.

5월 28일부터 거행된 제8회 안터마을 반딧불이축제는 반딧불이 군무와 함께 하는 대청호수변 밤길걷기와 함께 반딧불이의 서식지 및 일대기를 배울 수 있고 더불어 자연의 소중함까지 체험할 수 있다. 인근에 있는 옥천 석탄리 고인돌과 선돌, 안터선사공원 등을 연계해 관광하면 아이들을 위한 학습효과에도 좋을 것이다.

쌀쌀해지는 11월이 되면 안터마을에는 빙어잡기체험과 썰매체험행사가 열린다. 한해 무려 10만여 명의 방문객이 참여하고 연간 약 7천만 원 정도의 수익을 올린다. 그밖에도 겨울초입엔 김장김치 담아가기 체험, 음력정월보름에는 정월대보름축제 등, 아직 다 소개하지 못한 다채로운 행사들이 안터마을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진행된다.

이처럼 많은 축제들을 단지 한 마을에서 성공리에 치를 수 있었던 이유는 안터마을 주민들간의 끈끈한 유대감과 탄탄한 조직력 덕분이다. 정부나 지자체의 특별한 도움이 없어도 안터마을은 공동체의 가치를 중시하고 함께 협력하여 마을공동의 수익을 창출해냈고 그 성공에 힘입어 또 다른 사업에 나설 때 더 큰 힘을 얻는 선순환을 통해 안터마을의 축제는 쪽 발 전해왔다.

대전과 충북의 식수를 책임지는 대청호 주변에 자리 잡은 안터마을은 대도시 대전에서도 1시간 거리에 있으며 옥천시내에선 10여분 거리에 있어 편의시설에 대한 접근성이 좋고 마을 내에 보건소가 있어 긴박한 의료문제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 안터마을에는 귀촌가구가 60여 가구나 되며 지금도 5가구 정도가 귀촌을 준비 중에 있다. 공동체와 더불어 축제를 만들고 즐길 의지가 있는 귀촌인이라면, 안터고 너머 축제의 마을로 삶을 옮겨보는 것이 어떨까.

## 클래식한 진짜 귀농 마을, 진가 1리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 진가 1리  
귀농인가구 현황: 1가구  
앞으로 귀농인 수용 가능 가구수: 2가구 내외



전국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상품화되기 시작하면서 이천은 김제, 철원과 더불어 유명한 쌀 생산지로 이름을 날렸다. 이곳 진가 1리 마을도 이천쌀이 유명하다. 그밖에도 채소 종묘사업, 딸기재배, 표고버섯 재배 등의 농산물 재배에 유리한 마을이다. 가장 이상적인 농업최적지라고 할 수 있다.

진가 1리 마을은 귀농귀촌에 대한 본격적인 사업이 시행된 마을은 아니다. 조선시대부터 경기지역 특유의 도시인접성과 풍부한 수원, 넓은 평야가 어우러져 농사에 가장 적합한 곳이었다. 때문에 다각도로 생존을 위해 노력한, 조금은 척박한 여타 농촌지역에 비해선 귀농귀촌사업에 대한 진척도가 낮은 편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가 1리 마을의 기름진 논과 농업에 최적화된 다양한 이점들 덕에 진가 1리에 대한 귀농인들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형성되었다.

진가 1리 마을의 농업환경에는 다양한 이점이 있지만 최근 가장 부각되는 점은 교통의 편리함이다. 이천IC와 남이천IC를 거쳐 고속도로를 타면 수도 서울까지 빠르게 진입할 수 있다. 그밖에도 인근엔 모두 소비성향이 좋은 대도시와 위성도시들이 자리 잡고 있어 판매유통망과 물류비에 있어서 타지역 농촌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이점을 갖고 있다. 진가 1리의 자연적인 조건도 좋다. 토지생산성이 좋은 땅은 물론, 마을 인근의 진가저수지와 풍부한 지하수 덕에 물 걱정을 덜 수 있다. 이처럼 농업에 가장 기본이 되는 이점들 덕에 이곳 진가 1리 마을의 농가 수익은 상당히 높은 편이다.

좋은 땅과 좋은 환경에서 본격적인 농업인으로서의 새로운 삶을 꿈꾼다면 이곳 진가 1리 마을은 최적의 환경과 조건을 제공할 것이다. 대도시와의 인접성뿐만 아니라 마을에도 이미 각종 편의시설이 있기에 진지하게 농업인으로 임하길 원하는 귀농인들에게 이곳이야말로 귀농을 위한 최적지라고 말하고 싶다.

## 자연 속 첨단 귀촌을 꿈꾸는, 청량산비나리마을

경상북도 봉화군 명호면 풍호리  
귀농인가구 현황: 20여 가구  
앞으로 귀농인 수용 가능 가구수: 20가구 내외



“우선 공기가 너무 좋아요! 깨끗하고 맑아요.” 젊은 여성의 감탄 가득한 목소리는 연신 청량산비나리마을에 대한 탄복으로 가득했다. 경북 봉화군에 자리 잡은 청량산도립공원이 인근에 있고 낙동강 상류에 위치한 덕에 맑고 깨끗한 수원과 수려한 경관, 그간 개발이 더딘 탓에 지킬 수 있었던 마을 주변의 원시림까지, 청량산비나리마을의 환경은 귀촌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기에 충분했다.

마을의 자랑거리는 수려한 경관과 맑은 공기뿐만이 아니다. 농림부의 지역활성화센터 건립과 행자부의 정보화마을 지정으로 마을에는 각종 편의시설이 들어서고 도로포장, 인터넷 광랜선이 설치되는 등 젊은 귀촌희망자들의 관심을 끌만한 설비들 또한 비나리마을의 매력이다.

마을의 전체 가구 수는 60여 가구이며 3분의 1가량이 귀촌가구다. 귀촌인구는 계속 늘어나는 추세이며 특히 작년(2015)에는 젊은 귀촌인의 대거 유입으로 마을분위기가 한층 더 젊어졌다.

청량산비나리마을에는 다양한 귀촌 콘텐츠가 있다. 2001년부터 명호면 남부 7개 마을 조합원의 공동출자로 설립한 영농조합법인인 마을의 지역활성화센터를 중심으로 귀농연수관, 농산물홍보전시관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밖에도 마을경관조성과 더 많은 귀촌인 유입에 대비한 사업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특히 비나리체험학교를 운영하여 귀농체험 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화체험을 즐길 수 있도록 준비하였다. 기본이 되는 농사와 귀농체험은 물론 도자기 만들기 체험, 산골미술전시회 등과 같이 자연과 하나가 되는 예술콘텐츠를 준비하였다. 맑고 깨끗한 환경 속에서 건강한 예술문화를 꽃피우고 싶은 예술인, 혹은 건강한 삶을 꾸리고 싶은 귀촌인이라면 한번쯤 청량산비나리마을의 문을 두드리는 것이 어떨까.





## 정책 금융

### Q. 귀농귀촌 정책지원 사업신청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A. 귀농귀촌 정책지원 사업신청을 하기 전에 행정기관(시·군 담당부서 또는 농업기술센터)과 농협(농협중앙회 또는 지역농협)을 방문하여 사업신청 및 대출과 관련된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이때 상담을 받으러 갈 때는 어느 정도 구체화된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가야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Q. 귀농인 창업자금 신청은 세대주가 해야하나요?

A. 귀농인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의 경우 세대주가 신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원대상자로 선정하는 심사과정은 사업신청자인 세대주를 기준으로 귀농적합 여부를 판단하므로, 귀농교육 등 지원하기 위한 요건도 세대주의 명의로 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후 진행되는 사업 즉, 토지 및 시설구입 등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과정도 세대주 명의로 해야합니다.

### Q. 귀농지원신청 서류는 무엇이 있나요? 대출 만기 전에 상환하면 중도상환 수수료를 납입해야 하나요?

A. 귀농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의 필요서류에는 기본적으로 신청서 1부, 창업계획서 1부, 주민등록본 1부, 가족관계등록부 1부, 국민건강보험카드 1부, 기타증빙자료 등이 있습니다. 금융기관에서의 필요서류는 농협 대출 담당 직원과 상담 시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귀농농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은 연도별로 사업내용이 개정될 수 있으니 세부지침 내용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출 만기 전에 상환하여도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으며 자유롭게 수시상환 가능합니다.

### Q. 농신보(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를 이용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A.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은 경영능력 및 사업성은 있으나 담보력이 미약한 농림수산업자 등의 신용을 보증함으로써 농림수산업에 필요한 소요자금을 원활하게 마련할 수 있도록 하여 농어촌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는 신용보완 제도입니다. 농신보 이용 절차는 [귀농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 [농협 등 금융기관에 농신보 담보대출 신청] > [신용조사에 필요한 서류를 금융기관에 제출] > [신용조사 평점결과에 따라 농신보 보증금액 결정] > [보증금액이내에서 대출 실행] 순으로 진행됩니다.

농신보는 농업 외의 근로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인 경우, 농어촌비즈니스분야인 경우, 금융기관에 연체 중이거나 신용불량등록 대상자 등 금융거래상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 Q. 농촌지역에서 농지원부, 농업경영체에 등록하고 영농에 종사하던 세대주가 도시지역으로 진출(1년 이상, 농지원부, 농업경영체 등록 계속 유지)했다가 다시 귀농한 경우, 사업대상자가 될 수 있나요?

A. 농촌지역에서 농지원부, 농업경영체를 등록하고 농업에 종사했던 세대주가 도시지역으로 이전하면서 농지원부, 농업경영체 등록을 계속 유지했다면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기간 동안에도 농업에 계속적으로 종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농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자금 시행지침의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사업대상자로 선정될 수 없을 것입니다.

### Q. 지원자의 신용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합니까?

A. 신용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농협 및 타 은행에 연체대출금·연체이자·카드연체금 등 보유자, 농협에 특수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자, 신용정보 불량등록자, 통합업무시스템에서 여신심사결과 대출 거절자 등이 신용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 귀농 교육

### Q. 귀농귀촌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A. 귀농교육은 온라인·오프라인 모두 수강이 가능합니다. 온라인교육은 농업인력포털 (<http://www.agriedu.net/>)으로 직접 접속하시거나, 귀농귀촌종합센터 홈페이지 [교육정보] > [온라인 교육]을 클릭하시고 회원가입 후 이용이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교육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및 지자체가 귀농·영농 교육과정을 주최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합니다. 귀농귀촌종합센터에서 운영하는 교육정보는 귀농귀촌종합센터 홈페이지 [교육정보] > [오프라인교육] 및 [알림정보] > [공지사항]의 '(공지) 2016 귀농귀촌종합센터 소그룹 강의 안내'와 '(공지) 2016 귀농귀촌아카데미 교육 운영 및 신청방법 안내'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한, '2016년 귀농귀촌 오프라인 교육과정(민간기관공모교육)안내 - 수정'의 첨부파일을 통해 민간기관 공모교육의 세부교육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육을 운영하는 기관 및 과정에 따라 교육대상자/교육내용/교육장보/교육비 등이 상이하므로 해당 교육운영기관으로 문의하여 정확한 상담을 받도록 합니다.

### Q. 귀농인 자금지원 요건인 교육이수 조건은 무엇인가요?

A. 교육이수 조건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및 지자체 등이 주관 또는 위탁하는 귀농영농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한 자입니다. 단, 100시간 중에 지자체가 실시하는 교육을 최소 8시간 이상을 필수로 이수해야 합니다. 또한 상기 기관에서 실시하는 귀농교육 및 일반농업교육으로 귀농귀촌종합센터 홈페이지([www.returnfarm.com](http://www.returnfarm.com))에 등록된 교육과정에 한정됩니다. 한편 귀농자 중 농업인 인정 규모로 실제 영농 종사 기간이 3개월 이상인 영농경험자, 농과계 학교출신자, 후계농업인으로 선정되었던 자, 농산업인턴 이수자(100시간 이상)는 귀농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 Q. 귀농은 했지만 막연합니다. 농사일을 배우는 방법은 없나요?

A. 도시민 중 농촌지역에 정착한 귀농인에게 영농기술 및 품질관리, 경영 등에 필요한 단계별 실습교육인 선도농가 현장실습지원 사업을 운영하여 안정적인 정착률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농촌지역의 조기 적응은 물론 농산업분야 창업 시 위험부담을 최소화하는 등 안정적인 영농정착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선도농가 현장실습지원 사업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5년 이내의 귀농인이 1~2월 중 도농업기술원 또는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신청을 하여 연수대상자로 선정이 되어야 합니다. 연수대상자로 선정되면 선도농장에서 최대 5개월까지 영농체험을 하게 되며, 연수기간 동안 월 80만 원 한도의 교육훈련비가 지급됩니다.

### Q. 2015년도 온라인교육 50시간, 오프라인교육 50시간을 이수하고 교육이수실적에 대한 자격요건을 갖추었는데, 2016년도 지침에는 온라인교육 최대 40시간까지만 인정된다고 합니다. 사업대상자가 될 수 있을까요?

A. 2016년도 개정된 지침에 의하면 온라인교육 이수실적을 최대 40시간까지만 인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지자체 교육(8시간)을 포함하는 교육이수실적 적용시기 : 2016년 7월 1일 이후 적용의 내용에 따라 그 이전까지는 2015년도 지침에 따른 교육이수실적을 적용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 Q. '지자체 교육 8시간 이수'라는 의미는 귀농할 지역의 지자체에만 한정되나요?

A. 지자체 교육이란 지자체 또는 도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의 직접교육과 위탁교육 모두 포함하므로 귀농지역 지자체가 아닌 타 지역의 지자체교육도 인정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농지·주택

### Q. 귀농인의 집이란 무엇인가요?

A. 귀농인의 집은 “이주 이전에 농촌체험 등을 원하는 귀농 희망자에게 임시 거처와 농업체험을 제공하는 형태”로, 귀농인의 집 운영을 희망하는 마을과 시군이 지역 내 제반 여건을 감안하여 운영을 결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농인의 집은 지역에 따라 운영하고 있거나 그렇지 않은 지역이 있습니다. 귀농인의 집 입주대상자는 귀농인의 집에 거주 하면서 주택과 농지를 확보한 후 현지에 정착하고자 하는 자로 누구나 가능합니다.

귀농교육을 이수한 자에게는 우선순위를 부여하며, 가족(부부 등)과 함께 입주하고자 하는 경우(단독 입주자는 제외)는 해당 시·군과의 계약에 따라 전기, 수도요금 등 부담이 가능합니다.

### Q. 농가주택 구입 시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 알려주세요.

A. 농가주택들 중에는 대지가 아닌 농지에 지어져 있거나 무허가 건물인 경우가 많습니다. 농가주택을 구입할 때는 건축법상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반적인 주택 매매보다 더 꼼꼼하게 체크하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1. 등기는 되었는지 확인합니다. 구입하기 전에 토지대장과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을 꼭 확인해 봐야 합니다. 특히 과거에는 매매계약서만 있으면 명의변경을 해주어 등기가 안 된 채 명의가 바뀐 집들이 많아 이런 사실을 모른 채 등기가 안 된 주택을 구입하였을 경우 과거 매매 사실을 모두 찾아 양도신고를 하고 등기를 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2. 지상권 문제를 확인합니다. 지상권이란 건물주와 땅주인이 다른 물건에서 건물에 관한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땅주인과 건물주가 같은 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땅주인과 건물주인이 다른 경우 땅을 구입했어도 건물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어 건물을 다시 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3. 도로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농가주택 중에는 실제로 이용되는 도로는 있지만 지적도상 도로가 없는 주택도 많습니다. 이 경우 실제로 사용되는 도로는 사유지가 일반적이므로 건물을 신축할 때 도로부분에 대한 토지의 사용승낙서를 첨부해야 하는 등 번

거로운 점이 발생하게 되므로 꼼꼼히 살펴 봐야 합니다.

4. 토지거래허가구역인지의 여부를 확인합니다. 대지 평수가 500㎡(151평)을 초과할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5. 개조가 가능한 집인지 확인합니다. 개조할 생각으로 농가주택을 구입한다면 기본 골조를 먼저 살펴봅시다. 내부의 기둥이나 서까래 등 골조가 튼튼해야 개조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 Q. 농지의 취득과 농지취득자격증명에 대해 알려주세요.

A.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매수자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는 농지매수인의 농지소유자격과 소유상한을 확인·심사하여 적격자에게만 농지의 취득을 허용함으로써 비농업인의 투기적 농지소유를 방지하고 경자유전을 실현하기 위함입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와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당해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장에게 신청하면 됩니다. 단, 주말·체험농 목적으로 1,000㎡ 미만 취득할 경우에는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 Q. 농지은행제도란?

A. 농지은행이란, 이탈농·고령농·도시민으로부터 농지를 수탁·매입하여 이를 전업농 등에게 임대·매도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는 농지 소유자의 사정에 따라 불가피하게 농사를 짓지 못할 경우에 농지은행을 통해 임대가 이루어지며 그 기간 동안 임차인은 아무 걱정없이 농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농지은행을 이용하면 농지소유자는 임차인을 직접 물색하고 계약조건을 협의하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고, 임차농업인은 농지소유에 필요한 자금의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농지은행에서 하는 사업으로는 농지임대수탁, 농지매도수탁, 경영회생농지매입, 농지매입비축사업 등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농지은행포탈([www.fbo.or.kr](http://www.fbo.or.kr)) 또는 국번 없이 1577-7770번으로 전화하시거나 가까운 한국농어촌공사 해당지사를 방문하시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Q. 농지원부의 작성목적 및 기준과 활용은 무엇인가요?

A. 농지원부는 농지의 소유 및 이용실태를 파악해 농업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동에 위임된 경우에는 동을 포함)에 작성·비치하는 행정자료로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할 수 있습니다.

농지원부는 1,000㎡(비닐하우스, 버섯재배사 등 시설재배 시 330㎡)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이나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및 준농업법인별로 작성·관리하게 되며 1세대에 농업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세대를 기준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 경작면적은 소유 여부에 관계없이 실제로 농작물 재배 등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을 세대별로 합산한 면적 농지원부는 농지소유 및 이용실태 현황 파악 등 농지관리 업무의 기초자료와 농업관련 지원 사업대상자 선정 시 경작상황, 경영규모 파악 등 농정시책추진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 농지원부는 농지관리 및 농업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작성·비치하는 행정자료로, 세금감면 대상자 확인, 농협대출 등을 위한 자료로 농지원부를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기관에서 그 적정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 기타

### Q. 농업인의 경영체 등록은 무엇인가요?

A. 농가의 인력정보를 포함해 농·축산물의 생산 정보를 행정기관에 등록하고 고유번호를 부여 받는 농업경영체등록제는 어떤 농사를 얼마나 짓는지 등을 등록하는 제도입니다. 농민이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면 등록된 정보를 활용하여 농가별 경영여건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농림사업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농업경영체등록이 필수이기 때문에 정책사업의 이용을 위해서도 반드시 경영정보 등록이 필요합니다. 등록대상은 농업인과 농업법인이며, 등록기관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또는 출장소이고, 등록내용은 농가의 인력, 농지, 농·축산물 생산정보 등입니다. 등록

절차 및 제출서류 등은 가까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문의하시면 안내를 받으실 수 있으며, 농업경영체콜센터 1644-8778을 통하여 상담도 가능합니다.

### Q. 귀농을 하면 면세유도 바로 사용할 수 있나요?

A. 면세유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 임업에 종사하는 자 및 어민이 농업·임업 또는 어업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하며, 부가가치세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것에 대한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주행에 대한 자동차세가 면제된 석유류를 말합니다. 귀농 후 바로 면세유를 이용할 수는 없고, 농어민 등이 면세유를 공급받기 위해서는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기계, 임업기계 또는 선박 및 시설의 보유 현황과 영농·영림 또는 어업경영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지자체별 지원정책

### 경기도

평택	귀농귀촌 교육 및 현장실습 : 교육지원 2,000만 원 / 현장연수 1,200만 원
이천	귀농귀촌 교육 : 기초 영농 교육 및 실습

### 강원도


춘천	귀농 정착지원금 지원 : 2년간 월정액 지급(총 1,560만 원)
태백	귀농학교 운영 : 귀농귀촌 장·단기 교육 도시민 정착금 지원 : 1년차 80만 원/월, 2년차 50만 원/월
삼척	귀농인 정착금 지원 : 2년간 월정액 지급(총 1,560만 원) 귀농인 영농정착 기술교육 : 영농정착 기초교육 및 실습 무료지원
홍천	귀농인 영농 정착 지원 : 100만 원 한도(50% 지원) 주택신축 설계비 지원 : 100만 원 한도(50% 지원) 비닐하우스 지원 : 100평 기준 세대당 325만 원 한도(50% 지원) 주민 초청 행사 지원 : 세대당 50만 원 한도
횡성	귀농정착자금 지원 : 1년차 80만 원/월, 2년차 50만 원/월 민원업무대행 지원 : 대지 420㎡ 이하, 건물 85㎡ 이하 농기계 대여 지원 : 사전 예약 신청
영월	귀농인 영농 정착지원 : 1,000만 원 한도(60% 지원) 농기계 임대 : 가정 또는 영농 현장에서 전화 신청
철원	농가 주택 수리비 지원 : 세대당 600만 원(50% 지원) 이사 비용 지원 : 세대당 100만 원(총 6세대 지원) 주택 설계비 지원 : 세대당 200만 원(총 5세대 지원) 소형 농기계(관리기) 지원 : 세대당 250만 원(50% 지원) 귀농인 비가림하우스 지원 귀농·귀촌 교육
화천	귀농인 정착 지원금 지원 : 1년차 80만 원, 2년차 50만 원
양구	교육훈련비 지원 : 전입 귀농·귀촌인 귀농인 정착 지원 : 1년차 80만/월, 2년차 50만/월 귀농·귀촌 상담실 운영

### 강원도


양양	정착 지원금 지원 : 1년차 80만 원, 2년차 50만 원
----	----------------------------------

### 충청북도

청주	귀농인 영농정착 지원 : 1,000만 원(70% 지원) 귀농창업 활성화 소자본 창업실행비 지원 : 최대 1,000만 원 귀농·귀촌 아카데미 : 교육비 무료, 귀농교육 15회(100시간)
충주	이사비용 지원 : 100만 원 한도 선도농가 현장실습 지원 : 귀농인 60만 원/월, 선도농가 60만 원/월 정착 지원 : 세대당 200만 원 창업자금 지원 : 세대당 1,000만 원
제천	귀농인 영농정착기반 조성사업(비닐하우스) : 개소당 620만 원(50% 지원) 귀농인 영농정착기반 조성사업(농기계, 과수시설) : 개소당 300만 원 (50% 지원) 귀농인 영농정착기반 조성사업(통신시설) : 개소당 200만 원(50% 지원)
보은	영농 및 생활자재 지원 : 20만 원 한도 농지구입 세제 지원 : 200만 원 한도 정착자금 지원 : 300~500만 원 한도 농기계구입비 지원 : 500만 원 한도
옥천	귀농인 세제 지원 : 취득세 300만 원 한도 내 가주택 수리비 지원 : 500만 원 지원 농기계 구입 지원 : 관리기(100만 원/대), 경운기(150만 원/대)
영동	귀농귀촌인 정착지원사업 : 농가당 500만 원 소형 농기계 구입 지원 : 농가당 관리기 80만 원 한도, 운반기 150만 원 한도(50% 지원) 소형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 : 농가당 500만 원 한도(50% 지원) 귀농귀촌인 기반조성 지원 : 1억 원 한도 주택신축 설계비 지원 : 150만 원 한도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 200만 원 한도 귀농귀촌인 집들이 지원 : 50만 원 한도 귀농인의 집 : 1,000만 원 한도

 충청북도


증평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 세대당 200만 원 정착자금 지원 : 세대당 300만 원 1귀농인 1직원 담당제 :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등
진천	농어업창업 : 세대당 3억 원 농가주택 구입자금 지원 : 세대당 3억 원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 세대당 200만 원
괴산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 세대당 200만 원 귀농귀촌 박람회 : 귀농귀촌 상담 귀농인지원센터 운영
음성	들깨단지 조성 : ha당 120만 원(70% 지원) 귀농인 및 2030세대 컨설팅 지원 : 귀농인/선도농업인 1일 2시간, 2만 원
단양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 세대당 200만 원 비닐하우스 신축 지원 : 100만 원 한도 소형농기계 구입 지원 : 100만 원 한도 전기, 수도, 인터넷 설치 지원 : 200만 원 한도 귀농인 후견인(멘토)제 운영 : 후견 비용 월 30만 원 지원 예비 귀농인의 집 운영 : 임대료 월 25만 원 지원 귀농귀촌희망인 단양 느껴보기 체험행사 : 약 3회 행사, 200여명 이상 체험 기회 제공 예정 귀농귀촌인 역량강화 교육 지원 : 약 2회, 200여명 교육 예정 빈집 토지 일자리 정보 프로그램 운영 지역주민과 귀농귀촌인 교류 지원 귀농귀촌인 재능기부 행사 지원 귀농귀촌인 협의회 운영활성화 지원

 충청남도

금산	귀농교육센터 운영 : 15평 15만 원/월~23평 23만 원/월 귀농귀촌대학 운영 : 20회 100시간(무료) 귀농인 소득모델 창업지원 : 개소당 750만 원
----	--

 충청남도

부여	농업시설 지원사업 : 세대당 1,000만 원 소규모 주택시설 개선사업 : 350만 원 아름다운 귀농마을 만들기 : 개소당 1,500만 원 2030 귀농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 세대당 1,000만 원 친환경 농산물 생산 유통개선 지원사업 : 세대당 1,000만 원 집들이 지원사업 : 세대당 40만 원 건축설계비 지원사업 : 세대당 100만 원 소규모 농기계 지원사업 : 개소당 150만 원 화합행사 지원사업 : 개소당 60만 원
서천	주거조성 원스톱 프로젝트 : 세대당 280만 원 빈집정비 사업 : 세대당 1,000만 원 선배 멘토링제 운영 : 멘토 40만 원, 멘티 80만 원 영농정착지원: 개소당 50만 원 농자재지원 지역주민 화합프로그램 운영 : 사업비 1,000만 원 학습동아리 육성 : 사업비 2,000만 원 영농정착 기술교육
홍성	멘토링 연계지원 : 지정멘토 40만 원/월 직거래 활성화 지원 : 세대당 300만 원(50% 지원) 정주환경 개선지원 : 세대당 500만 원(50% 지원) 새내기 귀농인 인력 및 학습단체 지원 농가합숙형 귀농체험 교육 1:1 개인 밀착형 영농실습 프로그램 운영
예산	선도농가 입주 현장실습교육 : 1인당 80만 원/월 정착귀농인 소형농기계 지원 : 최대 100만 원 빈집수리비 지원 : 가구당 500만 원 지원 귀농현장체류비 지원 : 1인당 10만 원
태안	귀농인 주민 활력화 : 1,000만 원 귀농인 현장실습농원 조성 : 3,000만 원 성공 귀농인 모델 농가육성 : 2,000만 원 초보귀농인 멘토링 구축 : 1,000만 원

 충청남도

태안	영농정착 용자지원 귀농인 소모임 현장학습 활동 귀농귀촌 현장 해설사 양성 귀농인 집들이 귀농연착륙 적응을 위한 전문가 컨설팅 예비 귀농인 현장체험 탐방 귀농지원센터 운영 귀농현장애로지원단 구성
천안	귀농귀촌지원센터 운영 : 전문상담 귀농영농정착 기술교육 : 50시간 내외 귀농현장애로지원단 운영 : 귀농인들과 커뮤니티
공주	귀농현장애로 지원 : 귀농인 애로지원 및 방문(100회) 귀농귀촌지원센터 운영 : 귀농귀촌인 상담 및 자료 제공 귀농인 박람회 : 박람회 참가 귀농인사랑방 운영 : 기초영농교육 및 견학 등 귀농인 현장 인턴지원 : 멘토 40만 원/월, 멘티 80만 원/월 (3~7개월, 800시간) 귀농인 정착 장려금 지원 : 세대당 300만 원 귀농인 주택 수리비 지원 : 세대당 200만 원
보령	신규농업인 정착지원 : 세대당 700만 원 귀농인의 집 운영 : 세대당 3,000만 원 주택 수리비 지원 : 세대당 500만 원
아산	소형 농기계 지원 : 세대당 80만 원 귀농지원센터 운영 : 2,000만 원 귀농현장애로지원단 운영 : 500만 원 귀농귀촌 현장실습 지원 : 개소당 600만 원
서산	소규모 농장조성 시범 사업 : 세대당 800만 원
논산	빈집수리 지원 : 세대당 500만 원 2030 영농 지원 : 세대당 1,000만 원 아름다운 귀농마을 만들기 : 세대당 1,000만 원 직거래장터 운영 : 세대당 1,000만 원

 충청남도

논산	농산물 생산 유통지원 : 세대당 1,000만 원 멘토멘티 운영 : 매월 80만 원 일반사업 : 세대당 1,000~5,000만 원(50% 지원)
계룡	계룡시 인구증가 시책 : 세대당 200만 원
당진	소규모 영농정착 실습농장 시범 : 세대당 800만 원(80% 지원) 귀농인 경영체 육성 시범 : 협의회 500만 원(80% 지원)

 전라북도

군산	귀농인 농지임차료 지원 : 세대당 최대 250만 원 농어촌 소득금고 지원사업 : 용자금 지원 농기계 및 비닐하우스 등 지원사업 멘토지원 주민유대강화
익산	현장실습지원 : 개소당 월 120만 원 박람회/홍보관/수도권 귀농학교 : 민간경상보조 귀농인 생산기반 지원 : 개소당 500만 원
정읍	주택수리비 지원 : 세대당 350만 원 영농정착 지원 : 세대당 200만 원 이사비 지원 : 세대당 50만 원 재능기부단 운영 : 5개소 2,500만 원(500만원/개소) 선도농가 멘토링 지원 : 멘토 10명 1,500만 원(3개월/150만 원/명) 귀농인의 집 운영 : 예비 귀농인에게 거주공간 임대 귀농·귀촌 교육 : 60명/6,200만 원(보조 5,000만 원, 자부담 1,200만 원) 귀농·귀촌 워크숍 : 40명/500만 원, 1박2일 귀농귀촌 창업 아이디어 공모전 : 4팀/3,900만 원(뿌리/3팀/900만 원, 줄기/1팀/3,000만 원)
남원	소규모 샵터 기반조성 : 가구수에 따라 5,000만 원~1억 원 주택수리비 지원 : 세대당 500만 원 한도 이사비 지원 : 세대당 100만 원 한도 주택마련자금(용자) 지원 : 최대 5,000만 원 원예작물 비가림하우스 : 농기당 660㎡~1,320㎡까지 재배 지원

 전라북도

남원	오미자 생산단지 지원 : 농가당 1,000㎡~1,300㎡까지 재배 지원 포도 시설하우스 : 660㎡당 825만 원(60% 지원)
김제	농촌주택수리비 지원 : 세대당 500만 원(50% 지원) 영농정착지원 : 50~500만원 농기계구입지원(50% 지원) 귀농귀촌 활성화 교육 : 자부담비 약간 멘토링 현장실습 교육 지원 : 귀농연수생 80만 원/월 집들이 지원 : 세대당 30만 원(60% 지원) 예비귀농인 임시거주용 등지조성 지원 : 임대료 10만 원/월 귀농·귀촌인 김제사랑자학금 지원 : 200만 원/년 수도권 귀농학교 운영 : 자부담 4만 원
완주	주택신축, 매입, 수리비 지원 : 세대당 500만 원 한도 농지매입, 임차비 지원 : 세대당 250만 원 한도 자녀학자금 지원 : 고등학생 50만 원, 대학생 200만 원 이내 출산장려금 지원 : 둘째 이상 120만 원 이사비 지원 : 세대당 50만 원 교육훈련비 지원 : 1인당 30만 원(1만 원/일) 소규모 비닐하우스 지원 : 세대당 960만 원(60% 지원, 40% 자부담) 귀농·귀촌인 Two-Job 지원 : 최대 50만 원/월 동아리 활동 지원 : 개소당 20만 원/월 재능기부 활동지원 : 시간당 2만원(40만 원/월 이내) 귀농귀촌인 마을환영행사 : 참여인원 40명이상 80만 원
진안	수도권 귀농학교 : 1인당 32,000원(90% 지원, 10% 자부담) 마을간사제도 : 1인당 120만 원 소규모 마을조성사업 : 지구별 1억원 이내(4가구 기준) 귀농귀촌 유치우수마을 인센티브 지원사업 : 마을당 500만 원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사업 2040세대 청년 귀농자 귀농창업자금 이차보전사업
무주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사업 : 세대당 5,000만 원 지원 집들이 비용 지원사업 : 세대당 30만 원 멘토컨설팅비 지원사업 : 멘토 30만 원/월

 전라북도

장수	수도권 시민상담 지원 재능기부 활동 지원 귀농 동아리 활동 지원 멘토 컨설팅 지원
임실	소득사업용자사업(소득금고) : 세대당 3,000만 원 한도 귀농정착지원 : 세대당 200만 원 귀농현장실습비 : 세대당 300만 원 교육훈련비 : 세대당 50만 원 소득사업 및 생산기반시설 지원 : 세대당 1천만 원(50% 지원) 주택구입신축 및 수리지원 : 세대당 500만 원(70% 지원) 다세대 소규모 기반조성 지원사업 : 1개소 5,000만 원~1억 원 임시거주공간 지원사업
순창	이사비 지원: 세대당 100만 원 주택수리비 지원: 세대당 730만 원(보조 500만 원, 자부담 230만 원) 소득사업비 지원 : 세대당 2,000만 원(50% 지원) 집들이비 지원 : 세대당 50만 원
고창	영농정착금 지원 : 1인당 100만 원(1년차 50%, 2/3년차 25% 분할지원) 귀농귀촌학교 : 귀농귀촌교육 농업창업자금 지원 : 귀농교육 100시간, 영농종사 3개월 이상 이수 마을 환영회 : 연 56회(읍, 면별 4회)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소규모 귀농귀촌 전입가구 기반조성사업 유치/화합 우수마을 지원사업 수도권 귀농아카데미 운영 귀농귀촌 멘토사업
부안	중소형 농기계 지원 : 세대당 500만 원(50% 지원) 농가주택수리 지원 : 개소당 500만 원 이내



 전라남도

여수	귀농어업인 정착금 지원 : 세대당 30만 원/월 주택 수리비 지원 : 세대당 500만 원 한도 내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 임대료 5,000원~180,000원 약용작물마스터 대학 운영 : 교육비 10만 원 여수시 농업인대학 운영 : 교육비 10만 원 귀농·귀촌 영농정착 교육
순천	귀농귀촌역량강화 교육 귀농인 e-비즈니스 활성화
나주	2030청년 귀농인 맞춤형 영농지원 : 세대당 1,000만 원(50% 지원) 농가주택수리비 지원 : 세대당 500만 원(80% 지원) 귀농정착지원사업 : 세대당 2,000만 원(50% 지원) 우수귀농인 농산물 품질개선 지원 : 세대당 3,000만 원(50% 지원)
광양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 세대당 500만 원 선도농가 현장실습교육 지원 : 인턴실습비 80만 원/월 영농정착 기술교육
담양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곡성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 세대당 500만 원 한도 미니채소 시설지원 신규 농업인력 육성지원
구례	귀농인 정착지원 : 세대당 500만 원 (50% 지원) 주택수리비 지원 : 세대당 400만 원 한도(80% 지원) 이웃주민 초청행사 : 세대당 50만 원 영농정착교육 : 무료 농지취득세 감면 : 취득세 50% 감면
고흥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 세대당 500만 원 현장실습 교육 : 세대당 400만 원 청년 창업농장 지원사업 : 세대당 2,000만 원 도시민 선도농가 농촌체험 교육 : 실습교육비 전액 지원 귀농인 영농정착 교육 예비 귀농인 팸투어 실시

 전라남도

고흥	도시민 체류형 보금자리 마련 귀농귀촌홈페이지 운영
보성	정착장려금 지원 : 1인 20만 원, 2인 35만 원, 3인 이상 50만 원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 개소당 500만 원 귀농자 교육비 지원 : 1인당 30만 원 귀농인 모임체 활성화 지원 : 보조 440만 원 귀농귀촌 박람회 및 지역축제 참가 홍보비 : 보조 2,500만 원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영농정착 기술교육
화순	귀농귀촌인 동호회 운영 지원 : 개소당 100만 원 귀농인 정착지원 : 세대당 300만 원 한도(50% 지원) 농촌문화 체험·체득 프로그램 : 1회 300만 원 지원 도시민 연착륙 적응지원 : 마을잔치 1개소 50만 원 한도, 역량강화교육 200만 원 한도 농가주택수리비 지원 : 개소당 500만 원 한도 지원 귀농학교 운영 지원 귀농귀촌인 모임체 육성 농업농촌 전문교육
장흥	귀농어업인 농가주택수리비 : 세대당 500만 원 귀농어업인 창업자금 : 세대당 2,000만 원
강진	공가수리 보조사업 : 세대당 500만 원 귀농 정착 보조사업 : 세대당 최대 1,500만 원(50% 지원) 귀농월촌조성 보조사업 : 1개소(빈집 5호) 3,500만 원 귀농인 소규모(가공) 창업 공모사업 : 개소당 2,000만 원(자부담) 강진귀농사관학교 운영지원사업 : 개소당 3,000만 원 귀농 1:1 맞춤형교육 : 개소당 1,800만 원(사업량에 따라 조절가능) 귀농인 유기농 전원생활대학 : 개소당 2,000만 원 귀농인과 지역민 융화 : 개소당 1,000만 원
해남	주택수리비 지원 : 세대당 500만 원 농업인턴제 : 6개월간 인턴 96만원/월, 선도농가 24만 원/월 정착지원 : 세대당 2,000만 원(50% 지원)

 전라남도

해남	<p>농촌이주비용 지원 : 세대당 50만 원                  주택취득비용 지원 : 세대당 30만 원 이내                  영농자재 구입지원 : 세대당 50만 원</p>
영암	<p>귀농정착금 지원 : 세대전부 40만 원/월(3년), 세대일부 20만 원/월(3년)                  빈집수리비 지원 : 세대당 500만 원</p>
무안	<p>귀농인 정착지원 사업 : 세대당 2,000만 원                  농가주택수리비 지원 : 동당 600만 원 지원</p>
함평	<p>귀농정착지원 : 세대당 2,000만 원(50% 지원)                  농가주택수리비 지원 : 세대당 500만 원(50% 지원)</p>
영광	<p>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 세대당 500만 원                  신규 창업농지 지원 : 개소당 2,000만 원                  소규모 창업농 지원 : 개소당 1,000만 원(50% 지원)                  귀농인과 지역민 박람회 유통 협력지원 : 개소당 800만 원(50% 지원)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 : 개소당 4,000만 원(50% 지원)</p>
장성	<p>영농정착지원 : 세대당 2,000만 원(50% 지원)                  농가주택수리비 : 세대당 500만 원                  우수창업농육성 : 세대당 30만 원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지원 : 1마을 1,000만 원</p>
진도	<p>정착지원 : 세대당 600만 원(75% 지원)                  영농자재 지원 : 세대당 250만 원(80% 지원)                  농가주택수리비 지원 : 세대당 625만 원(80% 지원)                  이사비 지원 : 세대당 100만 원                  현장실습교육 지원 : 세대당 625만 원(80% 지원)</p>
신안	<p>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 세대당 550만 원(500만 원 지원, 50만 원 자부담)                  정착장려금 지원 : 세대당 300~600만 원                  유치장려금 지원 : 세대당 유치시 100만 원                  현지융화 지원 : 세대당 50~100만 원</p>

 경상북도

김천	<p>정착지원 : 세대당 1,000만 원                  농가주택수리비 지원 : 세대당 500만 원                  농어촌진흥기금 지원 사업 시행지침 : 세대당 5,000만 원 이내                  농업인턴제 사업</p>
영주	<p>정착지원 : 세대당 500만 원(80% 지원)                  학자금 지원사업 : 세대당 100만 원 한도 내                  주택수리비 지원 : 세대당 430만 원(300만 원 지원)                  귀농귀촌체험투어 운영                  귀농귀촌인 유치박람회 참가                  농촌빈집 및 농지 등 부동산 정보제공                  이주 도시민 멘토링 지정 운영                  귀농귀촌인 만남의 날 행사 운영                  재능기부 활동 지원                  홍보 및 직판 행사 지원                  선도농가 현장실습비 지원                  귀농교육                  귀농멘토멘티 교육지원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건립                  귀농인 현지 적응 선진기술 연찬                  귀농귀촌인 아카데미 운영                  귀농귀촌인 사랑방 운영                  현장중심 영농기술 교육 운영</p>
영천	<p>귀농정착 지원 : 세대당 500만 원(80% 지원)                  농기계임대 반값 지원 : 임대료 50% 할인</p>
상주	<p>청년 농산업 창업지원 : 80만 원/월(2년)                  귀농인 정착 지원 : 세대당 500만 원(80% 지원)                  귀농인 영착, 수리비 지원 : 세대당 500만 원(50% 지원)                  귀농귀촌인 주민초청 행사 지원 : 세대당 40만 원                  귀농귀촌인과 지역민 협력소득 지원 : 세대당 500만 원(50% 지원)</p>

 경상북도

상주	<p>창농창업 지원 : 세대당 1,000만 원(50% 지원)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 : 세대당 800만 원(50% 지원)                  소규모 전원마을 입주민 초청행사 운영 : 마을단위 100만 원                  농어촌 진흥기금 : 1억 원 이내                  입주자 주도형 소규모 전원마을 조성 사업</p>
문경	<p>귀농인 정착 지원 : 세대당 500만 원(80% 지원)                  귀농인 소득 및 주택수리비 지원 : 세대당 700만 원(80% 지원)                  마을주민 초청행사 : 세대당 50만 원</p>
군위	<p>귀농인 정착 지원 : 세대당 500만 원(80% 지원)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 세대당 300만 원                  농지구입세제(취등록세) 지원 : 세대당 200만 원</p>
의성	<p>귀농인 정착 지원 : 세대당 500만 원(80% 지원)                  주거환경개선 지원 : 세대당 1,000만 원(50% 지원)                  농어촌진흥기금 지원 : 세대당 1,000~5,000만 원 이내                  이사비용 지원 : 1인가구 20만 원, 2인가구 40만 원, 3인가구 60만 원                  주민초청행사 지원 : 세대당 30만 원                  귀농인의 집 리모델링 지원 : 개소당 2,000만 원 이내                  멘토멘티 현장실습 교육지원 : 멘토 24만 원/월, 멘티 48만 원/월(5개월)                  주택설계비 지원 : 세대당 200만 원(50% 지원)                  지역민과 귀농귀촌인 화합 한마당 행사 : 1,000만 원                  도시민 농촌체험 투어 : 300만 원                  귀농인 지역 재능기부 : 1,000만 원                  귀농교육 : 1,500만 원                  인적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청년동아리 활동) : 500만 원                  농가현장 체험학습                  소규모 전원마을 조성사업                  귀농귀촌 유치우수마을 지원사업</p>
청송	<p>영농 정착금 지원 : 세대당 400만 원                  주택수리비 지원 : 세대당 300만 원                  농지구입 이자 지원 : 세대당 150만 원                  농지구입 세재 지원 : 세대당 200만 원</p>

 경상북도

청송	<p>귀농학교 수강료 지원 : 세대당 30만 원</p>
영양	<p>귀농인 정착 지원 : 세대당 500만 원(80% 지원)                  귀농 농가 지원 : 세대당 500만 원(80% 지원)                  주택수리비 지원 : 세대당 375만 원(80% 지원)</p>
청도	<p>귀농정착 지원 : 세대당 500만 원(80% 지원)                  정착장려자금 지급 : 부부(2명) 전입시 100만 원                  3인 이상 전입시 300만 원(1회에 한함)</p>
고령	<p>귀농인 환영 행사, 이사비용, 팜스테이 프로그램 : 세대당 50만 원                  귀농인의 집 리모델링 지원 : 세대당 3,000만 원                  귀농인의 집 운영 : 단체당 2,000만 원                  소규모 귀농마을 조성 : 단체당 6,000만 원                  주택수리비 지원 : 세대당 300만 원                  농지구입 세금 납부 보상 : 세대당 100만 원                  영농 정착지원금 지원 : 세대당 500만 원                  귀농인 정착지원 : 세대당 500만 원</p>
성주	<p>창업자금 지원 : 세대당 1,000만 원(50% 지원)                  주택수리 지원 : 세대당 1,000만 원(50% 지원)                  선도농가 현장실습 지원</p>
예천	<p>귀농인 정착 지원 : 세대당 500만 원(80% 지원)                  농가주택(빈집) 수리비 지원 : 세대당 500만 원(80% 지원)                  영농기반 지원 : 세대당 500만 원(80% 지원)                  이사비용 지원 : 세대당 100만 원 이내                  귀농인 주민초청행사(집들이) 지원 : 세대당 50만 원 이내</p>
봉화	<p>이사비용 지원 : 세대당 100만 원 이내                  정착장려금 지원 : 세대당 480만 원                  빈집 수리비 지원 : 세대당 300만 원 이내                  정착 지원 : 세대당 400만 원</p>


 경상남도

창원	농업창업자금 : 세대당 4.4억 원
김해	정착 지원 : 세대당 375만 원
거제	정착 지원 : 세대당 375만 원
양산	농어촌진흥기금 지원 : 농가 3,000만 원, 시설/법인 5,000만 원 영농정착 기술교육 도시농부학교 역량강화 교육
의령	정착 지원 : 개소당 360만 원(보조 300만 원, 자부담 60만 원) 귀농인마을 기초생활 기반조성 지원 : 개소당 5,000만 원 선도농가 소득모델 창출 지원 : 개소당 2,000만 원(60% 지원) 귀농인 현장실습 지원 : 3~7개월 실습비 지원
창녕	영농정착금 지원 : 세대당 500만 원 영농자재비 지원 : 세대당 100만 원 현장실습/멘토링 지원 : 30만 원/월(8개월 한도) 귀농교육 수강료 : 세대당 30만 원(1회) 귀농안내 도우미 : 5만 원/상담횟수 1건(동일인 제외) 귀농귀촌인과 주민과의 화합 한마당
고성	영농정착 지원 : 세대당 500만 원 노후주택(빈집) 수리비 지원 : 세대당 500만 원
남해	농자재 지원 : 세대당 20만 원
하동	농업인턴 지원
산청	신규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 세대당 500만 원(60% 지원) 영농정착 기술교육 : 무료 관내전입축하 기념품 전달 : 세대당 10만 원
함양	귀농 정착 지원 : 세대당 300만 원
거창	귀농인턴제 지원 : 1인당 80만 원 - 영농정착금 지원 : 세대당 500만 원 - 귀농귀촌 홍보물 제작 : 연간 1,000만 원 - 귀농귀촌멘토링 사업 : 현장상담 후 수당지급(회당 5만 원) - 영농체험 농장 조성 : 개소당 1,000만 원


 경상남도

거창	생산농산물 포장재 지원 : 연간 2,000만 원 농업대학 운영 도시민 유치현장 상담실 운영 귀농귀촌인 상생 프로그램 운영
합천	신규 농업인 주택 수리비 지원 사업 : 500만 원 신규 농업인 영농지원 사업 : 700만 원


 제주도

제주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 세대당 572만 원(70% 지원)
----	----------------------------------

귀농귀촌 원스톱(One-Stop)서비스로 여러분을 지원합니다.



귀농귀촌종합센터 [www.returnfarm.com](http://www.returnfarm.com) 1889-9097

1. 귀농귀촌 창업 설계 및 종합 상담

- 품목, 지역, 창업 관련 전문가의 상담
- 농정원(귀농교육/지원정책), 농어촌공사(농지/주택), NH농협(농업금융), 한국임업진흥원(임업) 합동상담

2. 온·오프라인을 통한 귀농귀촌 종합정보제공

- 귀정부 및 지자체 귀농귀촌 지원정책 안내
- 귀농·귀촌 온·오프라인 교육 안내
- 농지, 주거지, 농가실습 안내
- 온라인 홈페이지, SNS, 귀농·귀촌 정보서비스

농림축산식품부

[www.mafra.go.kr](http://www.mafra.go.kr)

044-201-1518~9

귀농귀촌 정책 및 제도 수립, 총괄 관리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www.agriedu.net](http://www.agriedu.net)

044-861-8889

농업농촌관련 교육포털사이트

: 귀농귀촌 희망자 대상 온·오프라인

교육서비스 제공

: 귀농귀촌 Q&A 등 다양한 콘텐츠 제공

농촌진흥청

[www.rda.go.kr](http://www.rda.go.kr)

1544-8572

품목별 농업기술정보 및 지역별

농업정보

농협

[www.nonghyup.com](http://www.nonghyup.com)

02-2080-7583

귀농귀촌 정책자금 지원 및 상담

농지은행

[www.fbo.or.kr](http://www.fbo.or.kr)

1577-7770

농지, 농촌시설 매물 소개, 농지시세

정보제공, 농지임대 등

웰촌

[www.welchon.com](http://www.welchon.com)

1577-1417

농촌체험여행, 전원생활

: 농산어촌체험마을 및 체험행사 소개,

체험/관광 지역정보제공

자치법규정보시스템

[www.elis.go.kr](http://www.elis.go.kr)

02-2076-5922

자치단체 조례 정보 등

---

# 촌에살고 촌에웃고

귀농귀촌 18인의 우수사례 이야기

발행일 2016년 5월 31일

발행처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

30033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군청로 93

Tel. 1899-9097 Fax. 02-2058-2074

제 작 승일인쇄주식회사

Tel. 070-7416-4124 [www.seungill.com](http://www.seungill.com)

※ 본 책자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제작되었으며, 사전 승인 없이 무단 전재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